

#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2 June Vol·246

6

2012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80회 정기연주회

지휘 곽 승  
*Sung Kwak*

### Program

로시니 | 「세비야의 이발사」 서곡  
Rossini | Overture to 「Il barbiere di Siviglia」

라흐마니노프 | 피아노 협주곡 제4번  
Rachmaninoff | Piano Concerto No.4

브람스 | 교향곡 제1번  
Brahms | Symphony No.1



피아노 김혜정  
*Hae-Jung Kim*

2012. 6. 8 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문의 607-3111~3(부산시향) 607-3100(홍보마케팅부) 입장권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부산은행 전지점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서울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 대연지하철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Giuseppe Verdi  
**Requiem**



부산시립합창단

2012. 6. 14 (목) 오후 8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지휘  
이동신



테너  
강학윤



바리톤  
안상철



소프라노  
구민영



메조소프라노  
구은정

입장료 2,000원 (균일)

주최 | 을숙도문화회관 (<http://eulsukdo.saha.go.kr>)

주관 | UKO United Korean Orchestra



한국음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문화재단

부산원음방송

팝부산

Homeplus 장림점

사하인터넷뉴스  
www.saha7news.co.kr

예매 | 을숙도문화회관 홈페이지, 팝부산·부산은행 전 지점 **나눔티켓** 관람 | 초등학교 이상 가능 / 문의 : 051)220-5805

\* 스텝 : 무대감독 전광수, 음향감독 이광섭, 조명감독 오종영

\* 본 공연은 2012년 부산문화재단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시행됩니다.

# C. Gounod - Missa Solennelle

## 제8대 수석지휘자 취임기념 연주회



지휘 오세종



Soprano 한경미



Tenor 홍지형



Baritone 공병우



Organ 김원



부산시립교향악단

### Program

1부 • Messe Solennelle(장엄미사) - C.F.GOUNOD(1818~1893)

- 1. Kyrie(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 2. Gloria in excelsis(높은 곳에 영광) / 3. Credo(사도신경)
- 4. Offertoire(봉헌송) / 5. Sanctus(거룩하시다) / 6. Benedictus(복 있으라) / 7. Agnus Dei(신의 어린 양)

2부 • Gloria(영광송) - J.Rutter (1945~)

- 창작곡(정애련 작곡) - 위로(남성합창) / 동계 동계야 / 메주와 곰팡이
- 우리민요 - 강강수월래(진규영 작·편곡) / 밀양아리랑 랩소디(조우현 편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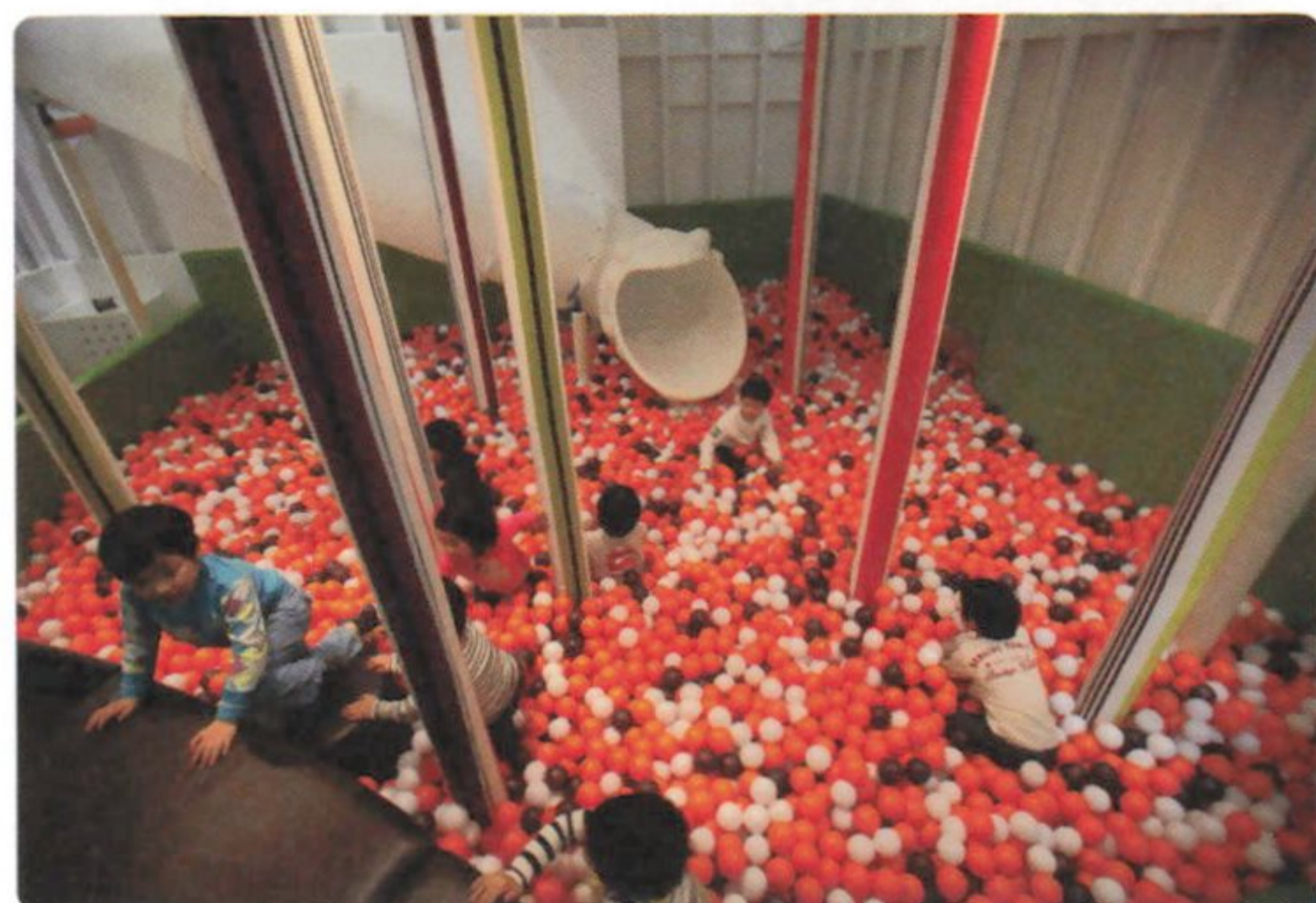
2012. 6. 22 | 금 |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10,000원 / S석-7,000원 / A석-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시립합창단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607-3100 / 부산시립합창단 607-3141~4

☐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대연지하철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 06 커버스토리 | 제8회 부산국제무용제 '춤 바다를 품다'
- 08 프리뷰
- 12 반갑습니다 | 부산국제무용제 프로그래머 안은미
- 14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 MOCCA 페스티벌 \_ 박세욱
- 18 클래식, 문학을 만나다 ⑥ | 셰익스피어와 베르디의 <오셀로 上> \_ 이동신
- 20 불멸의 거장-로시니 ④ | 극적인 감동을 이끌어내는 탁월한 능력 \_ 김종천
- 22 그림, 풍류를 만나다 ⑩ | 나무꾼이 소를 타고 돌아오는 마음은 \_ 변광석
- 24 그곳에 가면 | 디지털 감성 놀이터 '더놀자'
- 26 우리는 문화가족 | 부산 최초의 아마추어 실버밴드 '비상'
- 28 리뷰 | 피아노 그리고 네가지 색깔 \_ 박진홍  
독립영화 <이방인들>과 이방인들 \_ 김희진
- 30 특별기고 | 할레국제어린이합창페스티벌 대상 수상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_ 전진
- 31 나의 애청음반 | 두 개의 뱃노래에 푸르름을 싣고 \_ 조영석
- 32 테마가 있는 여행
- 35 CULTURE LIFE
- 59 100자 토크
- 60 부산문화회관 소식
- 62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2년 6월호 통권 246호

발행처 |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대연동 848-4)  
Tel. 051-120(주간), 051-607-6222(야간) / Fax. 051-607-3109  
발행인 | 최동환 편집인 | 박원철 편집장 | 백경옥 발행일 | 2012년 5월 25일  
인쇄처 | 디자인글꼴 Tel. 051)636-1210 www.ggad.co.kr

쉴!



바다를  
품다

## 제8회 부산국제무용제

# 춤! 바다를 품다

싱그러운 6월, 부산의 바다를 배경으로 아름다운 춤 세상이 열린다.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세계 유일의 무용제 제8회 부산국제무용제가 바로 그 주인공. 올해는 '소통과 화합'을 키워드로 세계 14개국의 우수한 춤 단체가 참여하는 공식초청 공연과 AK(Arts Korea)21 국제안무가 육성공연, BID 춤아카데미, BID 워크숍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부산문화회관과 해운대 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현대무용가 안은미가 부산국제무용제의 프로그래머로 합세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제8회 부산국제무용제는 세대간의 소통, 국가와 언어와 인종의 벽을 뛰어넘는 글로벌 소통, 부산시민 전체가 모두 즐길 수 있는 춤으로 시간의 흐름과 몸의 한계를 넘어선 무용수들의 '몸'과 '움직임'을 통한 소통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6월 1일(금)부터 3일(일)까지 매일 저녁 7시 해운대 해변 특설무대에서 초청단체의 본 공연 후 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프로그래머 안은미가 추천하는 세계 10여개국의 무용영화 10여편을 상영하는 댄스필름페스티벌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제한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미디어를 통해 아름다운 움직임과 비주얼,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 파스칼 매그닌(Pascal Magnin) 연출의 'Reines d'un Jour'와 알라 코브간과 데이빗 힌튼(Alla Kovgan and David Hinton) 연출의 'Nora' 등 다양한 무용영화들을 만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강렬하면서 에너지가 넘치는 해외 초청단체들도 눈길을 끈다. 1일 초청공연 첫 무대를 장식하는 일본 컨템포러리 댄스계의 화제의 인물인 겐타가 창단한 일본의 '도쿄 일렉트록 스테어스(Tokyo Electrock Stairs)'를 비롯해 태국의 전통무용 언어를 컨템포러리한 방식으로 풀어내는 '피췌트 클런컨 댄스컴퍼니(Pichet Klunchun Dance Company)', 1995년에 창설된 뉴질랜드 최고의 현대무용단 '블랙 그레이스(Black Grace)', 노르웨이 내셔널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노르웨이 합합댄스 그룹 '퀵 크루(Quick)', 뮤지컬적인 요소와 극적이고 정열적인 안무로 다양한 레퍼토리를 보유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키에프 모던발레(Kiev Modern Ballet)', 중국 현대무용계의 무서운 신예로 떠오른 타오 예가 만든 베이징의 현대무용단 '타오 댄스시어터', 프리스타일과 무술에 영향을 받은 헝가리의 '페렌크페헤르(Ferenc Feher)',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 발레댄스 '스테픈 델라트르(Stephen Delattre)', 유럽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국의 '캐롤라인 핀(Caroline Finn)', 유럽의 젊고 야심찬 현대무용가 필립 반 후펠(Filip Van Huffel)에 의해 만들어진 벨기에무용단 '레티나 댄스 컴퍼니(Retina Dance Company)'가 아름다운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춤의 향연을 펼친다.

한국의 젊은안무가를 국제적인 안무가로 육성하기 위해 부산국제무용제가 핵심장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AK21 국제안무가 육성공연은 지난 2월 8일 1차 비디오심사를 시작으로 3월 17일 2차 실연 심사를 통과한 4개팀이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6월 4일 오후 7시 3차 결선공연을 치른다. 올해는 김정미 무용단 '공녀-불어지다(안무/김정미)', KJK댄스컴퍼니 '통증(안무/김종기)', 박한울 댄스프로젝트 '천해남로(안무/박한울)', M-note '하프타임(안무/신승민)'이 열린 경연을 펼친다.

일 시 : 6월 1일(금)-6월 5일(화)  
장 소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해운대해수욕장 특설무대  
문 의 : 사)부산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890-2507,  
www.bidf.or.kr)



# Preview

창단 50주년 기념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80회 정기연주회

| 6월 8일 금요일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객원지휘 곽승

피아노 김혜정

● ● ●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곽승과 최정상급의 피아니스트 김혜정이 6월 8일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80회 정기연주회를 통해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 50주년을 맞아 오랜만에 부산시립교향악단 지휘봉을 잡은 곽승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8대 수석지휘자(1996~2003)로 재직하며 부산 시민들에게 풍부하고 깊이 있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한 음도 소홀히 하지 않는 엄격한 지휘자로 정평이 나 있는 곽승은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 재직 시 미국 4개 도시, 동남아 3개국, 중국 3개 도시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2008년부터 대구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곽승은 지휘자로서의 활동 외에도 젊은 음악인 양성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현재 경희대학교 석좌교수 및 베네수엘라 엘 시스테마 지휘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미국 4개 도시, 동남아 3개국 투어 당시 협연자로 호흡을 맞추었던 피아니스트 김혜정이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다시 한번 환상적인 호흡을 맞춘다.

14세 나이로 링컨센터에서 첫 국제 데뷔를 가진 김혜정은 1990년 마리아 칼라스 국제 피아노 콩쿠르 최고상, 1992년 쾰른 국제 피아노

콩쿠르 및 디안젤로 영 아티스트 콩쿠르 1등상을 수상하고 1995년과 1996년에는 한국정부로부터 그 동안 한국을 빛낸 음악가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훈장과 젊은예술가상을 수상하였다.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협연 무대를 가진 김혜정은 로린 마젤, 샤를르 뉘트와, 드미트리 키타옌코, 예후디 메뉴힌, 블라디미르 페도세예프, 정명훈 등 뛰어난 지휘자들과 아테네, 바르셀로나, 파리,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미국의 케네디 센터, LA 도로시 찬들러 파빌리온, 카네기홀, 런던의 위그모어 홀과 바비칸 센터 등에서 연주하였다.

김혜정은 이번 협연무대에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4번'을 연주한다. 이곡은 라흐마니노프가 남긴 4곡의 피아노 협주곡 중 2번과 3번에 비해 자주 연주되지 않지만 격변의 시대 속에서 새로운 환경에 정착하여 안정을 되찾은 라흐마니노프가 다시 창작 의욕을 북돋운 작품으로 곡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역설과 불안정은 당시 라흐마니노프 자신의 모습을 반영하는 듯하다. 초연은 1927년 3월 18일, 스톡홀름 스키 지휘,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 라흐마니노프 자신의 피아노 독주로 이루어졌으나, 평가는 매우 싸늘했다. 이후 두 번에 걸쳐 일부분을 수정, 축소하여 1928년과 1941년판을 발표하였는데, 라흐마니노프라는 이름에서 기대할 수 있는 색채감과 멜로디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특유의 거장적 기교와 우울한 서정성만은 곡 전반에 걸쳐 잘 나타나고 있다.

김혜정이 협연하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4번' 외에 이탈리아 양식으로 된 로시니의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서곡, 브람스의 고향인 북유럽의 함부르크적인 목직한 정서가 바탕을 이루고 있는 브람스 '교향곡 제1번'으로 화려한 무대를 선보인다.

입장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62회 정기연주회

# 상생 2012 환경생태음악회

| 6월 13일 수요일 오후 7:30 |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



객원지휘 이정필

가야금 김혜진

클라리넷 손영채

● ● ●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아름다운 국악선율로 전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환경생태음악회 '상생 2012' 무대가 6월 13일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환경생태음악회 '상생 2012'는 오늘날 인류사회의 화두로 등장한 환경생태의 문제를 되돌아보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상생의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국립부산국악원 예술감독 이정필이 객원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25현 가야금 연주자 김혜진, 클라리네티스트 손영채, 소리꾼 최윤영, 김세운, 이은혜의 협연으로 자연과 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창작곡을 부산초연으로 들려준다.

객원지휘를 맡은 지휘자 이정필은 부산대학교 효원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하고 현재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 예술감독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의 첫 곡은 이준호 곡 국악관현악 '산'. 2007년 지휘자 김정수가 지휘하는 한국청소년국악관현악단 연주로 초연된 국악관현악 '산'은 회갑을 맞은 작곡자의 스승 김정수 선생에게 헌정된 곡으로, 악장의 구분없이 장단의 변화를 통한 유희적 악상을 정(靜)과 동(動)의 조화로 표현한 곡이다.

박범훈 곡 '25현 가야금과 클라리넷을 위한 메나리'는 원곡인 '사쿠

하지와 고토를 위한 메나리'를 25현 가야금과 클라리넷 협주곡으로 편곡한 작품으로, 한오백년과 강원도아리랑 등 메나리조로 된 민요를 곡의 주선율로 활용해 때문지 않은 한국인들의 토박이 정서와 푸근한 향수를 표현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이자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8호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전수조교로 있는 김혜진과 경성대학교 음악학과와 동의대학교 음악대학원, 헝가리 Liszt Ferenc zene Akademia, 러시아 마그니따 고르스크 국립글링카 콘서바토리를 졸업하고 현재 메소드 클라리넷양상블 지도교수, 메소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있는 손영채의 앙상블 연주로 들려준다.

이어지는 무대는 서도민요연곡과 세계민요기행. 서도민요는 예로부터 거친 풍토에서 북방 이민족과 겨루며 굳세게 살아온 관서지방 사람들의 생활 속에 면면히 이어온 소리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국립부산국악원 단원으로 있는 소리꾼 최윤영, 김세운, 이은혜가 '느리게타령' '금다래타령' '싸름타령' '풍구타령'을 들려준다. 각 민족의 삶의 모습이 녹아있는 각국의 민요를 소개하는 세계민요기행에서는 '아름다운 베르네 산골(스위스)' '오! 수재너(미국)' 등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세계 각국의 유명 민요들을 들려준다.

이번 무대의 마지막 곡은 강상구 곡 국악관현악 '광야의 숨결'. 드넓은 평야의 웅장한 기개와 온화함을 표현한 곡으로, 관객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선사한다.

입장권 : 초대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3)

# Preview

## 부산시립합창단 제142회 정기연주회 제8대 수석지휘자 취임기념 연주회 Missa Solennelle

| 6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지휘 오세종

소프라노 한경미

테너 홍지형

바리톤 공병우

오르간 김원

2012년 창단 40주년을 맞아 의욕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시립합창단이 우리나라 합창음악의 산증인 오세종 지휘자를 제8대 수석지휘자로 영입, 6월 22일 취임기념 연주회를 연다. 부산음악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갖는 신임 수석지휘자 오세종은 서울대학교 성악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남가주주립대에서 지휘공부를 하고 1975년 국립합창단에 입단했다. 오페라, 합창 활동 외에 연극, 뮤지컬, 발레, 한국무용, 탈춤 등의 교육을 받으며 직접 무대에 출연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한 오세종 지휘자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장르의 음악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지휘자로 정평이 나 있다. 일본 다카라스카 국제합창콩쿠르에서 종합대상(1987)을 수상한 국내 유일의 수상자이기도 한 오세종 지휘자는 그동안 국립합창단, 서울시뮤지컬단, 안양시립합창단, 고양시립합창단, 서울시합창단 등 국내 주요 합창단을 지휘했다. 이번 무대는 취임연주와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기 위해 1부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의 합동 무대로 여성 순교자 중 가장 사랑받는 성녀 세실리아를 위한 C.구노의 장엄미사, 2부에서는 금관악기와 오르간, 합창이 어우러지는 J.루터의 글로리아, 서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애련의 창작가곡 남성합창 '위로(Consolation)', 혼성합창 '등계 등계야' '메주와 곰팡이', 우리 민요 '아리랑'을 들려준다.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정애련은 이탈리아 G.Spontini 시립음악원에서 작곡전공으로 석사와 최고과정을 마쳤고 현재 독일 인도주의협회(HVD) 글로벌 다문화합창단 음악고문, Strad-Music 음악감독, 작곡그룹 For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무대를 위해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 동경 후지와라(Fujiwara) 오페라단 정단원 주역가수, 명지대학교 예술종합원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한경미,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이탈리아 Busseto VERDI 국제콩쿠르에서 3위를 차지하며 이탈리아와 유럽에서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가면무도회'와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의 주역으로 데뷔한 부산 출신의 테너 홍지형, 프랑스 퐁루즈국제콩쿠르 대상, 파리국제콩쿠르 2위, 마몽드국제콩쿠르 1위, 마르세이유국제콩쿠르 2위, 서울국제성악콩쿠르 1위를 차지한 세계적인 바리톤 공병우, 오르가니스트 김원이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입장권 :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 제21회 부산무용제

| 6월 25일-27일 월-수요일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 ● ● 부산무용예술인의 최고의 축제인 부산무용제가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전국무용제에 참가할 부산 대표 무용단을 선발하는 경연 무대와 시민들에게 다양한 춤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예술축제 형식으로 진행되는 부산무용제는 전통을 바탕으로 현대와 교감하는 움직임의 예술축제이다.

열정 넘치는 젊은 춤꾼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올해 부산무용제는 현대 무용 3개 팀과 발레 2개팀이 경연에 참가, 부산을 대표하는 지금, 부산의 춤을 선사한다.

현대무용단 'Mom-buirm Dance Project'가 선보이는 '어떤...이의 기억(안무/이상미)'은 '어떤...이의 기억' 속에서 열정적으로 소통하고 온 몸으로 살아있음을 느끼며 고통의 순간도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는 특별한 우리에게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작품이다.

현대무용단 '판 댄스 씨어터'는 허종원의 안무로 '오감도(五感刀)'를 무대에 올린다. '오감도'는 육감을 무시한 체, 시대에 무수한 이데올로기적 오류를 범하고 그 속에서 오감이란 칼날에 할퀴어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살고만 있는 '나'의 모습을 현대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박재현이 이끄는 현대무용단 'JULY Dance Company'는 '노년의 기록'으로 부산무용제에 도전한다. 이 작품은 30대 청년실업왕국 대한민국에서 일상을 반복하는 지금 이 순간 죽음과 삶 속을 방황하는

노년을 위로하는 창작 작품이다.

그랑발레(Grand Ballet)는 최소정이 안무한 '피고지고 그리고 피고지고'로 오랜만에 부산무용제에 도전한다. '피고지고 그리고 피고지고'는 태어나 자라 꽃이 필 무렵 누군가를 만나 결실을 맺고 그리고 처음과 같이 아무것도 없이 조용히 사라지는 우리 삶을 그린 작품으로 prologue, scene1 生-發陳(발진), scene2 長-蕃秀(번수), scene3 收-容平(용평), scene4 藏-閉藏(폐장)의 순서로 펼쳐낸다.

부산발레연구회는 공문정의 안무로 축복 속에 하나 되는 우리들의 미래를 꿈꾸는 창작발레 '꿈(Dream)'으로 경연에 참가한다.

제21회 부산무용제는 5개 경연팀 공연 외에 국립부산국악원의 개막 축하공연, 부산시립무용단의 폐막축하공연, 지난해 대상을 차지한 허경미무용단 Red step의 축하공연 '외치다'가 함께 펼쳐진다.

입장권 :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 (사)한국무용협회 부산광역시지회(632-5116)

반갑습니다

바다가 주는 거대하고 변화무쌍한  
에너지를 몸으로 표현

부산국제무용제  
프로그램머

안은미

사진 유용석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부산국제무용제가 현대무용가 안은미를 프로그래머로 영입하고 새롭게 도약한다.

제8회 부산국제무용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팔을 걷어 올린 프로그래머 안은미와 서면으로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춤을 추면 한없이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오른다는 안은미의 무한한 열정, 에너지로 6월 1일 해운대에 신나는 춤바람이 분다.

#### ● 안은미, 부산과 인연을 맺다

오랫동안 부산이라는 지역과 함께 일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너무 반갑고 흥분됩니다. 처음 제안을 받고 많이 망설였지만 부산 시민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이나마 부산국제무용제 국제 프로그램에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이번 일을 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국제무용제는 이런 무대공연도 공연이지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반가웠습니다.

#### ● 지난 해 무용수로 부산국제무용제 첫 참가

작년 제7회 부산국제무용제에 초청팀으로 참가하면서 사실 무용제가 가지고 있는 지역성 특성 '바다앞에서 춤을 춘다는 것'이 정말로 부산만이 가질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관람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골고루 확산되어 있어 무대 위에서 공연되어지는 작품이 좀 더 관객들에게 바다와 인간이라는 공감대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공연이 이루어지면 더욱더 이 축제의 열기가 확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 ● 프로그래머로 그리는 부산국제무용제의 새로운 비전

대부분 현대무용 혹은 무용공연이라는 예술 장르를 어려운 예술이고 난해한 공연 예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산국제무용제는 전문가들만 이해할 수 있는 난해한 작품성보다는 일반인들도 다가가기 쉽고 즐길 수 있는 작품과 단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바다 야외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에 맞게 극장에서 이루어지는 소품, 세트, 조명 등의 효과보다는 오랜 시간 전문적인 훈련을 통해 몸의 한계를 넘어선 뛰어난 움직임의 보여주고 있는 무용단체와 무용수들을 소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결국엔 특정 소수만을 위한, 바라보기만 하는 축제가 아니라 전체 시민이 다함께 즐길 수 있는 일탈의 순간을 유도한다는 것이 바로 변화의 핵심입니다. 바다가 주는 거대하고 변화무쌍한 에너지를 몸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정열적인 무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 ● 부산국제무용제의 매력

부산은 한국의 제2의 수도이자 제1의 무역항으로서 오랜 역사와 다양한 형태의 문화 예술 및 적극적인 교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서의 부산이라는 도시는 오랜 전통을 지녔으면서도 매우 현대적이고, 굳건하게 뿌리를 내렸으면서도 끊임없이 변화하며, 확실한 장점들이 있으면서 동시에 미래의 모습이 기대되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가진 잠재력은 인간의 문명과 삶으로부터 시작되는 춤,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춤을 이해하고 함께 즐기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8회 부산국제무용제의 프로그래밍의 시작은 바로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의 국제도시로서의 가능성이 바로 부산국제무용제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 ● 올해 부산국제무용제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

올해 부산국제무용제는 '춤'과 '소통'을 핵심 키워드로 삼고, 부산 시민 전체가 모두 다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난해한 작품성 보다는 시간의 흐름과 몸의 한계를 넘어선 무용수들의 '몸'과 '움직임'을 통한 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예술가들과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관객들이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즐길 수 있는 관객이 됨으로써 예술에 대한 간격을 최소화하는 것에 컨셉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무용제에서는 특별히 한국 최초로 댄스 필름 상영을 시도하여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관객에게 다가가려 노력하였습니다.

#### ●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댄스영화페스티벌

부산국제무용제에서 상영되는 무용영화들은 한국에서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열리는 댄스 필름 페스티벌이 될 것입니다. 파스칼 매그닌(Pascal Magnin) 연출의 'Reines d'un Jour(하루의 여왕들)'와 알라 코브간과 데이빗 힌튼(Alla Kovgan and David Hinton) 연출의 'Nora(노라)', 프랑스의 사랑스럽고 재기넘치는 작품 'Le Petit Bal(작은 무도회)', 세계적인 안무가 제롬 로빈스의 '뉴욕 익스포트: 오퍼스 제즈', 윌리엄 포사이트의 명작 '원 플랫폼 씽 리프로듀스트' 등 제한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미디어를 통해 아름다운 움직임과 비주얼,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 다양한 무용영화들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 ● 시민들에게 전하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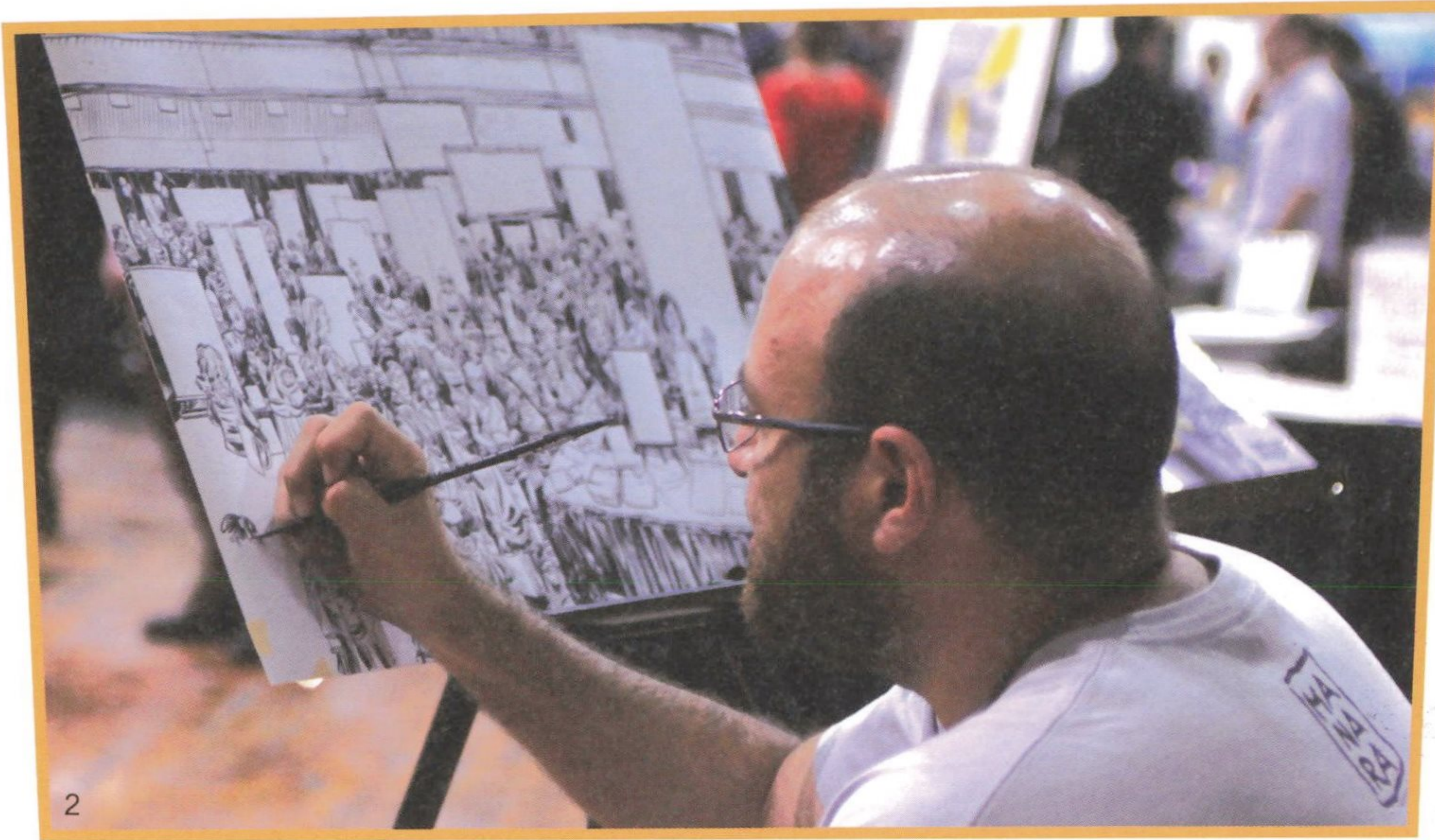
여러분~ 6월의 문턱 부산국제무용제에 오셔서 '춤'이라는 최고의 명약을 마음껏 느끼시고 즐기시면서 삶의 활력을 듬뿍 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Museum  
of  
Comic and  
Cartoon  
Art

# 세계 각국에서 온 만화가와 팝아티스트, 애니메이터의 축제 MOCCA 페스티벌

박세욱\_뉴욕 통신원, MFA in SVA New York, Artist





2



3

기온이 올라가고 바람이 부드러워졌다. 뉴욕도 이제는 꽃들이 여기저기 성기게 피어 향기에 코끝이 행복하다. 에메랄드색이 흐드러지게 뒤덮은 센트럴파크 남쪽을 향해 걷다보면 렉싱턴 에비뉴 쪽에서 눈에 띄는, 한세기 동안 서있었던 고풍스러운 아모리홀 건물을 볼 수 있는데 그곳은 오늘 길게 줄 지어 구경을 온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그 이유는 여기서 오늘 세계 각국에서 온 만화가와 팝아티스트, 애니메이터 등이 대거 참여하는 MOCCA 페스티벌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중세 요새를 모델로 만들어진 병참 건물이었지만 지금은 각종 패션쇼와 예술 행사가 열리고 있는 뉴욕시의 역사적인 랜드마크인 아모리홀의 높은 계단을 가득메운 인파는 발 디딜 틈 없이 전시장 본관까지 이어져 이번 행사의 관심과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MOCCA는 'Museum of Comic and Cartoon Art'의 약자로 만화 및 만화 미술을 수집, 보존, 연구,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독립 만화가, 정치 참여적인 일러스트레이터, 풍자 만화가, 그래픽 만화, 웹만화가들이 다수 데뷔하는 등용문이자 코믹 만화를 예술로 발전시키고 대중에 소개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하고있는 단체이다. MOCCA 페스티벌은 이들의 주관으로 열리는 미주 최대 규모의 행사로 이번 10주년 기념 행사에는 200명 이상의 국내외 아티스트들이 참여하고 이틀만에 15,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만화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예술 형태의 하나로 예술, 문화, 역사를 반영하며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대중적인 예술 형태이다. 그래서 만화라는 매체는 이미지를 통해 가장 직관적으로 무언가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어린이, 청소년, 어른 할 것 없이 모두 손쉽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이 분명한 매체이기도 하다. 또한 애니메이션은 단순한 만화에서 출발하여 오늘날 모든 영상프로그램에 없어서는 안될 표현수단이 되었다.

여기에 2012년 MOCCA 페스티벌에서 만난 주목할만한 아티스트들을 소개한다.

1. Chris Beaumont의 큐빅크레프트를 흥미롭게 살펴보는 아이
2. 행사장 풍경을 스케치 시연하고 있는 David.C
3. 행사장 밖 모습

### 침묵의 충돌 시대

### Conflicting era of silence

Vishavjit이라는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을 가진 인도 시크교도인 그는 인도의 Sikhs 1984 학살 사건의 생존자이다. 어려서부터 여가 시간에 시크교 문자를 만화화 하는 것을 시작으로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대학원, 캘리포니아 대학 산타 바바라 및 Biostatistics / 역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할때까지 개인적인 만화를 그렸다. 그러나 미국의 9·11 공격 이후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남아시아인, 중동인, 아랍인 시크교도들이 시크교도라는 이유만으로 악의 원흉으로 지목되어 공동체에서 축출되어 이방인으로 취급받자 이같은 현실을 해학적으로 다룬 정치 웹툰을 그리기 시작했고 지금은 논설만화를 만들고 있다. 그의 작품은 박물관 전시, 영화제, 청소년 피정, 캠프 및 컨퍼런스에 등장했고 많은 시크교 뉴스와 포털 웹사이트, 잡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다. 그는 '스폰지밥' 처럼 기존의 할리우드 캐릭터들을 패러디하여 계급과 제도가 얼마만큼 위선적인 폭력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웃는 모습으로 행사하고 있는지를 진지하면서도 직관적으로 그리고 있다. 그는 현재 부인과 함께 뉴욕주에 살고있다.

한편 다른 방식으로 또다른 주제를 30년째 작업하고 있는 여류 작가가 있다.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그래픽 소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레베카가 바로 그녀이다. 캘리포니아대학과 SUNY에서 석사를 마치고 다수의 애니메이션, 웹툰, 출판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레베카는 몇 안되는 본격 정치 만화 매거진인 '제3차 세계대전'의 편집위원이기도 하다. 그녀는 이번 행사에 즈음해서 새로운 그래픽 소설인 '에로스 그 자취와 역사'를 통해 페미니즘의 관점에서의 '여성다움'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여성의 그렇지 못한 실생활과 대비시켜 포르노를 통한 반포르노를 주장하는 이색적인 작품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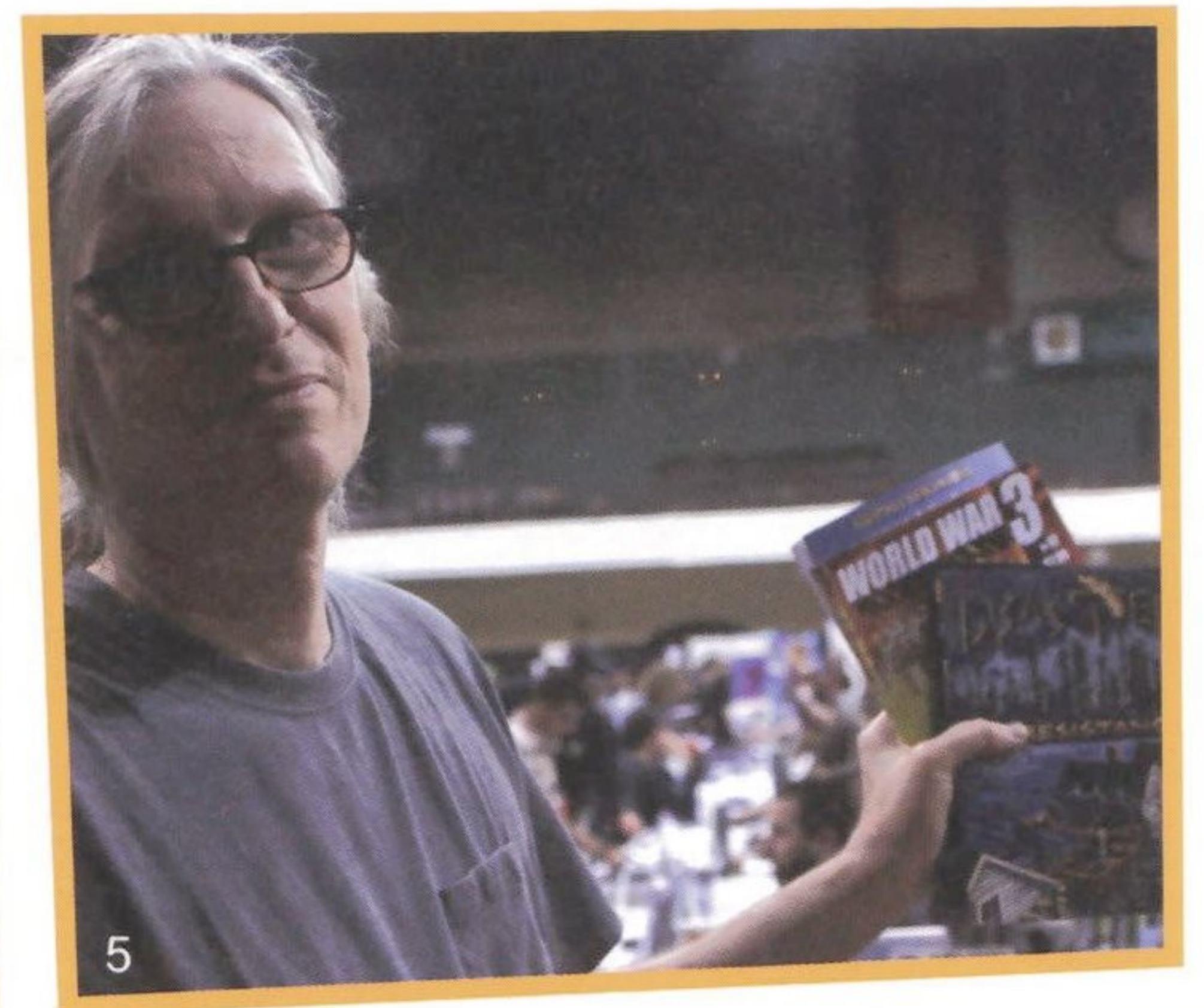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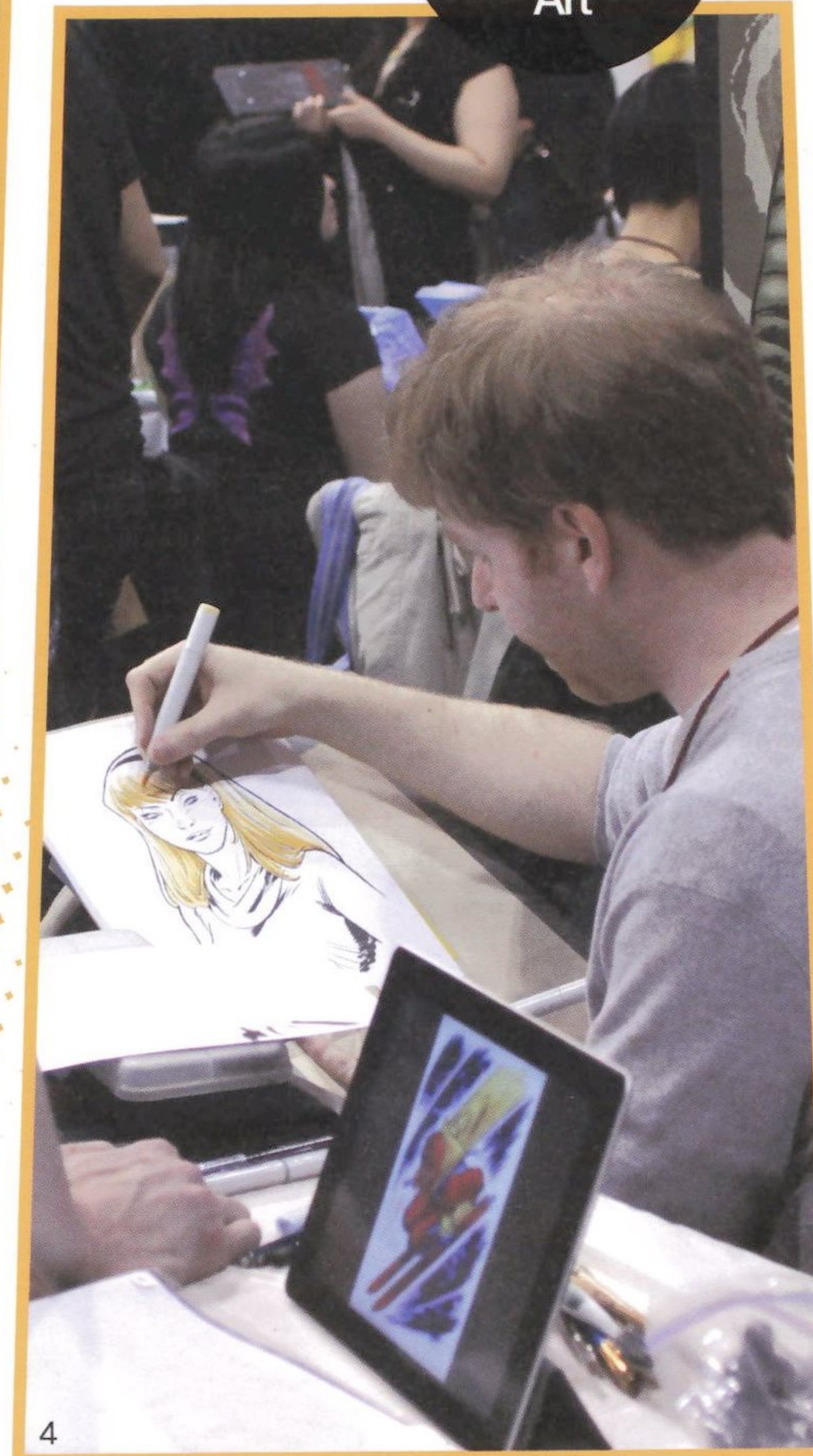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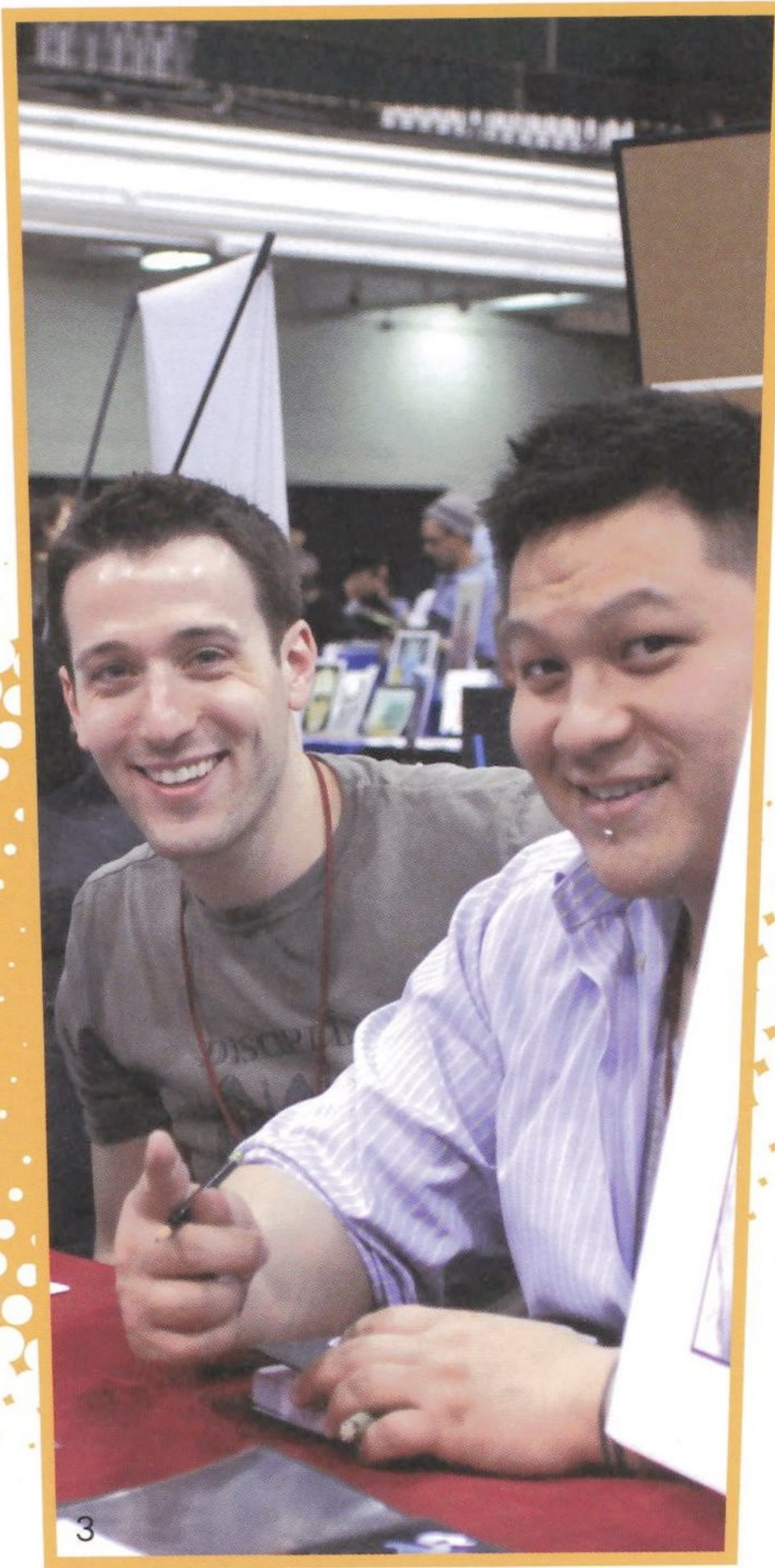
상징과 비유로 동화에서 신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서 여성의 굴종이 주입되고 규범화되어 있다고 보는 그녀의 책은 우화적이고 외설적 방식으로 그런 사실들을 폭로하는 일러스트가 돋보이는 의미있는 책이다.



1. 인도 시크교도인 Vishavjit가 새로 제작한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2. '에로스 그 자취와 역사'의 Rebecca Migdal
3. 현장에서 직접 만화를 그려내는 작가들
4. 캐릭터 스케치 시연
5. 한국에서도 같은 책을 출판했다는 Seth Tobocman
6.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작품설명을 직접하고 있는 작가들.



Museum  
of  
Comic and  
Cartoon  
Art



이외에도 우리가 어렸을때 가지고 놀았던 만화경을 이용한 3D 만화, 종이 접기로 만든 동화책, 종이인형로 만들어진 다양한 캐릭터들, 애니메이션 제작 시연, 현장에서 직접 만화를 그려내는 작가들 등 볼거리와 배울거리들이 많아 가족을 동반한 관람객들과 지금 만화와 일러스트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 모두에게 유익한 행사였다.

이번 행사장에서 만난 수많은 아티스트들의 다양하고 재치 넘치는 작품들을 돌아보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하루가 부족할 정도였다. 그리고 간혹 한국 작품들과 작가 소개가 있어서 내심 반가웠다.

미국은 표현의 보장과 저작권 정책 등 창작의 기반이 되는 사안에 대해 공공의 보호가 매우 강한 반면 'Comics Code'로 불리웠던 공공에 의한 심의가 아닌 폭력성, 선정성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업계 자율의 엄격한 제재가 여러모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 경제 불안의 결과로 주류 출판사들이 대거 포함된 미국만화잡지협회라는 단체의 와해를 끝으로 많은 제재가 완화되어 이제는 독립, 시사, 참여 만화가들의 활동이 활발히 태동하는 중이다. 또한 대형출판사들이 만화가를 고용하여 캐릭터를 창작하고 그 판권을 독점하는 관행에서 창작자 소유의 창작이 부흥하고 있는 시점이라 이번 행사가 가지는 사회 문화적 의미는 아주 크다. 이는 무수한 매체가 존재하지만 거의 같은 채널에만 고정되어 있어 편협하고 독점적인 미국의 대중 문화속에서 매체의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봄은 무언가는 떠나고 무엇인가는 새로 시작하는 그런 절기이다. 따라서 그 절기에 무엇이 새로 시작되는지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모처럼 덕분에 느긋하게 봄을 정독한 것 같다.

# 셰익스피어와 베르디의 〈오셀로〉

이동신\_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영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1564년 4월 23일, 잉글랜드 중부의 스트랫퍼드 어폰 에이번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존 셰익스피어와 메리 아든의 장남이자 8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비교적 부유한 상인이자 읍장까지 지낸 유지로 당시의 사회적 신분으로서는 중산계급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셰익스피어는 풍족한 소년시절을 보냈다. 열한 살에 그는 특수층 자제들만 입학이 가능했던 문법학교에 입학하여 문법, 논리학, 수사학, 문학 등을 배웠는데, 특히 성서와 더불어 오비디우스의 〈변신〉은 셰익스피어에게 상상력의 원천이 된다. 비록 셰익스피어는 대학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타고난 언어 구사 능력과 무대 예술에 대한 천부적인 감각, 다양한 경험, 인간에 대한 심오한 이해력은 그를 위대한 작가로 만드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셰익스피어는 열여덟 살의 나이에 여덟 살 연상의 앤 해서웨이와 결혼한다. 그 결혼이 성급했고 불행했다는 것은 자서전적 색채가 농후한 그의 희극들에 담긴 여러 구절들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1585년 고향을 떠나 7~8년간 떠돌아다녔는데, 이 기간 동안 셰익스피어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다만 1590년 경에야 런던에 도착해 이때부터 배우, 극작가, 극장 주주로 활동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뿐이다.

런던은 북적거리는 사람들과 다양한 문화 활동으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었는데 특히 빈번한 연극 공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흥을 제공하면서 셰익스피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셰익스피어는 서른 살에 당시 런던 연극계를 양분하는 극단의 하나였던 궁내부장관 극단의 전속 극작가가 되었고 배우이면서 옛 희곡들의 가필자로서 중요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극작가로서의 셰익스피어는 희·비극을 포함한 모두 38편의 작품을 발표하였다. 셰익스피어에 대한 악의에 찬 비난도 없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학 교육도 받지 못한 작가 셰익스피어의 작품의 인기는 더해갔다. 벤 존슨은 그리스와 로마의 극작가와 견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셰익스피어 뿐이라고 호평하며, 그는 “어느 한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셰익스피어는 쉰 살이 가까워질 무렵 극작가로서 은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조용한 시골에서 자기 아내와 딸과 함께 여생을 보내다 1616년 예순두 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셰익스피어의 인기는 살아있을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쇠퇴하지 않고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

〈오셀로〉는 셰익스피어의 5막 비극이다. 정식 제명이 〈베니스의 무어인 오셀로의 비극〉인 이 작품은 대체로 1604년에 제작되었다고 추정되는데, 이는 1604년 11월 1일 국왕소속극단에 의해 궁정에서 최초로 상연된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오셀로〉는 〈햄릿〉, 〈리어왕〉, 〈맥베스〉와 더불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의 하나로 꼽히지만, 다른 작품에 비하여 사실적이며 가정비극의 색채가 짙다. 인간의 사랑과 질투를 선명하고 강렬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무동기(無動機)의 악’이라고 불리는 이야기의 악의 추구는 무시무시할 만큼 박력이 있다. 〈햄릿〉의 ‘사색적 깊이’나 〈리어왕〉의 ‘통렬한 고뇌’ 혹은 〈맥베스〉의 ‘내적 갈등’과 같은 심각성과 달리 비교적 단순한 사건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어 정연한 구성적 긴밀성을 갖는 점이 높이 평가받으며, 이로 인해 4대 비극 중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베니스의 원로원인 브라반시오의 딸 데스테모나는 베니스 정부에 고용된 무어인-아프리카 북부에 사는 갈색 피부의 아랍계 민족-장군 오셀로를 사랑하여 부친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다. 때마침 터키 함대가 키프로스 섬을 향한다는 보고를 받고 오셀로는 그 섬의 수비를 위해 아내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출발한다.

오셀로의 기수 이야고는 바라고 있던 부관 자리를 카시오에게 빼앗기자 앙심을 품고 두 사람에게 복수를 계획한다. 키프로스 섬에 도착한 날 밤 이야고는 주정이 심한 카시오에게 일부러 술을 마시게 하고 소동을 일으키게 하여 오셀로로부터 파면 당하게 하는 한편, 데스테모나를 통해 카시오의 복직운동을 하도록 권유한다. 그 뒤 오셀로에게는 카시오와 데스테모나가 밀애중인 것처럼 보고하고, 오셀로가 그녀에게 주었던 귀한 손수건을 자신의 아내 에밀리아를 시켜 훔쳐오게 하여 카시오의 방에 떨어뜨려 거짓증거를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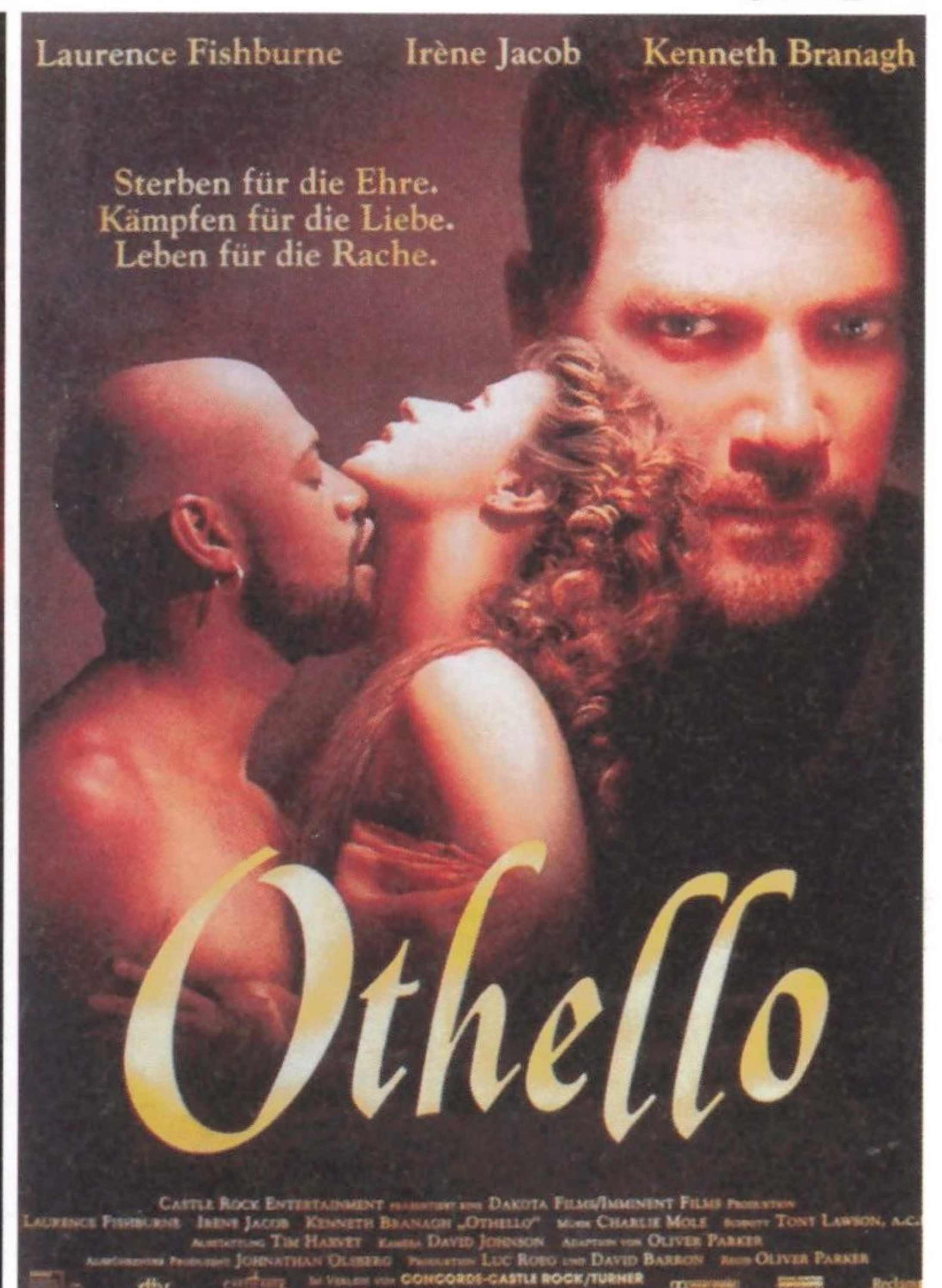
인간심리의 약점을 이용한 이야고의 교묘한 거짓말을 믿어버리고 질투심에 사로잡힌 오셀로는 연연한 꽃잎처럼 잠든 데스테모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사랑의 감정과 배신감이 부딪쳐 내적 투쟁이 일어나고 결국 자신의 삶의 보람이자 등불이었던 아내를 침대 위에서 목 졸라 죽인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오셀로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고 이야고는 가장 잔혹한 처형을 받게 된다.

흔히 오셀로를 사랑의 비극이라고 평한다. 이는 눈처럼 완전무결한 사랑이 오래된 탑처럼 무너져가는 실상을 이 작품의 주제로 다루기 때문이다. 오셀로와 데스테모나의 만남과 축복받지 못한 결혼, 오셀로를 따라 전장으로 가겠다는 데스테모나의 결심, 이야기의 계략과 유혹, 데스테모나의 죽음과 오셀로의 자결 등 이 극의 방향을 결정짓는 주요 사건들은 모두 둘의 사랑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사랑은 모든 편견과 장애물을 뛰어넘어 하나가 되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지만 동시에 둘을 비극적인 죽음으로 몰고가는 질투심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파국의 책임은 대부분 오셀로에게 있다. 데스테모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는 대신 오셀로의 마음은 분열되고 의심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오셀로의 영혼을 어둡게 했던 절망은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비로소 구제된다. 그가 데스테모나의 시체 위에 쓰러져 통곡하며 이야고의 흥계를 깨달았을 때, 데스테모나가 목숨이 다할 때까지 오직 자기만을 사랑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기의 과오를 뼈저리게 느끼고 여지없이 패배했음에 눈을 떴을 때 오셀로는 결국 이야고에게 승리하는 것이다. 즉, 절망 속에서 죽은 맥베스와는 달리 오셀로의 죽음은 죽음으로써 영혼을 구제받고 있으며 그를 사로잡고 있던 질투의 올가미를 벗어나 깨끗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어 우리 앞에 찬연하게 떠오른다.

오셀로와 데스테모아

영화 '오셀로'



# 극적인 감동을 이끌어내는 탁월한 능력

김종천\_한국오페라부파협회 회장

## 오페라 OPERA OTELO

1816년 12월 폰도 극장에서 오페라 '오텔로'(일명 '베네치아의 흑인')가 상연된다. 오페라 '오텔로'는 크게 성공하였고 1887년 베르디의 오페라 '오텔로'가 출현할 때까지 로시니의 오페라 중 유럽에서 가장 장수하고 가장 많이 상연되었다.

로시니의 '오텔로'는 베르디의 그것과 많은 차이를 보여준다. 로드리고의 비중이 많아지는 만큼 오텔로의 비중이 감소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텔로, 데스테모나, 로

드리고의 삼각관계 역시 다르게 표현된다. 성공의 비결은 음악적인 언어의 번뜩이는 듯한 해방과 관객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구조와 혁신에서 찾을 수 있다. 로시니의 취향대로 데스테모나는 메조 소프라노, 오텔로, 로드리고, 이야고 3명의 주요 남자 캐릭터는 모두 테너로 구성되어 있다. 혹자에 의하면 로시니의 '오텔로'가 자주 상연되지 못하는 이유를 3명의 로시니아노 테너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많은 기간 '오텔로'는 각 부분들의 극적인 감동으로 사랑을 받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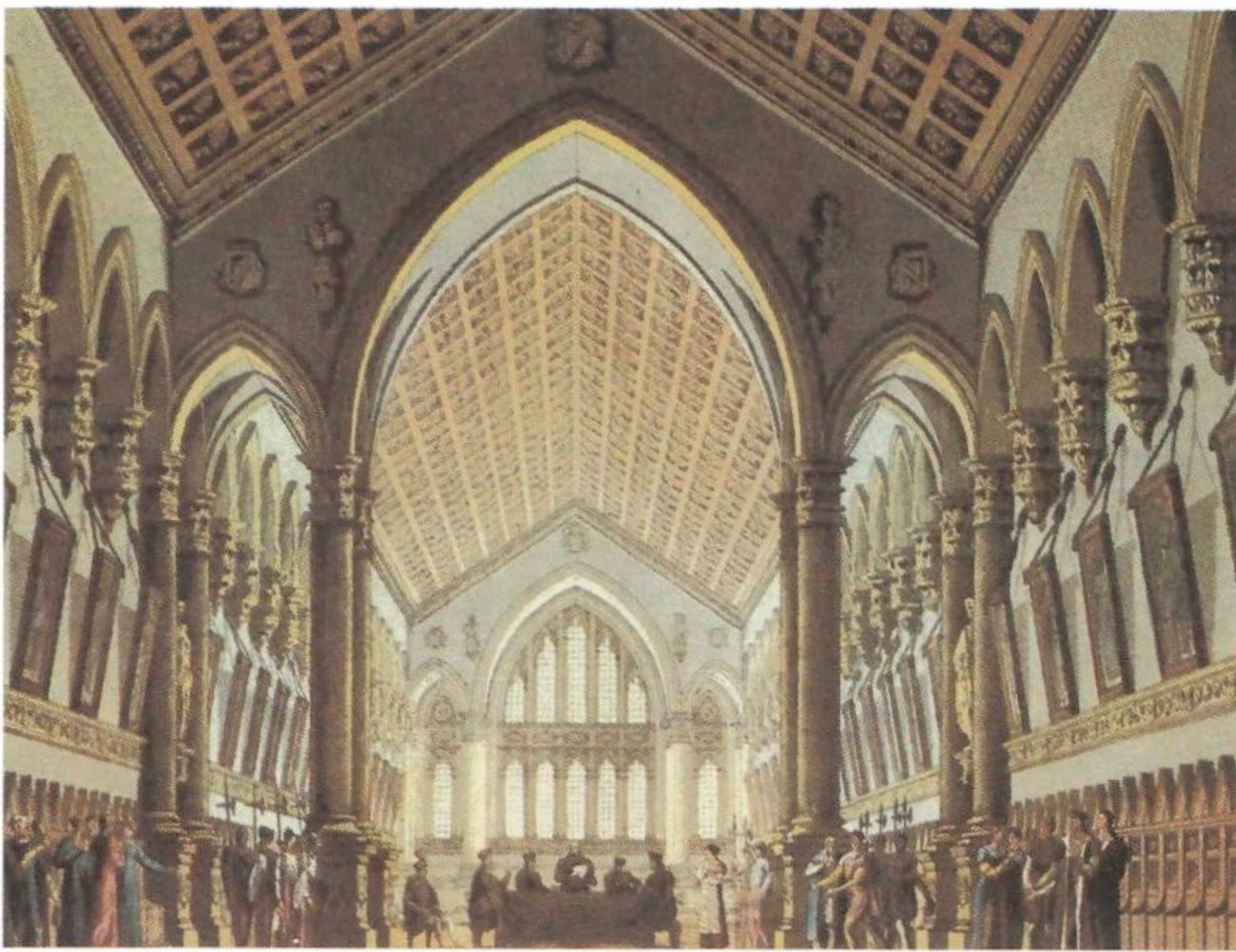
1817년 로시니는 대본가 야코포 페레티와 함께 오페라 '라 체네렌톨라(신데렐라)'를 로마의 발레극장에서 상연하게 된다. 이 오페라는 야코포 페레티의 대본이지만 페로의 원작을 에티엘이 각색하고 이수아르가 작곡한 오페라 '샹드리용'의 대본에 바탕을 둔 것이다. 요술쟁이, 마녀, 호박, 생쥐를 제외한 나머지 캐릭터를 보면 이것은 충분히 부르지와 희곡임을 알 수 있다. 몰락한 귀족 돈 마니피코와 그의 수다스러운 딸들은 왕자 돈 라미로의 신부를 가려내고자 하는 즐거운 함정에 빠진다. 하인이자 이발사인 단디니는 왕자로 변장하여 서투르게 그 역할을 해 내며 왕자는 단순한 귀공자 역으로 변장한다. 왕자는 멸시당하는 안젤리나(신데렐라)의 선함과 그녀의 이복자매들의 사악함을 경험하게 된다. 돈 마니피코와 단디니의 익살스러움과 이복자매의 수다 속에 두 젊은 주인공

의 사랑은 마술과 같은 사랑의 리얼리즘으로 변한다. 이 오페라의 유명한 아리아인 안젤리나의 론도는 '세빌리아의 이발사'의 알마비바의 피날레 아리아 '더 이상 저항하지 마세요'와 몹시 흡사한데 이 아리아는 불행하게도 테너에게는 매우 난이도가 있어 어려워하는 아리아이지만 오페라 '라 체네렌톨라'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메조 소프라노 가수에게는 대단한 만족을 주고 있다.

'선의 승리'라는 다분히 평범한 주제에 더욱 강한 생명력을 불어 넣기 위해 로시니는 또 다른 소재로 밀라노의 라 스칼라를 향한다. 우연한 까치둥우리의 발견이 그것이다. 오페라를 모르는 사람이 오페라 '도둑까치'에 관하여 이야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마도 격렬한 오페라 '도둑까치'의 서곡 때문일 것이다. 관심을 충분히 끌 수 있을 만한 스테레오의 큰북소리와 군인다운 장엄함으로 열려 로시니의 반짝이는 크레센도로 이어진다. 주인공 니네타를 체포하러 온 군인들에 대한 풍자로 결정지어지는 반쯤 진지한 '도둑까치'는 '시금석'의 성공과 '이탈리아의 터키인'의 강추위 이후 커다란 감동으로 다가왔다. 1817년 6월에 보도된 밀라노의 한 신문을 인용하는 것으로 당시의 분위기를 대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연이 끝나고 로시니는 베이스 필리포 갈리와 매우 사랑스럽게 포옹하였는데, 이는 극장안의 모든 관객들을 눈물바다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니네타가 퇴장할 때 부르는 아리아와 아버지와의 이중창, 수없는 앙상블의 활기, 이 모든 것들은 로시니의 위치를 더욱 확고하게 해 주었음이 틀림없다. 이후 오랫동안 상연되었지만 총보의 엄청난 길이, 많은 등장인물들이 겪는 목소리의 커다란 어려움은 '도둑까치'의 완전한 회복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었다.

다시 나폴리로 돌아온 로시니는 이자벨라 콜브란을 위한 위대한 상연에



● 스칼라극장에서 오페라 '도둑까지'를 위한 알레산드로 산퀴리노의 무대장면



● 오페라 '오텔로'에서 데스데모나역을 맡았던 마리아 펠리치타 말리브란



● 오페라 '라 체네렌톨라' 중 한 장면

## OPERA 아르미다

눈을 돌리게 된다. '해방된 예루살렘'에서 대본가 조반니 슈미트는 신성한 전쟁으로부터 십자군 병사들을 유혹하는 '아르미다'라는 등장인물을 선택했다.(오페라 '아르미다'의 대본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시인 토르콰토 타소가 1580년에 발표한 바르카 서사시 '해방된 예루살렘'을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로시니의 '아르미다' 뿐만 아니라 '탄크레디', 웰리의 '아르미드', 몬테베르디의 '탄크레디와 클로린다의 전투', 헨델의 '리날도', 글루크, 하이든의 '아르미다' 등 모두가 '해방된 예루살렘'의 에피소드들을 근거로 하고 있다.)

새롭게 재건한 나폴리의 산 카를로 극장은 십자군 병사를 5명의 테너로 구성하고 우아한 바이올린과 함께하는 발레곡, 이탈리아와 알레만(고대 카라칼라 시대의 독일지방)의 기원에 대해 말하려는 로시니의 오케스트라, 마술사 아르미다와 리날도 사이의 매우 육감적인 사랑의 이중창으로 이전의 멜로드라마에서처럼 쉽고도 냉소적인 맥을 찾아볼 수가 없다. 3막으로 구성된 다분히 우화적인 오페라 '아르미다'는 기독교 십자군 전사의 전형이자 모범인 젊은 장군 리날도가 관능적이고 매혹적인 이슬람의 마법사 아르미다에게 빠져 명예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이야기이다. 남자주인공이 명예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흔한 이야기 거리로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 시대는 달라도 비제의 '카르멘'의 돈 호세 역시 비슷한 문제로 고민한다.

그러나 오페라 '아르미다'는 로시니의 재평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작품으로 기억되지는 않고 또 로시니 최고의 오페라 세리아라고 부르는 어렵다. '세미라미데'나 '탄크레디' 만큼 극적 긴장감이 충분하지 않지만 '아르미다'가 즐길 만한 작품으로 꼽히는 것은 콜로라투라 기교를 발휘하는 테너가 다섯 명이나 등장하는 희한한 인물구성과 테너 3중창이 포

함되어 있고 게다가 여성 배역은 여주인공 아르미다 하나 뿐이기 때문에 아르미다의 가창력과 지구력, 그리고 카리스마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아르미다가 19세기 비평가인 페델레 다미코와 앤드류 포터에게 "10세기 초 이탈리아 오페라에 있어 가수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주었다"고 한 만큼 오페라 '아르미다'에서 소프라노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해 주는 대목이다.

이후 로시니는 주인공이 지니고 있는 창의적인 가능성을 더욱 엄두에 두고 콘트라alto 가수인 베네데타 로스문다 피사로니를 알게 되고 그녀의 육중한 음역 확장의 수용량을 직감하고 그녀를 위해 소프라노 가수의 진정한 대립자인 위엄 있는 3명의 등장인물을 만들어 낸다. 피사로니는 로시니가 가장 선호하는 가수 중의 한 사람이 된다.

● 환락의 궁전에 있는 아르미다와 리날도 — 프랑수아 뷰셔의 회화 ●



# 나무꾼이 소를 타고 돌아오는 마음은

변광석\_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부신초동 負薪樵童

노년에 그린 김홍도의 산수인물화는 정감이 풍부하면서 간결한 느낌을 많이 준다. 그것도 소재가 단순히 목가적 분위기라기 보다는 도화서 화원과 지방관을 지낸 경력이 쌓인 위에 사물을 관조하는 듯한 분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절경만 찾아 그린 정선(鄭敼)의 진경산수와는 달리 단원은 주변

의 평범한 전원을 소재로 하면서 살아 움직이는 인물을 등장시키는 이른바 인경산수(人景山水)의 경지를 확립하였다. 그것은 그가 소박하면서 살아있는 우리의 자연을 보는 혜안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처럼 자연과 인물의 결합이 진정한 맛이랄 수 있다.

오늘은 나무꾼과 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요즘 30대 이하 세대들은 선녀와 나무꾼의 전래동화는 알아도 막상 예전에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던 생활은 전혀 모른다. 석유·원자력·가스 등 에너지가 넘치는 오늘날

과 달리 옛날에는 산에 있는 나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난방과 취사를 위한 유일한 에너지원이었다. 앞의 글(5월호)에서 여항사람들의 글을 소개하는 중에 나무꾼 정씨(鄭樵夫)가 한양 저자거리에서 나무를 팔고 생계를 꾸렸다는 얘기를 한 바 있다. 이처럼 땀나무 채취는 당시 살아가는 필수 수단이었고 동시에 도회지에서는 주요 상품이었다. 옛날 농촌에서는 산에 가서 나무 하고 또 소를 풀먹이는 것이 일상적 노동이었다. 이런 노동이 힘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들에게 아늑한 전원풍경으로 비치기도 했다.

감상할 작품은 첫째 <부신초동(負薪樵童)>; 종이담채, 29.5×37.9cm, 개인소장)이다. 즉 '땀나무를 지고가는 나무꾼'이라는 제목이다. 내용은 눈덮힌 산길을 내려오는 나무꾼을 아주 단아한 필치로 그려낸 그림이다. 나무꾼은 3명인데 모두 지게에 나무를 가득 졌다. 한 명은 등짐만 보인 채 앞서 언덕을 내려가고 있다. 뒤의 두 명은 밝은 얼굴로 무언가 얘기를 나누며 뒤따르고 있다. 힘들게 나무를 하고도 평화로운 모습이 인상적이다. 그림구도는 산에서 내려오는 나무꾼을 위쪽에 배치하고 아래쪽은 잡목과 바위로 된 계곡을 그렸다. 전체의 공간을 3등분하여 사선으로 구분해 놓았다. 화면 오른쪽의 제화시는 다음과 같다.

눈 쌓인 산허리로 나무꾼은 돌아오고 / 樵歸雪嶽山腰路  
숲속마을 등불아래 사람소리 들리누나 / 人語燈深樹裡村

제화시 머리엔 둥근 도장의 흰 글씨로 평권석산방(平卷石山房)이라 되어 있고, 끝에는 사능(士能)이라는 사각 도장의 붉은 글구가 찍혀 있다. 막 산기슭 아래로 내려오는 나무꾼의 마음은 이미 마을로 향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 글귀는 김홍도보다 한 세기 앞서 살았던 유명한 역관시인 홍세태(洪世泰:1653~1725)의 <유하집(柳下集)>(권3, 詩, 夕眺)에 나오는 '溪上樵歸欲閉門...人語燈深隔樹村'이라는 시구를 모방하였다. 시어(詩語)는 비슷한 감정과 표현이 나오는 법이기는 하지만 공교롭게도 뒤 구절은 거의 닮았다. 홍세태도 재주는 뛰어났으나 중인층이라 제약이 따랐던 인물이다.

### 기우부신 騎牛負薪

두 번째 작품은 <기우부신(騎牛負薪)>; 비단담채, 25.5×35.7cm, 간송미술관 소장)이다. 전자와 같은 소재이면서도 분위기는 약간 다르다. 내용은 나무꾼이 혼자 한 짐 가득 지게에 진 채 소를 타고 내려오고 있는 장면이다. 경사길

이라 소는 조심해서 걸음질하는데 나무꾼 총각은 이에 아랑곳 않고 주위의 바위에 우거진 관목을 무심하게 쳐다보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짐을 등에 지고 소를 타고 내리기가 쉽지 않을 터인데 유유자적 타고 가는 게 재미있다. 필경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언덕길을 내려오면 하천을 만난다. 건너가야 할 길인 것 같은데 바로 앞에 보이는 조그마한 목책 다리가 재미나게 생겼다. 그림구도는 관목더미 아래의 돌부리가 보이는 공간이 중간영역으로 설정되었다. 이곳을 경계로 관목더미 위쪽은 나무를 하는 일의 공간이 되고, 아래쪽의 냇가길과 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귀가의 공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동양화의 기본원칙대로 시선이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향하게 되어 시간흐름을 그대로 타게 된다.

소 이야기가 나온 김에 소에 관한 숨어있는 비유를 들어보자. 조선중기 학자이자 역관이었던 조호익(1545~1609)은 널리 알려진 사람이다. 그의 <지산집(芝山集)>(권5, 잡저)에 보면 저자가 평안도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묘향산을 유람한 기록이 있다. 어려운 한시가 아니라 쉬운 기행문이라 잠깐 인용해 본다.

동쪽으로 나가 작은 시내를 건넜다. 돌과 시냇물이 검푸르면서도 깨끗하였으며, 졸졸대며 흐르는 소리가 났다. 어느 한 대(臺)에 이르러 올라가서 바라보니, 툭 터진 것이 시원스러웠으며 멀리까지 경치가 보였는데, 흰 구름이 항상 그 안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내가 중에게 이르기를, “이 대의 이름은 백운대(白雲臺)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영관이 말하기를, “백운대가 바로 본대(本臺)의 이름입니다.” 하였다. 이에 내가 웃으면서 이르기를, “옛사람이 이미 나의 소를 탔구나.” 하였다.



● 기우부신(騎牛負薪)

이 얘기는 선가(禪家)의 심우도(尋牛圖)에서 따온 말로, 옛사람 가운데 이미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뜻이다.

심우란 소(나=참나)를 찾는다는 말이다. 이는 자기의 본질 즉 존재의 참모습을 찾아나가는 과정으로서 불도(佛道)를 수행하는 자가 입문에서부터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기까지의 경로를 알기 쉽게 열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 것이다.

자기의 본질인 소를 찾는 심우(尋牛), 소의 발자취를 찾는 견적(見跡), 소를 보는 견우(見牛), 소를 얻는 득우(得牛), 소를 길들이는 목우(牧牛), 소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기우귀가(騎牛歸家), 소를 잊어버리고 안심하는 망우존인(忘牛存人), 사람도 잊고 소도 잊는 인우구망(人牛俱忘), 있는 그대로의 본래로 돌아가는 반본환원(返本還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거리로 나가는 입전수수(入廛垂手)까지의 단계를 말한다. 즉 '소'라는 대상을 인간의 깨달음을 열어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았다. 사람의 수행에도 방편이 필요한 법이다.

나무꾼과 소 그림 속의 인물은 전형적인 한국인의 얼굴이요, 배경 산수는 영락없는 이 땅의 산과 들이다. 우리들의 내면에 녹아있는 전원풍경으로서 아늑한 옛 정서와 추억을 더듬게 한다.

소는 자신의 몸을 누구에게나 내어준다. 그것이 참나요, 소의 진리다. 요즘 부패한 관료와 부정한 정치인을 보면서 정말 소처럼 묵묵하고 진솔한 일꾼이 새삼 간절해진다. 독자여러분께서는 그 마음을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애절한 노래로 달래 보시길. 가사속의 선녀는 바로 소가 아닐까.

# 디지털 감성 놀이터 더놀자 The NoLLJA



디지털을 스포츠와 예술, 그리고 놀이로 재해석한 신개념 문화공간 '더놀자(The NoLLJA)'가 문을 열었다. 지난 4월 30일 해운대구 센텀시티 내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에 문을 연 '더놀자(The NoLLJA)'는 게임 제작회사인 넥슨이 만든 어린이들을 위한 디지털 감성놀이터로, '더 자유롭게, 더 신나게, 더 가깝게, 더 만지고, 더 느끼고, 더 생각하고'라는 슬로건 아래 어린이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만지고 체험하며 신체적 감각을 일깨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더 자유롭게

더 신나게

더 가깝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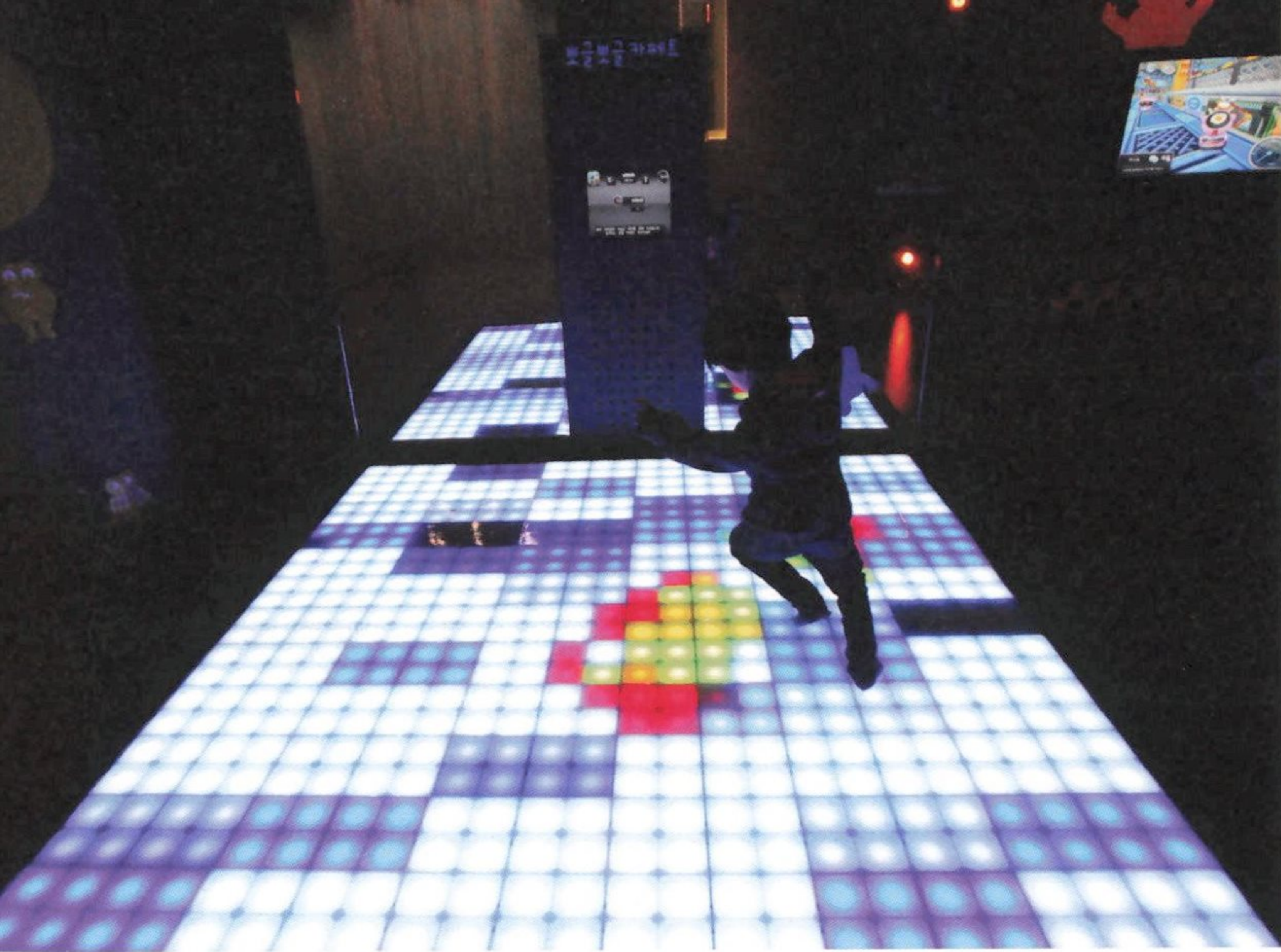
더 만지고

더 느끼고

더 생각하고







‘더놀자’는 6세~11세 어린이들의 인지적, 감성적 발달단계에 맞추어 구성된 공간으로, ‘더놀자’를 찾은 어린이들은 다채로운 색으로 꾸며진 14개의 공간에서 다양한 신체적 경험을 체험할 수 있다. 카트바이크(Kart-Bike), 스폿월(Spot Wall) 등 디지털 스포츠 기계를 만날 수 있는 ‘스포츠 공간’을 비롯해 관람객들과 상호 교류하는 디지털 아트를 체험할 수 있는 ‘소통 공간’, 신체 감각체험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를 키워주는 ‘예술체험 공간’, 최신 디지털 기기와 1천3백여권의 책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에듀테인먼트 공간’에서 어린이들은 걷고, 뛰고, 밟고, 오르고, 미끄러지고, 보고, 듣고, 만지는 다양한 행동을 통해 상상력을 키울 수 있다.

먼저 ‘활동하면서 즐기는 디지털 세계’ 스포츠 공간에 들어서면 넥슨의 대표적인 온라인 게임 ‘카트라이더’를 어린이들이 자전거 패달을 직접 밟으면서 조정하는 ‘고고씽 카트바이크’와 사람의 발이 접촉했을 때 색이 변하고 모양이 생성되면서 움직임이 되살아나는 ‘보글보글 카페트’, 그리고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벽의 조명을 손으로 만지거나 막대기로 치면서 민첩성과 유연성을 기를 수 있는 ‘두드려 벽’ 등을 통해 신체의 움직임이 주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인간과 디지털의 교감을 통한 새로운 경험’을 주제로 한 소통 공간에서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무는 ‘아바타 미러’를 시작으로 마치 초콜릿 케이크 속 같은 공간에 들어가 편안하게 누워서 영상으로 구현되는 다양한 동화를 즐길 수 있는 ‘풍당풍당 초코’, 원하는 색상과 재질을 선택해 나만의 신발을 만들 수 있는 ‘엉뚱기발 실험실’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더놀자’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아바타 미러’는 동작인식 센서를 통해 모니터 앞에 선 관객들의 움직임이 화면 속 캐릭터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면서 디지털과 아날로그 세상이 소통하는 신기한 경험을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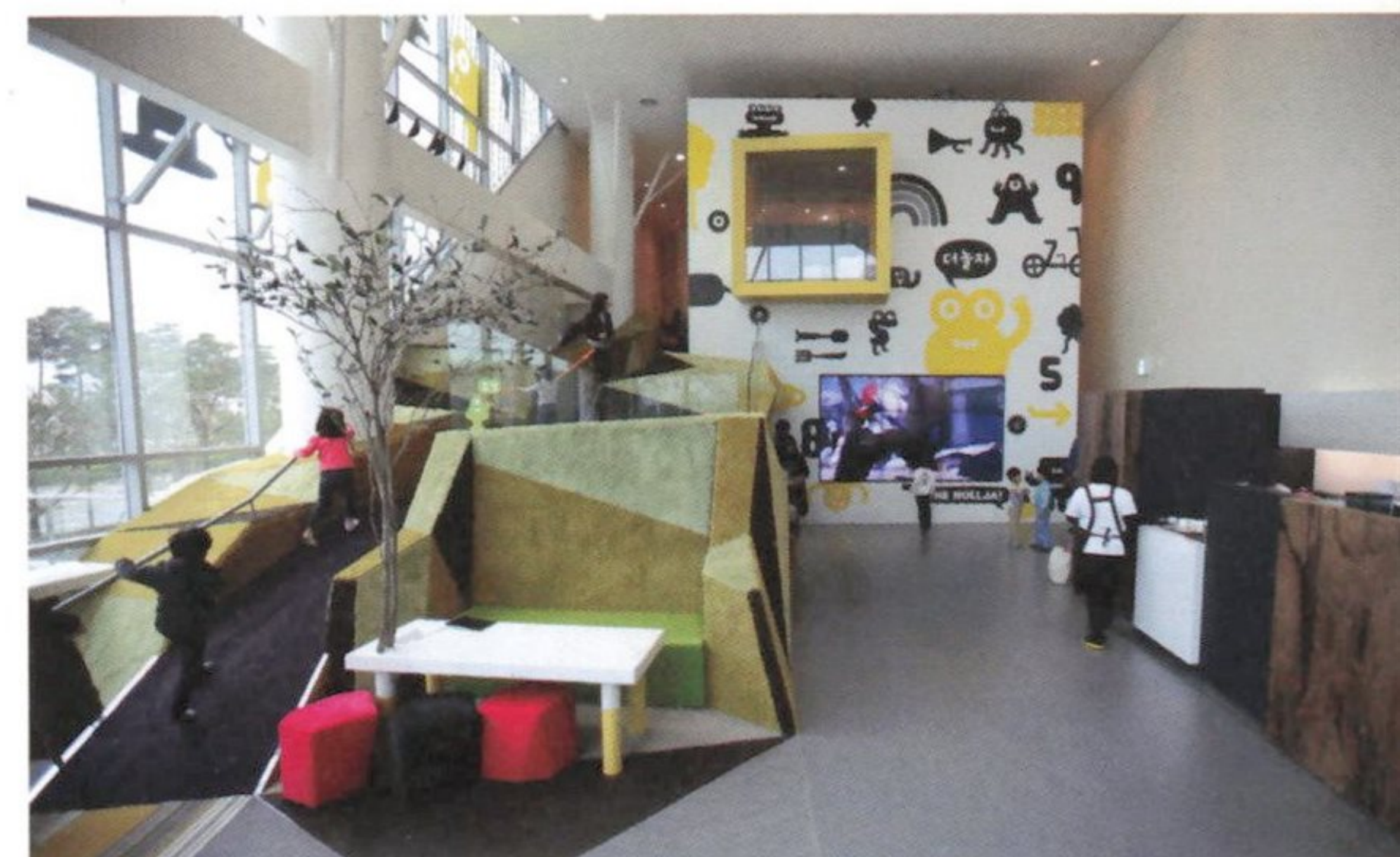
신체의 다양한 감각을 자극해 성장기 아이들의 창의적이고 확산적인 사고를 도와주는 예술체험 공간은 때로는 뚱뚱하게, 때로는 날씬하게, 때

로는 길게, 때로는 짧게 보이는 특수거울을 통해 색다른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뱅글뱅글 동굴’, 청각과 시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만족시켜주는 ‘알록달록 비’, 나무기둥을 누르면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살랑살랑 바람계곡’, 오르락 내리락하며 춤추듯 즐겁게 신체를 움직일 수 있는 ‘춤추는 언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케이크에 대한 어린이들의 환상을 구현한 ‘요리조리 케이크’에서는 케이크의 생크림을 형상화한 미끄럼틀 ‘빙그르르 크림’을 통해 볼풀 바다에 뛰어 들 수 있어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더놀자’를 둘러본 후 예는 교육공간 ‘더놀자 아트랩(The NoLLJA Arts Lab)’에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교육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더놀자 아트랩’에서는 어린이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그림을 그리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터넷 예절을 배울 수 있는 ‘건강한 네티켓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는 예술교육의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창의적인 사고를 확산시켜주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놀자’는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되며, 6월까지의 사전예약제로 무료로 운영된다.

문의\_더놀자(731-6300, www.thenollja.com, thenollja.tistory.com)



# 한국의 '영앳하트'를 꿈꾸는 부산 최초의 아마추어 실버밴드 비상

●  
유튜브를 다운시킨 미국의 로큰롤밴드 '영앳하트(Young@Heart)'. '마음은 청춘'이라는 뜻의 '영앳하트'는 73세부터 93세까지 미국 노스햄튼 출신의 할아버지, 할머니로 구성된 로큰롤밴드로, 2008년 스티븐 워커 감독의 다큐멘터리 '로큰롤인생'을 통해 소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실버밴드이다. 지난해 3월 결성된 실버밴드 '비상'은 한국의 '영앳하트'를 꿈꾸는 부산 최초의 아마추어 실버밴드로, 올해 5월 2기 신입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 수영구노인복지관의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출발한 실버밴드 '비상'은 매주 세차례 수영구노인복지관에서 연습을 겸한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평균 연령 72세, 하지만 열정만은 20대 청춘인 '비상' 회원들은 현재 모두 10명. 5월 11일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안옥자(보컬), 안경자(드럼) 등 2명의 신입회원을 포함해 현재 조미라, 윤정애(신디사이저), 허창조(일렉트릭기타), 이기수, 조영숙(베이스기타), 양귀례(드럼), 남영호, 손옥순(보컬) 등 10명의 어르신들이 나이도 잊은 채 밴드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 실버밴드 '비상'은 수영구노인복지관의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매주 세차례 수영구노인복지관에서 연습을 겸한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강습이 있는 금요일을 제외하고 월요일과 수요일은 단원들끼리 모여서 연주 호흡을 맞춰본다. 매주 금요일에는 인디밴드 플라코스틱 멤버인 박시은, 최순안 씨가 찾아와 직접 연주지도를 해주고 있다.

대부분 단원 들은 '비상'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악기를 손에 잡아본 경험이 없는, 그야말로 생짜 초보연주자였지만 수영구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악기와 음악에 대한 열정만으로 실버밴드 '비상'에 과감하게 도전했다. 일년이 지나면서 불협화음을 내던 밴드의 연주실력도 차츰 향상되면서 최근에는 '비상'을 찾는 무대가 많아졌다. 지난해 4월 광안리에서 결성 후 첫공연을 시작으로 제3회 곰솔실버문화축제 축하공연, 운봉종합사회복지관 '운봉열린마당' 자원봉사 공연, 사회복지사협회 수영구지회 지역주민 특강 오프닝공연 무대에 섰다. 올해는 5월에만 영도구노인복지관 경로잔치 공연(9일), 스포원 건강가족 대축제(19일)에 이어 6월 15일 세계노인학대 인식의 날 기념식 무대에 설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11일 열린 제2회 부산실버종합예술제에서 동상을 수상하기도 한 '비상'은 지난 5월 8일, 그동안의 연주활동을 인정받아 복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실버밴드 '비상'은 요즘 모든 세대가 공감하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연주 레퍼토리 개발에 열심이다. 현재 '비상'이 자신있게 연주할 수 있는 곡은 5~6곡 정도. 아파트, 개똥벌레, 여행을 떠나요, 추억속으로 등 7080 가요에서부터 트로트까지 다양하다.

"전 국민들에게 실버밴드 '비상'의 꿈과 열정을 더욱 알릴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해 5년 뒤쯤 '스타킹'에 출연하는게 저희 밴드의 목표입니다." 실버밴드 '비상'을 기획하고 함께 꾸려나가고 있는 수영구노인복지관 사

회복지사 안병욱 씨. 기회만 된다면 부산에서 열리는 락페스티벌 무대에도 참가하고 싶다는 그는 좀 더 실력을 쌓아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비상'의 이름을 건 단독 콘서트도 개최하고 싶다.

우연히 복지관에 공고된 밴드 단원 모집광고로 보고 응시하게 된 조미라(67세)씨는 피아노를 잠깐 쳤던 경험을 인정받아 현재 밴드에서 신디사이저를 맡고 있다. 지금까지의 취미활동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경험에 하루하루가 신나고 즐겁기만 하다. 드럼주자인 양귀례(74세)씨는 악기를 손에 잡아본 적 없었던 다른 단원과 달리 밴드 입단 전부터 드럼을 배우고 있던 유경험자이다. 우연히 드럼치는 모습에 반해 드럼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그는 밴드연습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 일년간 학원을 다니며 기초실력을 쌓았다. 혼자 연주하는 독주보다 단원들과 호흡을 맞춰야 하는 합주가 어렵다는 윤귀례 씨는 대중들 앞에서 멋진 연주실력을 선보이기 위해 연습시간만큼은 빠지지 않는다.

사위가 아마추어밴드에서 베이스기타 주자로 활동하고 있어서 평소 베이스기타에 관심이 많았다는 이기수(74세) 씨. 우연히 모집공고를 보고 오디션을 통과했다는 그의 악기 파트 역시 베이스기타. 가끔 사위를 만나면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을까' 조언을 구하기에 바쁘다는 그는 기회가 된다면 사위와 한 무대에 서고 싶다. 단원들과 함께 한국 한국 새로운 레퍼토리를 완성시킬 때마다 행복하다는 '비상'의 보컬단원 손옥순(67세) 씨는 무대에서 받는 박수소리에 가장 큰 즐거움을 느끼는, 그야말로 무대체질이다. 앞으로는 음악을 통한 자원봉사 기회를 자주 가지고 싶다는 그는 특히 주위의 아픈 이웃들에게 노래로 즐거움을 전해 주고 싶다.

밴드 '비상'의 유일한 일렉트릭기타 연주자 허창조(73세) 씨. 기타까지 직접 사주며 응원하는 피아니스트 딸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그는 하루 한시간씩 연습하는 연습벌레다. 밴드에 지원할 당시 보컬을 희망하기도 했다는 허창조 씨는 내년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기타치며 노래 부르는 것이 가장 큰 희망사항이다.

## 피아노 그리고 네 가지 색깔

박진홍\_음악평론가

● ● ● 파스한 새봄의 깊이를 알리는 하얀 꽃잎들이 땅 속으로 돌아가고, 먼 산의 푸르름이 깊이를 더하고 있다. 산은 바라보는 이에 따라 그 색과 모양이 다르고, 한 대의 피아노에서 울리는 음악도 연주자와 연주곡에 따라 갖가지 다른 색깔을 보여준다. 5월 2일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는 권혜진, 김정강, 김희정, 고영주 등 4인의 피아니스트가 피아노의 다채로움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연주회를 열었다. 첫 순서는 권혜진의 연주로 드뷔시의 프렐류드가 연주되었다. 드뷔시의 작품이 가진 특징은 화려한 음의 배경과 그 속에서도 뚜렷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선율일 것이다. 권혜진은 부드러우면서도 명확한 연주로 인상주의적인 색채가 풍기는 몽환적인 분위기를 또렷이 표현하였다. 이어서 김정강의 연주로 쇼스타코비치의 프렐류드가 연주되었다. 작곡가는 사회주의에 부합하는 의도가 아닌 자신의 마음속에 숨겨 두었던 음악적 자유에의 갈구를 담아 이 작품을 작곡했다. 공산주의 사회의 요구와 순수한 음악적 욕구의 간극 사이에서 갈등하는 쇼스타코비치의 고뇌를 느끼게 하는 연주였다.

요크 보웬은 영국의 피아니스트이며 작곡가로 그의 피아노 작품은 국내에서 잘 연주되지 않는 레퍼토리이다. 김희정은 한국 초연으로 연주된 보웬의 프렐류드 연주에서 주제 선율로 제시되는 스코틀랜드의 전통적인 정취를 강조하면서도 작품 전반에 흐르는 현대적인 감각을 조화롭게 표현하였다.

고영주가 연주한 라흐마니노프의 프렐류드 Op.23 No.2는 웅장하고 격정적이었다. 강렬한 아르페지오 위에 올려진 선율이 객석 구석구석까지 파고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Op.32 No.12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니즘 특유의 차가운 화려함이 명확하게 전해지는 연주였다.

후반부에는 그리그의 노르웨이 무곡과 카를로스 가르델의 'El dia que me quieras(당신이 나를 사랑하게 될 그 날)', 마토스 로드리게

스의 'La Cumparsita(가장행렬)'이 피아노 연탄으로 연주되었다.

한 대의 피아노에서 두 사람이 연주하는 연탄의 매력은 두 배로 풍부해지는 음향과 다양성, 두 연주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음악적 대립과 화합일 것이다. 4명의 연주자가 번갈아가며 피아노를 플로어 삼아 보여준 춤곡의 향연은 작품이 가진 특성들을 연주

자들마다 가진 색채들로 재해석하여 신선하고 경쾌하며 흥겨웠다.

세틸 비에른스타는 그의 소설 <음악 속으로>에서 연주자가 무대 위에서 가져야 하는 단 하나의 목적은 가장 멀리 있는 관객에게 내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감정을 전달하고 감동을 준다는 것은 논리적이 아닌 감성적인 설득이 필요하다. 이 설득의 과정에서는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관련을 가진다.

이번 연주는 그 중 관객에 대한 배려가 느껴지는 프로그램 구성이 눈에 띄었다. 네 곡의 각기 다른 색채를 가진 프렐류드를 통해 프로그램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전반부와 후반부의 연주를 독주와 연탄, 프렐류드와 춤곡으로 구분하여 연주방식과 장르의 변화를 줌으로써 감상자로 하여금 연주회를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감상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바쁜 일상 속에서 예전만큼 자주 연주회를 찾지 못하는 요즘인데, 자연스레 이날의 연주곡들을 다시 찾아 듣게 된다.



● 피아노 그리고 네가지 색깔을 선보인 피아니스트 권혜진, 김정강, 김희정, 고영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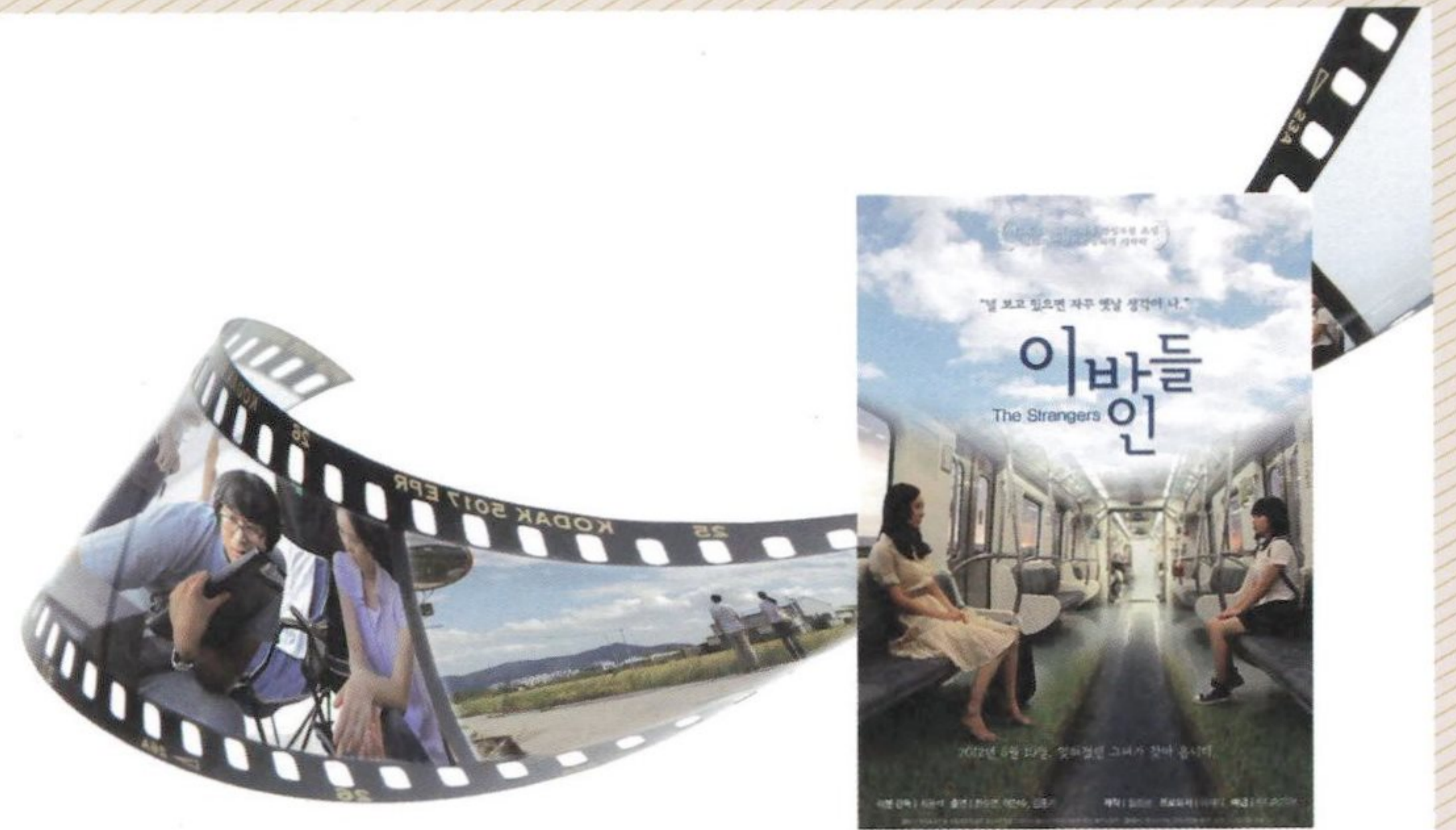
# 독립영화 <이방인들>과 이방인들

김희진\_영화감독

● ● ● 독립영화의 개봉 경쟁도 치열한 시기가 왔다. 한정적인 예술영화전용관의 숫자에 비해 만들어지고 개봉을 준비하는 독립 장편영화들의 편수도 늘었기 때문이다. 예술영화전용관 역시 수익을 창출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기에 개봉작으로 선택하는 독립영화들은 그나마 이름난 배우가 나오거나, 영화제를 통해 수상을 하거나, 사회적 이슈를 통해 논쟁을 유발하고 있는 영화들이 우선시 된다. 그나마 개봉이 결정되더라도 소위 '퐁당퐁당' 상영(다른 영화와 교대로)과 관객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시간대(조조나 마지막 상영, 주말 제외)로 배치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독립영화의 개봉은 영화를 만든 주체들에게는 큰 희망이자 욕망이다. 단 한명의 관객에게라도 대중적인 공간에서 영화를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의 실현은 모든 영화인들이 갖는 꿈이다. 영화가 꿈을 대체하는 기능을 가졌다는 정신분석학적 매체 비평의 틀은 이 부분에서 역전되거나 혼선된다. 독립영화인들은 오히려 영화를 통해 꿈을 잃거나 영화를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직접적인 극사실주의적 현실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누군가인 관객의 꿈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 반대편에서 이루어지는 비극적인 비몽(非夢)현상이 생기는 현상이 있는 것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독립영화들은 자신들의 운명적인 불완전함을 오랫동안 인식해 온 탓에 그들 영화 속 현실을 꿈으로 포장하는 의지를 포기하거나 오히려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이기 까지 한다. 이는 어차피 영화와 현실, 모두가 독립영화를 만들고 있는 이들에게는 별반 차이가 없고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이 선택하는 영화의 내용은 더욱 사실적이거나 주관적 정서를 강조하는 독백이 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점차 꿈을 기대하는 관객과의 거리는 더욱 멀어지고 독립영화인들이 느끼는 현실 인식은 더욱 냉정해져가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소실점의 반대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간다.



서로를 이방인으로 만들어 가는 이 공식은 공통분모를 찾으려 할수록 더 간극이 벌어지게 되는 법칙 속에서 분열되어 간다. 독립영화를 만드는 이들이나 극장을 찾아 독립영화를 관람하는 관객들이나 이 공식의 전개 내에서는 서로가 타자이고 객체이고 이방인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방인들, 꿈으로부터 격리 또는 분리된 이 이방(異邦)의 존재들은 지금 낯선 영토를 헤매며 조금의 안식처라도 만들어 내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 낼지도 모를 그 쉼터에 그들만이 내면화하고 있는 꿈이 이루어질 지는 불분명하다.

부산의 독립영화 감독 최용석의 장편영화 <이방인들>이 5월 10일 개봉되었다. 제목만큼이나 이방의 시선을 담은 이 영화는 철저히 이방인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다. 애초에 그의 활동 무대인 부산에서도 외곽의 지역인 강서지역을 주 배경으로 선택하며 스스로를 이방인으로 만들고 동시에 부산 관객들마저도 낯설게 만들고, 게다가 서울에서 내려온 배우들에게는 아예 생면부지의 공간을 헤매며 연기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그의 영화 제목처럼 모두를 이방인으로 만들어 버렸다. 물론 독립영화가 가지는 이방의 운명은 여전히 걸머진 채.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이 영화의 전국 관객 숫자가 200명이 채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관객들 중 일부는 분명 배우와 감독의 지인들이라고 볼 때 순수한 관객은 많아야 100명 정도 일 것이다. 마치 새로운 영화 제목처럼 '100인의 이방인들'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꿈을 좇아가든, 꿈을 좇길 포기하든 어떤 선택에서도 이들은 이방인들일 수밖에 없다. 유행과 주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 평행선 이상의 간격으로 계속 외따로 길을 가는 이들, 이 이방인들의 존재 방식을 지금 여기, 한국의 영화 현실에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이방인들의 시선이 결국 일반 관객들의 욕망과 꿈에 가려졌지만, 지금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의 생생한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할레국제어린이합창페스티벌 대상 수상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전진\_독일 할레국립대학교 교회음악과 지휘 전공



5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 독일 할레에서 열린 제33회 할레 국제어린이합창페스티벌 자원봉사자로 참가해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만난 것은 엄청난 행운이었습니다. 할레에서 지휘 공부를 하고 있지만 한국, 그것도 부산의 합창단이 할레를 찾는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할레국제어린이합창페스티벌에는 네델란드,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독일 그리고 한국팀까지 25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하였습니다.

5월 3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첫 공연이 시작되었는데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두번째로 노래를 하였습니다. 곡은 미사곡인 'Kyrie'. 부산시립합창단 최석태 작곡가가 작곡한 'Kyrie'는 작사는 라틴어, 곡은 한국전통풍이어서 유럽인들에게는 신선하고 뜻 깊게 인식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반응은 최고로 좋았으며 같이 일하는 독일 동료와 다른 합창단들도 한국팀이 최고였다고 연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팀만 따로 마지막에 한복을 입고 춤곡을 선보여서 청중들에게 한국의 전통음악과 춤, 그리고 문화를 알렸습니다.

다음날인 4일 오전에는 '합창단의 무대에서의 연출'이라는 주제로 워크샵에 참가하여 유럽의 무대 연출을 배웠습니다. 오후 7시에는 요한교회(Johanneskirche)에서 특별하게 한국팀만 한시간에 걸쳐 단독 공연을 펼쳐 독일 시민과 할레의 한국 교민, 유학생들이 많은 감동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또 5일에는 페스티벌에 참가한 모든 합창단이 할레 구 시가지를 노래하며 행진한 후 마르크트 광장에(Marktplatz)에 모여서 다 같이 합창을 하였고 나라별로 합창 공연을 가졌습니다. 공연 후에는 할레의 시립음악학교에 모여 각 나라 합창단의 어린이들이 바비큐 파티와 다과를 나누며 서로 사진도 찍고 이메일을 교환하며 서로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6일에는 울리히교회(Ulrichskirche)에서 폐막공연을 가졌는데 이때 콩쿠르 결과가 발표되었고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독일 동료들은 한국팀들이 당연히 우승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선생님들에게는 예상치 못했던 수상결과였던지 발표되고 나서 합창단원과 선생님들이 서로 울며 격려하는 모습이 저에게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합창단들도 우리의 우승을 다 함께 기뻐해주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우리나라 어린이들을 보며, 그리고 그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피곤함과 고향의 향수를 다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 두 개의 뱃노래에 푸르름을 싣고

조영석\_필하모니 대표

6월이 오면 그땐 온종일 나는 향긋한 건초 속에 내 사랑과 함께 앉아 산들바람 부는 하늘에 흰 구름이 지어놓은 고대광실 눈부신 궁전들을 바라보련다. 그녀는 노래 부르고 나는 노래 지어 주고 아름다운 詩를 온종일 읊으련다. 남몰래 우리 건초집 속에 누워 있을 때 오, 인생은 즐거워, 6월이 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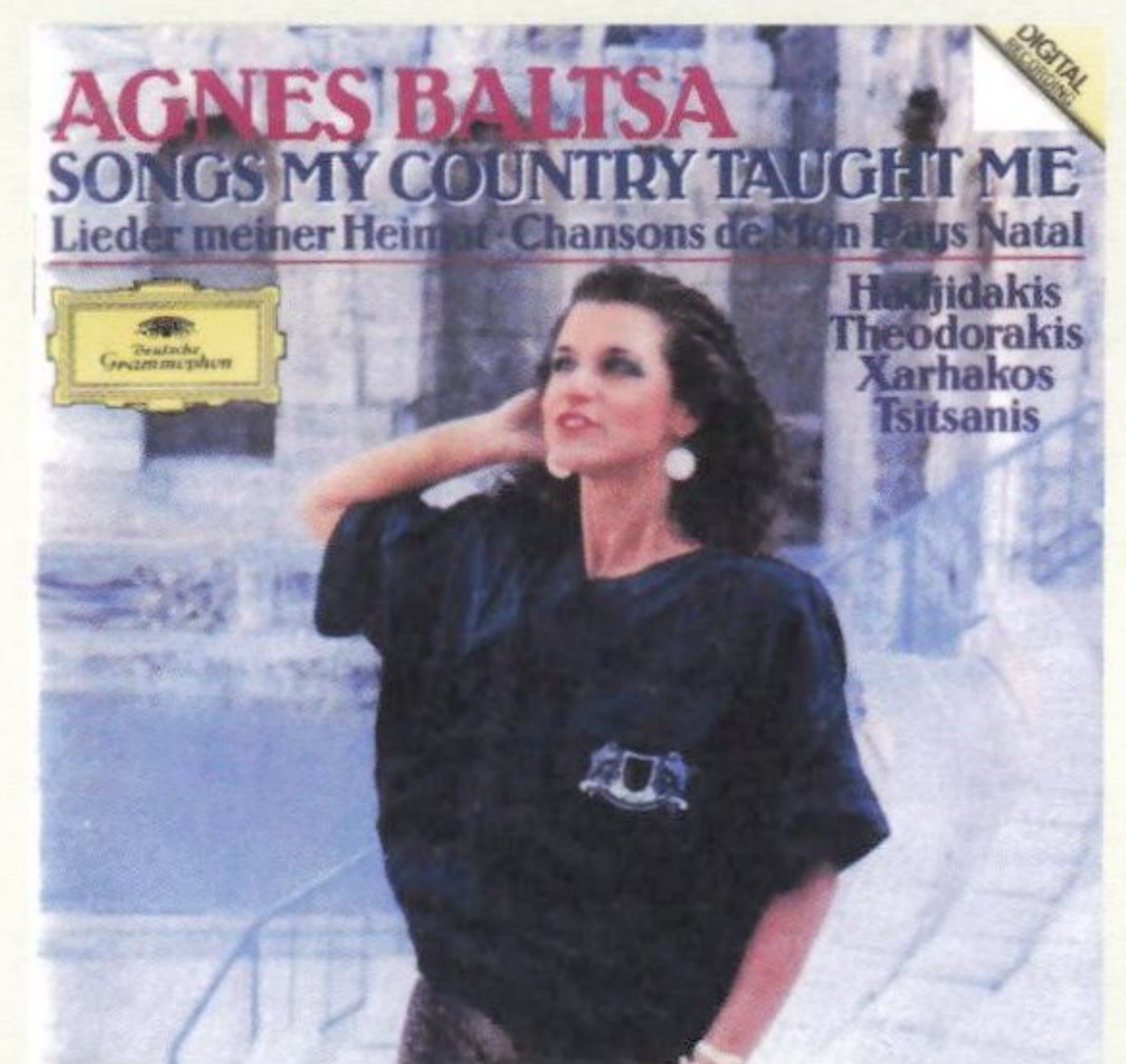
6월이 오면 영국의 詩人 로버트 브리지스의 '6월이 오면'이 떠오른다. 파란 하늘에 하얗게 핀 흰 뭉게구름 그리고 신록의 푸르름과 함께 사랑과 자연이 충만된 기쁨이 있을 때 어찌 한 가닥 선율을 떠 올리지 않을 수 있으랴!

필자는 6월이 되면 두 개의 뱃노래가 생각이 난다. 하나는 메조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가 부르는 그리스 민요집 '내 조국이 가르쳐준 노래'에 수록되어 있는 '뱃노래'이고 또 하나는 차이코프스키의 'The Seasons' 중 6월 '뱃노래'다.

그리스 민요 '뱃노래'는 같은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기차는 8시에 떠나네'의 유명세에 밀려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푸르름 뒤의 고즈넉한 쓸쓸함이 6월의 뱃노래에 실려 아름다운 뉘앙스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차이코프스키의 'The Seasons'는 <12개의 성격적 소품>이란 부제가 붙은 12곡의 피아노 소곡집으로 음악잡지 <누벨리스트>의 부록으로 작곡되었는데 1876년 1월호부터 12월호까지 매월 1곡씩 그 달에 어울리는 詩를 택해 詩의 분위기를 묘사한 피아노 소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6번째곡인 '뱃노래'는 피아노 독주곡 뿐만 아니라 여러 악기로 편곡되어 널리 알려져 있는데 필자는 피아노 독주곡으로는 리디아 아르티미우의 피아노 연주를 즐겨 들으며, 편곡으로는 유진 올만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시베리아 바이올린 앙상블의 연주를 즐겨 듣는다.

학창시절 서울을 오르내릴 때 구포역에서 삼랑진역 사이를 지날 때면 아름다운 낙동강의 정경에 눈을 땄수 없었다. 특히 5월과 6월 저 멀리 강물에 유유히 떠 있는 흰 돛단배와 함께 아카시아 가지와 버드나무 가지가 물에 잠겨 일렁이는 그 풍광은 지금도 두곡의 뱃노래와 함께 가슴에 남아 일렁거린다.



# 자연과 전통이 살아있는 참외의 고장 성주

5월의 싱그러움이 더하던 지난 5월 11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74번째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5월 테마여행지는 자연과 전통이 살아있는 참외의 고장 성주. 정기회원 테마여행을 시작하고 '성주'로 떠나는 여행은 처음인지라 여행참가를 희망하는 정기회원들의 신청이 그 어느때 보다 많았다. 이번 테마여행에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황두호, 하지희, 최요셉, 최유리씨가 동행하면서 여행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출근길 정체를 피해 이른 아침부터 모인 정기회원 가족들은 두시간 반을 달려 첫 번째 목적지인 성주 선석사에 도착했다. 신라말 의상대사가 화엄 10사찰 중 하나로 창건한 선석사는 처음에는 신광사라 하여 선석산 서쪽에 있었으나 고려 말 현 위치로 옮기면서 선석사라 개명했다.

'선석사'에는 예로부터 전해져오는 이야기가 있다. 당시 신광사 주지였던 나옹대사가 지금의 자리로 절터를 잡고 터를 닦는데 집채만한 큰 바위가 나와 마을사람 수백 명을 동원했으나 바위를 옮길 수 없었다고 한다. 결국 스님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목욕재계 후 기도를 하니 사흘 만에 그 바위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해서 '닦을 선, 돌 석', 즉 참선하여 돌을 없앴다 하여 선석사라 이름부쳤다 한다.

조선시대에 들어 선석사는 세종임금의 왕자들의 태를 봉안한 태봉 옆에 위치하면서 태실(사적 제444호)을 수호하는 사찰로 지정되었다. 태실을 수호하는 사찰답게 선석사에는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건강을 기원하는 사람들의 태실을 봉안하는 세계 유일의 태실법당이 들어서 있다. 규모가 크지 않으나 세월을 이겨낸 노송이 사찰을 둘러싸고 고즈넉한 풍경을 만들어내면서 아름다운 자연이 주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다.



● 세종대왕자태실을 수호하는 선석사

- 선석사에서 운영하는 '자연건강밥상 사찰음식 만들기체험' 을 하고있는 정기회원 가족들
- 세종대왕의 18왕자와 원손인 단종의 태실이 모여있는 '세종대왕자태실'







● 수령 200년이 훌쩍 넘는 느티나무가 자리한 선석사 야외마당에서 펼쳐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국악양상블 무대

선석사 입구에 들어서자 미리 연락을 받고 기다리던 김정희 씨가 정기회원 가족들을 반갑게 맞는다. 테마여행 첫 프로그램은 선석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연건강밥상 사찰음식만들기체험'. 김정희 씨의 해설과 시범을 시작으로 오늘의 메뉴인 쑥버섯마밥과 두부흑임자샐러드, 오디소스 샐러드, 들깨버섯전, 방아잎전, 감자전 요리를 시작했다. 사찰음식은 메뉴에서처럼 주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신선한 재료에 오신채, 즉 파, 마늘, 달래, 부추, 무릇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을 담은 담백한 맛이 특징이다.

두시간을 걸려 직접 차려낸 자연건강밥상이 바로 오늘의 점심메뉴. 손수 차린 밥상이라 그런지 그 어느때보다 밥맛이 꿀맛이다. 점심식사를 마친 후 선석사를 둘러본 정기회원들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들의 연주회가 펼쳐지는 절 입구 야외마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수령 200년이 훌쩍넘는 느티나무 아래 자리한 정기회원 가족들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황두호, 하지희, 최요셉, 최유리씨가 빚어내는 국악양상블 연주에 어느새 폭 빠져들었다. 새소리, 바람소리가 함

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국악선율에 회원들의 탄성이 절로 나온다. 오후 일정은 선석사 바로 200m 인근에 자리한 '세종대왕자태실'에서 시작됐다. 태실이란 태줄을 묶는 곳을 말하며 형태는 부도와 흡사하다. 세종 20년(1438)에서 24년(1442) 사이 조성된,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하게 근집을 이룬 유일한 형태의 왕태자실로, 세종대왕의 적서(嫡庶) 18 왕자의 태실과 원손(元孫)인 단종(端宗)의 태실 등 모두 19기가 있다. 그 중 세조의 왕위찬탈에 반대한 다섯 왕자, 수양의 동생 금성대군, 배다른 한남군, 영풍군, 그 사건에 무고로 연좌된 회의군 및 계유정란에 죽은 동생 안평대군의 태실의 경우 연엽대석(蓮葉臺石)을 제외한 석물이 파괴되어 남아있지 않다.

세종대왕자태실은 우리나라에서 왕자태실이 완전하게 근집을 이룬 유일한 형태일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태실의 초기 형태연구에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세종대왕자태실' 해설을 맡았던 문화유산해설사 홍연옥 씨의 유쾌한 입담에 회원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성주여행의 마지막 장소는 중요민속자료 제255호로 지정된 전통민속마을인 한개마을. 한개는 '큰 개울'이라는 뜻의 순우리말로 마을 앞에 큰 냇가 있었다 하여 부쳐진 이름이라고 한다. 조선 세종때 진주목사를 역임한 이우(李友)가 정착한 이래 성산이씨(星山李氏)의 집성촌으로 반촌(班村)의 면면을 이어오고 있는 한개마을은 17세기부터 많은 과거 급제자와 이름난 유학자, 독립운동에 헌신한 대계 이승희 등을 배출했다. 마을에는 현재 70여 호의 한옥이 있으며 교리택·북비고택 등 아홉 집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역사가 담긴 고택과 함께 한개마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구불구불 이어지는 골목길이다. 한개마을보존회 최상백 씨의 설명을 들으며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토담길을 따라 걷다보니 마치 과거 어느 시대로 돌아간 것 같다. 달기로 이름난 성주참외를 한가득씩 손에 쥐고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 그 달콤했던 참외향처럼 성주여행은 오래동안 정기회원 가족들의 가슴 속에 기억될 것이다.

**성주 답사 TIP**

- 선석사 사찰음식체험 10명이상 신청가능
- 세종대왕자태실/선석사를 둘러보는 성주 별빛기행 운영
- ▶ 문의 : 054)933-0700

• 역사가 담긴 고택과 함께 구불구불 이어지는 토담길이 정겨운 한개마을



7월에는 과거와 현재가 함께 공존하는 **청도**로 여행을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 또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당첨되신 분은 정기회원 본인을 포함해 2인이 부산시립예술단과 여행을 떠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엽서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  
 마감 6월 15일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607-310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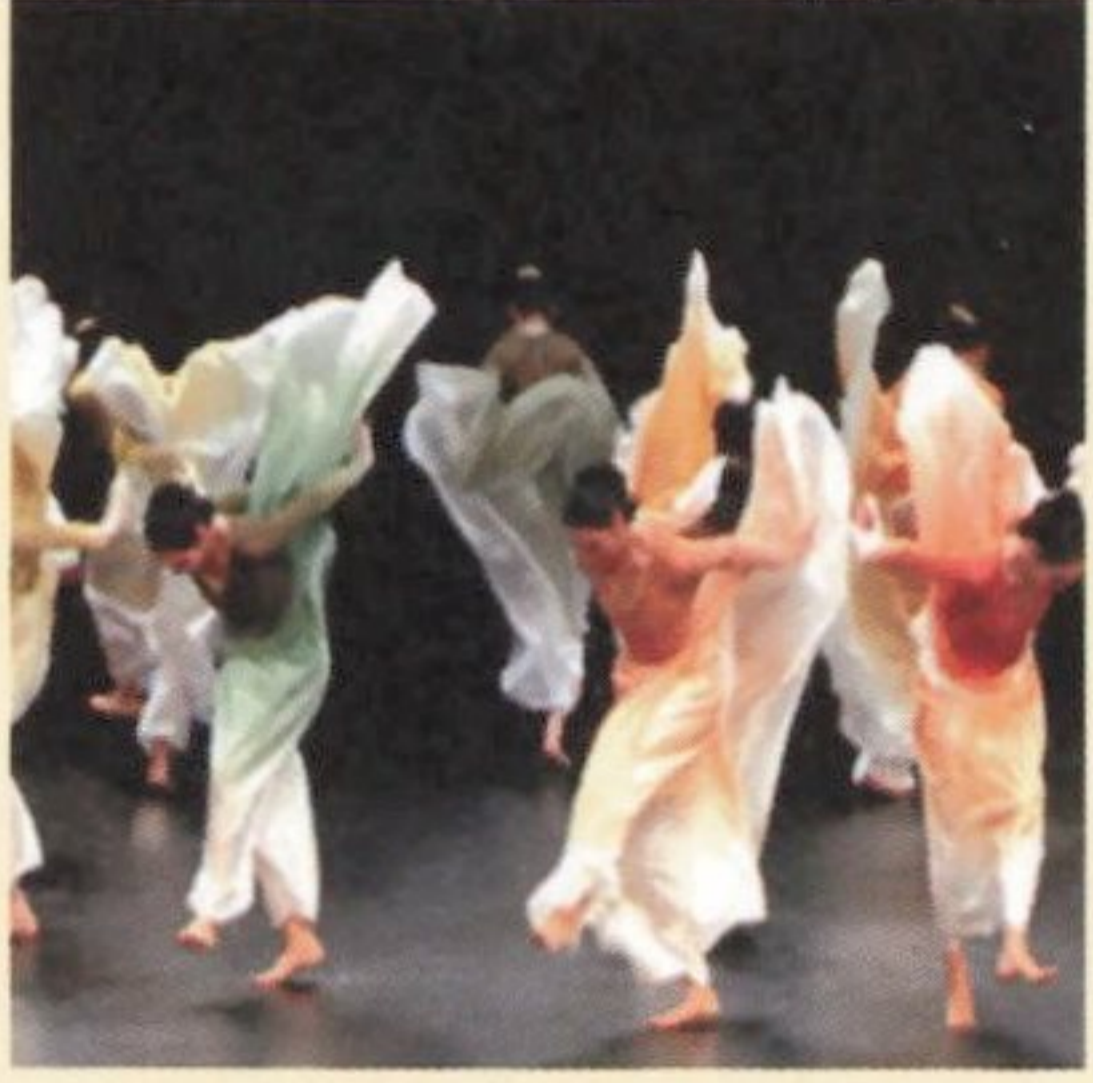
**6월 테마여행 당첨자**

**신규가입자**

- 권승오(해운대구 반여1동)
- 김영래(해운대구 좌동)
- 문성희(사하구 당리동)
- 서정옥(영도구 남항동)
- 송희운(연제구 연산9동)
- 신연순(양산시 주남동)
- 옥춘희(남구 용호1동)
- 유경선(남구 대연3동)
- 윤인영(해운대구 재송2동)
- 이만구(김해시 어방동)

**엽서당첨자**

- 김태진(연제구 연산동)
- 김충남(부산진구 연지동)
- 박동희(연제구 거제동)
- 박현정(남구 용호동)
- 이황경(해운대구 우1동)
- 전정희(남구 대연4동)
- 정경은(사하구 당리동)
- 정인옥(해운대구 대청로)
- 한지혜(양산시 북정동)
- 황미희(서구 아미동)



# CULTURE LIFE

부산문화회관	<b>PROGRAM GUIDE</b>	<b>36</b>
기타공연장	<b>PROGRAM GUIDE</b>	<b>44</b>
	<b>NEW MUSIC</b>	<b>56</b>
	<b>NEW BOOK</b>	<b>57</b>
	<b>SPECIAL MOVIE</b>	<b>58</b>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금정문화회관(519-5651)  
 동래문화회관(550-6611)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309-4087)  
 부산시민회관(630-5200)  
 부산예술회관(612-1372)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71~3)  
 영화의전당(780-6000)  
 을숙도문화회관(220-5812~3)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AN아트홀(758-9035)  
 BEXCO 오디토리움(740-7300)  
 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KBS부산홀(620-7181)  
 MBC롯데아트홀(1688-8998)  
 SM아트홀(1600-1602)  
 가마골소극장(1588-9155)  
 가온아트홀(1600-1602)

공간소극장(611-8518)  
 글로벌아트홀(505-5995)  
 디코소극장(464-1996)  
 미리내소극장(504-2544)  
 소극장 6번출구(625-2117)  
 솜사탕아트홀(922-4545)  
 신명천지소극장(515-7314)  
 아트카페 움(557-3369)  
 액터스소극장(611-6616)

에저또소극장(852-9161)  
 용천지랄소극장(612-4312)  
 일터소극장(635-5370)  
 자유바다소극장(441-2733)  
 청춘나비소극장(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621-4005)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2 춤으로 보여주는 동화 속 이야기**  
**효녀심청**

6월 1일 금요일, 6월 4일-5일 월-화요일  
 6월 7일 목요일 오전 11: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천원(36개월 이상 관람 가능)  
 문 의 |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전래동화를 재미있는 춤으로 엮은 부산시립무용단의 눈높이 프로그램 '춤으로 보여주는 동화 속 이야기' 2012년 무대. 지난해 별주부전에 이어 올해는 부산시립무용단의 마당춤 '효녀심청'을 재구성,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춤으로 효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 구성/홍기태(수석안무자)

**제8회 부산국제무용제 '춤! 바다를 품다'**

6월 1일-5일 금-화요일 오후 7:00  
**중극장, 해운대 해수욕장 특설무대**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해운대 해수욕장 특설무대 공연 무료)  
 문 의 | 부산국제무용제(890-2507)



바다를 배경으로 해변야외무대에서 펼쳐지는 세계 유일의 무용축제 제8회 부산국제무용제. 6월 1일부터 3일까지 저녁 7시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열리는 14개국의 공식초청공연과 4일 한국의 젊은 안무가를 국제적인 안무가로 육성하기 위한 AK21 국제 안무가육성공연 결선 무대, 5일 폐막식 및 폐막 공연이 펼쳐진다.

**프로그램**  
 4일(월) 오후 7:00 AK21 국제안무가육성공연  
 김정미 무용단 '공녀 - 붉어지다' (안무/김정미)  
 KJK댄스컴퍼니 '통증' (안무/김종기)  
 박한울 댄스프로젝트 '천해남로' (안무/박한울)  
 M-note '하프타임' (안무/신승민)

5일(화) 오후 7:00 **폐막공연**  
 중국 TAO Dance Theater  
 한국 빛과 친구들, 춤배 배김새, TAGROUND  
 AK21 시상식, 아름다운 인생 시상식

**부산 YMCA 네오피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6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 5만원 · R석 2만원 · S석 1만원  
 문 의 | 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440-3372)



2009년 7월 창단 이후 홍성택 상임지휘자를 중심으로 폭 넓은 연주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부산 YMCA 네오피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 정부 지원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네오피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예술성 높고 친근한 연주로 청중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이번 정기연주회에서는 하순봉의 창작곡과 구노의 파우스트, 드보르작의 교향곡 8번으로 클래식 하모니와 창작의 선율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프로그램**  
 구노/파우스트  
 하순봉/Arirang Fantasy, Boanerge  
 드보르작/교향곡 제8번 사장조 작품 88  
 · 지휘/홍성택

**인순이와 드니 성호 'My...대화'**

6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12만원 · S석 8만원  
 A석 5만원 · B석 3만원  
 문 의 | Sens management(02-749-8821)

카네기홀에서 여러 번의 공연을 펼친 한국의 디바 인순이와 '떠오르는 스타'로 카네기홀에서 데뷔무대를 가진 드니성호 안센스가 들려주는 'My... 대화'.



한국계 벨기에 기타리스트 드니 성호 안센스는 8세에 기타를 시작해 14세에 벨기에 '영 탤런트' 콩쿠르에서 1위에 입상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이번 무대는 카네기홀 레지던스 작곡자 클라리스

아사드의 새로운 해석으로 음악 속에 내포된 본질적인 표현을 넘어 그들만의 서정성과 깊은 감성, 우아함을 자아내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윤극영/반달  
 피아졸라/길 잃은 새, 마리아 데 부에노스 아이레스  
 줄리아니/로시야나 제 1번  
 비제/하바네라  
 가요/서른즈음, 거위의 꿈, 친구여(Friend) I, II 등

**창단 50주년 기념**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80회 정기연주회**

6월 8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곽승



김혜정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곽승과 최정상의 피아니스트 김혜정의 협연으로 들려주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80회 정기연주회.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 50주년을 맞아 오랜만에 부산시립교향악단 지휘봉을 잡는 곽승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8대 지휘자(1996~2003)로 재직하며 미국 4개 도시, 동남아 3개국, 중국 3개 도시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위상을 높였다. 미국 4개 도시, 동남아 3개국 투어 당시 협연자로 호흡

을 맞추었던 피아니스트 김혜정이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오랜만에 호흡을 맞춘다.

**프로그램**

로시니/세비야의 이발사 서곡  
라흐마니노프/피아노 협주곡 제4번  
브람스/교향곡 제1번  
· 지휘/곽 승 · 피아노/김혜정

**한명희와 음악친구들 - 내 인생의 2번째 축제**

6월 8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0-5833)



성실하고 진지한 연주 자세와 설득력으로 연주자로, 교육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부산대학교 한명희교수의 정년을 기념하여 그의 음악친구들이 함께하는 '한명희와 음악친구들-내 인생의 2번째 축제'.

2007년 회갑을 기념해 마련한 '한명희와 음악친구들' 첫 번째 무대에 이어 이번 무대에서는 음악적, 인간적으로 소중한 인연을 맺어온 바이올리니스트 김영희(부산대학교 교수), 첼리스트 이명진(동아대학교 교수), 피아니스트 김소형(동의대학교 교수), 김정권(부산대학교 교수) 등 동료, 제자, 후배들과 함께 무대를 꾸민다.

**프로그램**

바버/Souvenir Op.28(2 Pianos)  
김정권/피아노 소나타 올림 다단조 중에서  
베버/피아노 소나타 제2번 내림가장조  
모차르트/피아노 트리오 다장조 K.548 등 수곡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Part II -Yesterday  
자전거 탄 풍경**

6월 8일 **금요일** 오후 8: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607-6057)



따뜻한 노래로 아날로그 감성을 깨우는 포크 3인조 그룹 '자전거 탄 풍경'이 하늘아래 그 콘서트 Part II - Yesterday의 주인공으로 부산을 찾는다. 2001년 제각기 음악활동을 하던 강인봉, 김형섭, 송봉주가

합심하여 결성한 '자전거 탄 풍경'은 결성 그해 음반 '자전거 탄 풍경' 음반을 발매하며 본격적인 음악활동을 시작하였다. '자전거 탄 풍경'은 영화 '클래식' OST와 CF 올림푸스(전지현 편)에 삽입된 '너에게 난 나에게 넌'를 비롯해 영화 '선생 김봉두' OST '보물', 드라마 '내일이오면' OST Part.4 '내일이 오면' 등으로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아왔다.

**부산하모니합창단 제9회 정기연주회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에'**

6월 9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하모니합창단  
(610-1304, 010-2593-1651)



2003년 3월에 직장인, 사업가, 의사, 교사, 교수, 주부 등 다양한 직업군이 모여서 재미있는 합창 음악으로 즐거움을 전하기 위해 창단한 부산하모니합창단의 제9회 정기연주회.

큰 감동과 행복을 전하고 있는 민간합창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부산하모니합창단은 부산국제합창제, 거제전국합창경연대회 등에서 수상하며 예술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의 음악계를 이끌어갈 신세대 작곡가들의 창작곡, 흑인영가, 독특한 정서를 담고 있는 외국 민요, 20대에서 60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국민 가요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합창 1. 한국창작합창  
산유화, 추 억, 목련이여  
합창 2. 행복한 합창  
김준범(편곡)/마법의 성,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  
기타와 하모니카/봉송아, 피아졸라 'Cafe 1930'  
합창 3. 온 세상의 합창  
포카레카레(마오리족 사랑의 노래), Siksik Si Batu Manikkam(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노래) 등 수곡  
· 상임지휘자/김강규 · 피아노/윤지영  
· 클래식기타/고종진 · 하모니카/이성규

**인코리안아카데미오케스트라  
제15회 정기연주회**

6월 9일 **토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인코리안아카데미오케스트라  
(010-4842-6688)

사단법인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교육과 운영을 맡고 있는 순수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인코리안아카데미오케스트라 제15회 정기연주회.

인코리안아카데미오케스트라는 2001년 3월 '부산 아마추어스트링스오케스트라'라는 이름으로 창단, 부산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인코리안아카데미오케스트라로 개명과정을 거치면서 민간오케스트라로서 체계를 잡아왔다.

**프로그램**

베르디/운명의 힘 서곡  
모차르트/바이올린협주곡 '아델라이데' 등 수곡  
· 지휘/김용문  
· 협연/장은정(인코리안아카데미오케스트라 부악장)

**김정원과 친구들 여섯 번째 이야기  
빈에서 온 편지**

6월 10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 S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더 스톱프(02-2658-3546,  
www.stompmusic.com)

드라마틱한 감성과 유려한 테크닉으로 사랑받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피아니스트 김정원과 그의 음악 동료이



자 분야별 최정상 솔리스트 테너 김재형,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 떠오르는 영 비르투오조 첼리스트 이호찬이 들려주는 '김정원과 친구들 여섯번째 이야기'. 함께 무대를 여는 테너 김재형은 2010년 뉴욕 메트로폴

리탄 오페라에서의 데뷔 무대에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소리'라는 호평을 받으며 화려하게 데뷔했다. 젊은 거장 권혁주는 2004년 칼 닐센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19세의 나이로 한국인 최초 우승과 함께 덴마크 작곡가 작품 특별상, 젊은이 인기상을 석권한 바 있다.

**프로그램**

슈베르트/즉흥곡 내림사장조 작품 98 No.3, 아르페지오 네 소나타 D821, 슈베르트/송어, 그대는 나의 안식처 작품59 No.3 D.776 말러/아름다움을 사랑한다면, 높은 지성의 찬미 크라이슬러/빈 카프리치오 작품2 등 수곡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2012 유망 신예 음악회**

6월 10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UKO(011-591-3342)



난치병 어린이를 위해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2012 유망 신예 음악회.

이동신이 지휘하는 유망 연주자들이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와 함께 감미로운 사랑의 선율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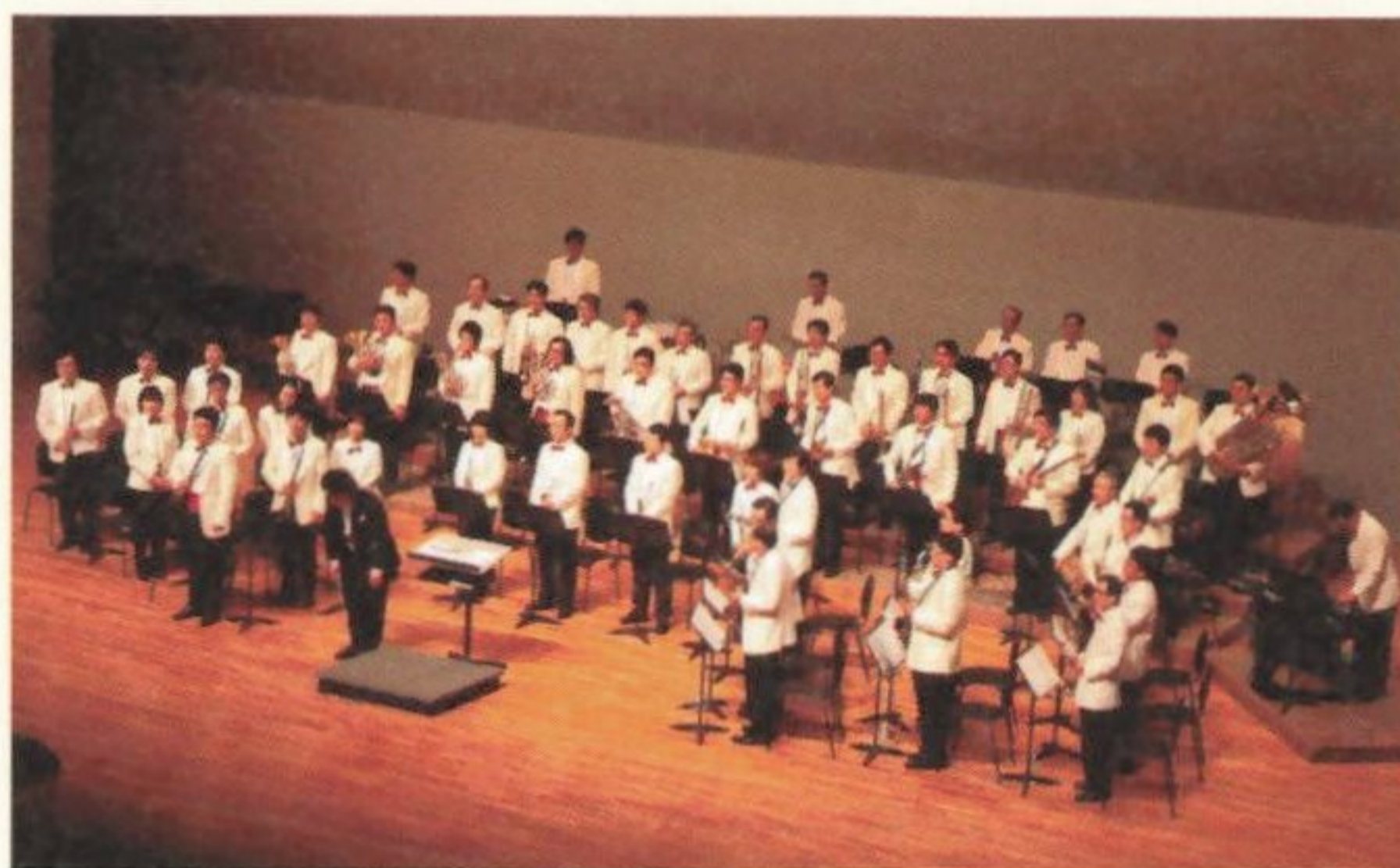
슈타미츠/클라리넷 협주곡 제3번 내림사장조 중 제3악장 모차르트/플루트 협주곡 제2번 라장조 작품314 중 드보르작/첼로 협주곡 나단조 작품104 중 제1악장

조두남/산촌 등 수곡

- 지휘/이동신(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 협연/양강민(동성초등 4년), 송민경(해강중 1년), 강민지(부산예중 3년), 강보경(부산대 4년), 한성희(부산예고 1년), 표린(부산예고 2년), 전해주(부산예고 2년), 소미래(계명대 대학원 졸업)

**닥터스 심포닉 밴드 제11회 정기연주회**

6월 16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정홍기(010-2561-6047), 이국희(010-9458-9258)



1999년 부산, 경남지역의 의사, 치과의사로 결성된 닥터스 심포닉 밴드의 제11회 정기연주회.

닥터스 심포닉 밴드는 치료를 통해 아픈 사람을 돌보고 보듬으며, 아름다운 선율과 하모니를 통해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무대를 열어왔다.

**프로그램**

Centuria, Good-by Morning, Clarinet Polka Japanese Graffiti IV, A Fifth of Beethoven Pirates Of The Caribbean, 남진 Graffiti 등 수곡  
· 지휘/정홍기 · 협연/박훈

**Brillante Opera Ensemble 제6회 정기연주회 Concerto della Diva**

6월 16일 토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홍승표(010-2962-0459)

오페라 갈라콘서트, 남성양상블 음악회,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돕기 자선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를 열어온 브릴란테 오페라양상블의 제6회 정기연주회.



소프라노 김미정, 김윤희, 박소영, 이수진이 여성중창의 매력을 담은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신이여 평화를 주소서, 종의 아리아, 애 그이었던가?, 광란의 아리아 등 수곡

**팜페라 최고 히어로 텐테너스 내한 공연**

6월 17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12만원 · S석 10만원  
A석 8만원 · B석 6만원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1년 250일 동안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월드 투어를 펼치고 있는 팜페라 그룹 텐테너스(The Ten Tenors) 내한 공연.

1995년 호주의 TV프로그램 창립 축하공연 무대에 출연한 호주 브리즈번 음악원 출신 10명의 테너 공연이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 것을 계기로 결성된 '텐테너스(The Ten Tenors)'는 1998년 호주를 시작으로 2001년 뉴질랜드, 베를린, 함부르크, 오스트리아 공연 전석 매진, 2002년 첫 유럽투어 15만명 관객 동원, 미국, 아시아, 호주 공연 연속 매진, 2006년 앨범 <Here's To The Heroes> 발매 동시 각종 차트 1위 석권, 2007년 국내앨범 출시 '교보 핫트랙스 클래식 부문 차트 2위' 석권 등 다양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신 10명의 테너 공연이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 것을 계기로 결성된 '텐테너스(The Ten Tenors)'는 1998년 호주를 시작으로 2001년 뉴질랜드, 베를린, 함부르크, 오스트리아 공연 전석 매진, 2002년 첫 유럽투어 15만명 관객 동원, 미국, 아시아, 호주 공연 연속 매진, 2006년 앨범 <Here's To The Heroes> 발매 동시 각종 차트 1위 석권, 2007년 국내앨범 출시 '교보 핫트랙스 클래식 부문 차트 2위' 석권 등 다양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프로그램**

영화 '어게인스트' OST, Angel '엔젤', 갑자기 찾아든 사랑, 오페라 '일트로바토레' 중 '대장간의 합창', 보헤미안 랍소디, '뮤지컬 레미제라블' 중 'Bring Him Home' 등 수곡

**UKYO 제4회 정기연주회**

**밝은 미래, 나눔을 함께하는 음악회**

6월 17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UKO(010-5540-1538)



전영수

유승연

부산, 경남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들로 구성된 자선 오케스트라 United Korean Youth Orchestra의 제 4회 정기연주회.

전문 지휘자와 각 파트별 강사들의 지도아래 매주 토요일 기량을 연마해온 United Korean Youth Orchestra는 매년 2~3회의 정기연주회와 다수의 찾아가는 음악회 등 각종 연주회를 개최하여 수익금 전액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전달해왔다.

**프로그램**

로시니/빌헬름 텔 서곡  
 바흐/G 선상의 아리아(관현악 모음곡 제3번 라장조 작품1068 중)  
 차이코프스키/환상 서곡 '로미오와 줄리엣'  
 홀스트/행성모음곡 중 '목성, 쾌락의 신'  
 척 맨지오니/산체스의 아이들 등 수곡  
 · 지휘/전영수 · 소프라노/유승연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콰르텟 콘서트**

6월 17일 일요일 오후 5:0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김정희(010-4552-4106)

신라대학교 음악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연주자로 교육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피아니스트 김정희와 Chicago City Symphony Orchestra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첼리스트 김정현과 그 제자들이 들려주는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콰르텟 콘서트.

**프로그램**

생상/동물의 사육제  
 모차르트/교향곡 제 40번 사단조 K.550  
 차이코프스키/호두까기 인형모음곡 중 'March' 작품 71a 등 수곡  
 출연  
 김정희, 김정현, 강령경, 서경희, 김현아, 홍부임, 곽민정,

김승재, 김지유, 정기은, 김명현, 조지형, 송다해, 임다희, 김소원, 송라예, 이소영, 전현경

**강진과 함께 하는 이웃사랑 콘서트**

6월 18일 월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마하사(756-2340, 010-5573-3371)

천주교 당감성당과 조계종 마하사가 삼랑진 평화의 마을과 환우들을 위해 함께 펼치는 이웃 사랑콘서트. 트로트와 우리 춤 우리가락, 색소폰연주가 어우러지는 흥겨운 무대를 연다.

·출연/강진, 라수빈, 이민정, 류성환, 성정옥, 노민(MC)

**바이올린 여제의 귀환  
 정경화 바이올린 독주회**

6월 19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VIP 12만원 · R석 10만원 · S석 8만원  
 A석 6만원 · B석 4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 할인)  
 문 의 |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0-5833, www.busanarts.com)



완벽함과 열정으로 바이올린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톤 컬러로 최고의 감동을 주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독주회.

2005년 손가락 부상으로 잠시 무대를 떠났던 정경화는 그동안 경험하고 얻은 것을 후배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줄리아드음악원에서 5년간 후학양성에 힘썼다. 2011년 여름, 대관령 국제음악제에서 프랑크 바이올린 소나타를 연주하고 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진 정경화는 2011년 12월 재기 독주회를 통해 우리에게 바이올린 여제의 화려한 부활을 알렸다. 이번 무대는 다시 연주활동을 시작한 정경화의 기쁨과 아픔, 시련과 행복, 믿음과 사랑을 고국의 팬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이다.

**프로그램**

베토벤/바이올린 소나타 5번 '봄'  
 프로코피에프/바이올린소나타 제1번 바단조 작품80  
 프랑크/바이올린 소나타 가장조

**양경아 바이올린 독주회**

6월 19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서울예고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맨하튼 음대와 매릴랜드 주립대학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귀국, 현재 서울과 부산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이올린리스트 양경아의 독주회.

**프로그램**

르골레르/바이올린 소나타  
 베토벤/바이올린 소나타  
 프랑크/바이올린 소나타  
 · 피아노/최지은

**서정숙의 춤**

6월 19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서정숙(010-3593-48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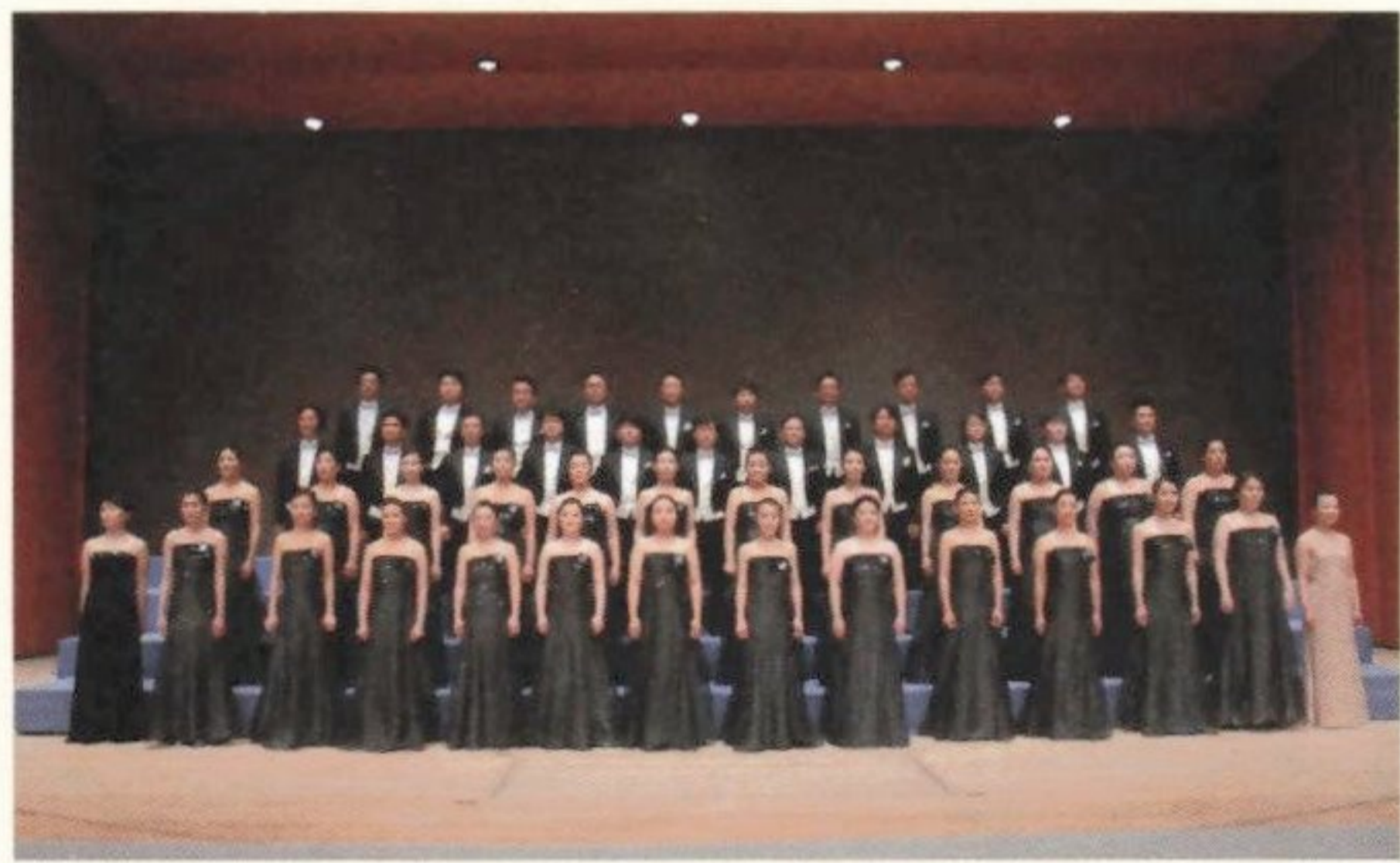
부산시립무용단 부수석 단원을 역임하고 현재 부산시립무용단 훈련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서정숙의 춤. 제30회 전국예술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한 서정숙은 김진홍 전통춤연구회 회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소고춤(춤/정진희, 오수연, 이현정)  
 태평무, 입춤, 지전춤(춤/서정숙)  
 승무(특별출연/김갑용 · 마려무용단장)  
 훈령대장무(특별출연/홍기태 · 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 부산시립합창단 제142회 정기연주회 제8대 수석지휘자 취임기념 연주회 Missa Solennelle

6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창단 40주년을 맞는 2012년 부산시립합창단 제8대 수석지휘자로 부산활동을 시작한 부산시립합창단 신임지휘자 오세종의 취임기념연주회. 부산음악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갖는 신임수석지휘자 오세종은 그동안 국립합창단, 안양시립합창단, 고양시립합창단, 서울시립합창단 등 전국 주요합창단을 지휘한 우리나라 합창음악의 산증인이다.

**프로그램**  
 구노/장엄미사(Messe Solennelle)  
 루터/영광송(Gloria)

정애련/위로(남성합창), 동계 동계야, 메주와 곰팡이  
 우리민요/강강수월래(진규영 작·편곡), 밀양아리랑 랩  
 소디(조우현 편곡)  
 · 합동공연/부산시립교향악단  
 · 독창/소프라노 한경미, 테너 홍지형, 바리톤 공병우  
 · 오르간/김원

## 1993-2012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제14회 정기연주회 Romantic

6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경성대학교(663-4917)

10년의 공백을 깨고 2010년부터 활동을 재개한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의 제14회 정기연주회. 1993년 경성대학교 임병원 교수와 그 제자들로 창단



된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는 2000년까지 10회의 정기연주회를 가지며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무대는 현악합주의 선명하면서도 깊은 음색을 이용한 낭만주의적 색채를 표현한 19세기 말 생상, 20세기 엘가와 핀지, 바르톡의 작품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생상/대흥수 작품 45 중 Prelude for Strings  
 엘가/String Quartet & Strings를 위한 서주와 알레그로 작품 47  
 핀지/현을 위한 프렐류드 바장조 작품25  
 바르톡/스트링 오케스트라를 위한 디베르티멘토(1939)  
 · 예술총감독/임병원(경성대학교 예술대학장)  
 · 연주/임병원, 김은정, 김희진, 서영희(이상 바이올린1), 김정은, 김연정, 김은근(이상 바이올린2), 최영식, 정지윤, 한동민(이상 비올라), 김판수, 이예성(이상 첼로), 박희철(베이스)

## 오션뮤직의 캐디슨 색소폰

6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문 의 | 오션뮤직(623-3661, 010-2567-9432)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오프닝 연주, 부산국제영화제 초청공연, 중국 베이징 한국 대사관 초청연주 등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부산재즈색소폰 앙상블단장으로 이병주와 MBC 여수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 <강기만의 음악 스케치>, MBC 여수 라디오 '정오의 희망곡' <Music On The 정희> 진행자로 활약하고 있는 강기만이 들려주는 캐디슨색소폰 연주회.

## 멜로매니아 제18회 정기연주회

6월 25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원요한(011-590-1115)



1994년 노래를 사랑하는 비전공인들로 결성,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음악사랑을 실천해온 멜로매니아의 제 18회 정기연주회.

남자(men), 멜로디(melody), 마니아(mania)를 뜻하는 멜로매니아는 4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다양한 직업군의 남성 아마추어 성악가들이 음악으로 제 2의 인생을 열어왔다.

**프로그램**  
 김동진/목련화  
 임금수/그대 창밖에 서서  
 푸치니/참 아름다운 여인 등 수곡  
 출연  
 오거돈, 한성권, 민정식, 원요한, 윤치연, 김성홍, 최웅진  
 · 성악지도/박광하 · 피아노/곽윤희

## 제21회 부산무용제

6월 25일-27일 **월-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 의 | (사)한국무용협회 부산광역시지회  
 (632-5116)



부산무용예술인의 최고의 축제이자 경연 무대로 펼쳐지는 부산무용제 2012년 무대. 전국무용제에 참가할 부산 대표 무용단을 선발하는 부산무용제는 지난해 전국무용제 부산 개최에 이어 부산만의 새로운 색깔을 입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즐기는 신명난 축제로 펼쳐진다.



**프로그램**

국립부산국악원 개막식 초청공연  
 Mom-buirm Dance Project - 이상미(현대무용)  
 판 댄스 씨어터 - 허종원(현대무용)  
 JULY Dance Company - 박재현(현대무용)  
 그랑발레(Grand Ballet) - 최소정(발레)  
 부산발레연구회 - 공문정(발레)  
 2011년 대상작품 축하공연-허경미무용단 Red step  
 부산시립무용단 폐막식 초청공연

**부산 필하모니아 교향악단 제5회 정기연주회  
 (구.부산원로 교향악단)**

6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고영진(010-2738-8379)

1960년대 음악의 불모지 부산에서 음악인으로, 교육자  
 로 다양한 활동을 펼친 1세대 음악인들로 결성된 부산필  
 하모니아(Busan Philharmonia) 교향악단 제5회 정기연  
 주회.

2007년 9월, 부산원로교향악단이라는 이름으로 창단된  
 부산필하모니아 교향악단은 4회의 정기연주회와 기획연  
 주회를 통해 변함없는 음악 열정을 발휘해왔다. 지난해  
 부산시전문연주단체로 등록된 부산필하모니아 교향악단  
 은 김원모 교수를 지휘자로 영입, 새롭게 출발했다.

**프로그램**

오펜바흐/서곡 '천국과 지옥'  
 로저스/사운드 오브 뮤직  
 웨버/오페라의 유령  
 이영주/창작가곡 '정'  
 베토벤/교향곡 제 5번 작품 67 등 수곡  
 · 지휘자/김원모(서울필하모닉, 부산필하모니아 교향악  
 단 지휘자, 경북대학교 객원교수)  
 · 작곡/이영주(동부산대학교 명예교수)  
 · 소프라노/남순천(부산시립합창단 부수석)

**부산시립무용단 2012 풍류(風流) 5기  
 -시민과 함께 하는 우리 춤 빛깔 찾가-**

6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천원  
 문 의 |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www.koreanfolkdance.com)



전통무용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온 시민무용교실 수  
 강생들과 부산시립무용단원들이 함께 마련하는 부산  
 시립무용단 2012 풍류(風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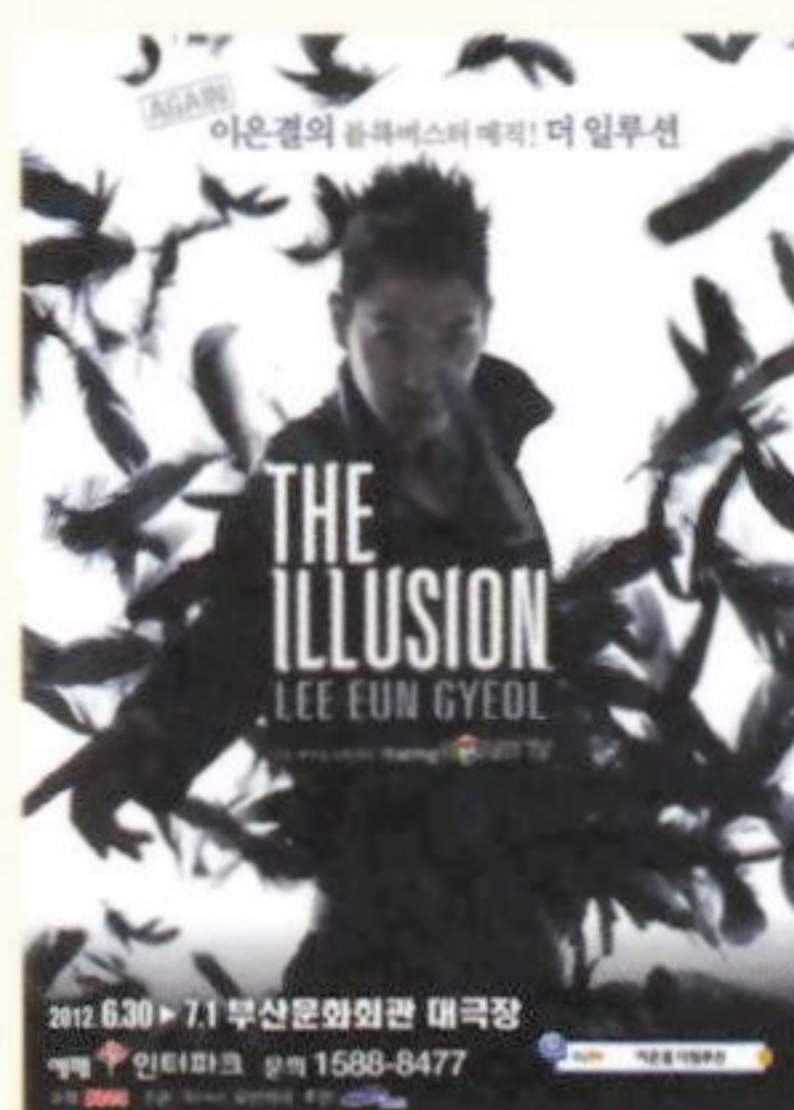
시민무용교실 강습생들을 체계적으로 지도·관리하기  
 위해 시작된 '풍류(風流)' 무대는 4기 공연까지 70여  
 명의 시민 전문 무용인을 발굴, 양성했다.

**프로그램**

교방살풀이춤, 춘앵무  
 탈춤(특별출연/부산시립무용단 이성원, 이정식, 김병주)  
 장고춤(특별출연/부산시립무용단이현정, 김주연, 김경미)  
 산조춤(특별출연/풍류강습생 황미숙)  
 강선영류 태평무(특별출연/풍류강습생 최필선)  
 · 예술감독/홍기태(수석안무자)  
 · 무용지도/홍기태(수석안무자), 황선희, 정진희

**AGAIN 이은결의 블록버스터 매직  
 THE ILLUSION'**

6월 30일-7월 1일 토요일 오후 3:00, 7:30  
 일요일 오후 2:00, 6:30 **대극장**  
 입장료 | R석 8만원 · S석 6만원  
 문 의 | 유엔아이(1588-8477)



국내 최초, 국내 유일, 국내  
 최다 그랑프리 수상 영예와  
 함께 국내 최초로 라스베거  
 스에서 공연을 하며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있는 이은  
 결의 Magic Show & Illu-  
 sion Performance.

이번 무대는 2010년에 대  
 히트한 <THE ILLUSION> 공연의 업그레이드 무대로  
 다이내믹하고 버라이어티한 이은결의 마술공연 뿐만  
 아니라 타 예술장르와의 코웍(Co-work)을 시도, 다  
 양한 퍼포먼스로 이루어진 새로운 매직 환상극을 선  
 보인다.

**부부 음악회**

6월 30일 토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 S석 2만원 · 학생 1만원  
 문 의 | 김정아(010-9334-6105)



이철성 김화정 박기범  
 음악적 동반자로, 인생의 동반자로 한길을 걸어온 부부  
 음악인들이 함께 마련하는 부부음악회.

**프로그램**

A love until the end of time, Con te partiro  
 성가곡/나, 사랑은 영원하네  
 가곡/그리워, 간다 간다 하더니만, 동심초 등 수곡  
 출연  
 소프라노 김정아, 노미숙, 테너 이철성, 김화정, 베이스  
 박기범, 피아니스트 이소영

**국악실내악단 도시락(都是樂) 첫번째 콘서트**

6월 30일 토요일 오후 6:0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이지현(010-8986-6056)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부산 경남지역  
 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국악연주자들로 결성된 국  
 악실내악단 도시락(都是樂) 첫번째 콘서트.  
 국악 실내악팀 '도시락'은 '모든 것이 음악이다' 라는  
 뜻의 단체이름에 맞게 국악에 다양한 색을 입히고 접  
 목시켜 새로운 국악의 모습을 보여줄 계획이다.

**프로그램**

류, 가시리, 엄마야 누나야, Sister act O.S.T, 해피니스, 난감하네, 아리요  
· 연주/가야금 정수유, 대금 김가나, 해금 최유리, 타악 이지현, 소리 조아라, 작곡 및 신디 백진희  
· 찬조출연/박찬완(트럼펫), 송범석(바이올린), 홍영준(첼로)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81회 정기연주회**

7월 3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김대진



손열음

한국을 대표하는 최정상 피아니스트로 활약해온 수원시립교향악단 김대진 상임지휘자의 객원지휘, 차이코프스키, 루빈스타인 등 국제피아노콩쿠르 수상, 뉴욕필하모닉 평양공연 등을 펼치며 세계 무대에서 각광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손열음의 협연으로 진행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81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레너드 번스타인/ '캔디드' 서곡  
조지 거슈윈/ 피아노 협주곡 바장조  
베토벤/ 교향곡 제7번 가장조 작품92  
· 지휘/김대진 · 피아노/손열음

**제18회 동아발레단 정기공연**

7월 3일 화요일 오후 7:30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의 | 동아발레단(200-7823, 010-8554-1452)

발레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온 동아대학교 동아발레단의 제 18회 정기공연. 세상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에 대한



사랑을 담은 '사무치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떠한 sign, 울림 등 그 마음의 소리를 표현한 'SIGN', 평범한 일상 속에서 희망을 꿈꾸는 나의 모습을 그린 'MY WAY', 소유욕의 실체를 표현한 '너의 뒤에서' 등 창작 발레를 선보인다.

**작품**

사무치다(안무/주정현 · 출연/신세정, 권나현, 김희경, 이수정, 이은, 김영화, 윤이나)  
SIGN(안무/서선영 · 출연/서선영, 이미광, 김지정)  
MY WAY(안무/안미진 · 출연/윤세희, 이수정, 이은, 백가람, 이보라, 김민경, 박지희)  
너의 뒤에서(안무/김경란 · 출연/김경란, 손영일)

**국립극단 창작 역사극 '궁리'**

7월 6일-7월 8일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2:00, 7:00, 일요일 오후 4:00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 S석 4만원 · A석 3만원  
문의 | 가마골소극장(1588-9155)

문화계릴라 이윤택이 10년 만에 직접 쓰고 연출한 국립극단의 창작역사극 '궁리(窮理)'가 부산문화회관 무대에서 막이 오른다.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자인 부산의 인물 장영실의 삶



을 무대화 한 '궁리'는 이윤택의 연륜이 묻어나는 섬세한 연출력과 간결한 대사로 초연 후 연극계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 작, 연출/이윤택  
· 출연/이종구, 곽은태, 박영숙, 조정근, 김수보, 전형재, 강학수, 김미영, 장재호, 최승집, 문호진, 심완준 외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11회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7월 6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화려한 기교를 바탕으로 한 협연자들의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프로그램**

베버/안단테와 헝가리풍 론도 다단조 작품35  
비외탕/바이올린 협주곡 제4번 라단조 작품31 중 R 슈트라우스/호른 협주곡 제1번 내림마장조 작품11 중 벨리니/오보에 협주곡 내림마장조 등 수곡  
· 지휘/이동신(수석지휘자)  
· 협연/박신지(바이올린), 홍영준(첼로), 하현정(오보에), 김지훈, 오나경(클라리넷), 김소연(바순), 안혜빈(호른), 박소정(트롬본)

www.piano123.co.kr  
그랜드피아노전문점 부산역가시  
대표 강규찬 (조율사)  
H.P. 017-556-9410  
1층 업라이트 피아노 전시장  
2층 그랜드피아노 전시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25번지 T.758-5450/5445



부산청소년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합창단



추임새국악예술단



춤소리예술단

## 토요상설무대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선착순, 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056)

### 6월 2일 부산청소년국악관현악단 연주회

정악 '하현도드리' (지도교사/신선영 · 단소/박성주 · 해금/서수정 · 거문고/황은비, 임현지 · 가야금/김아현 · 대금/강민정)

판소리 '춘향가' 중 '오리정 이별' (소리/우승은 · 교수/김인균)

가야금독주 '25현가야금을 위한 고향의 봄' (작곡/김계옥 · 25현가야금/박현정)

국악실내악 '집으로가는 길' (작곡/최경철 · 대금/박성주 · 가야금/박현정 · 거문고/김현경 · 피리/형새난슬 · 아쟁/장은교 · 타악/이광현)

국악실내악 '춤추는 꼭두각시' (작곡/최경철 · 대금/박성주 · 가야금/박현정 · 거문고/김현경 · 피리/형새난슬 · 아쟁/장은교 · 타악/이광현)

국악실내악 '청소년 신물이' (작곡/이준호 · 편곡/최경철 · 가야금/박현정, 김아현 · 피리/신선영, 형새난슬 · 해금/서수정 · 대금/박성주, 강민정 · 거문고/정주은, 하수민, 윤희민 · 타악/이수진, 김인균, 이진희 · 아쟁/장은교)

· 지도위원/이의경

· 지휘, 해설/홍희철

### 6월 9일 부산시립합창단-관객을 사로잡는 합창

오픈스테이지/봄노래 모음곡

양상블/이태리 가곡모음, 산들바람, 산촌, 아카시아 꽃, 2008 CM Song

· 지휘/오세종(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 반주/이승윤, 이경미

### 6월 16일 추임새국악예술단 연주회

김병섭류 설장구(출연/조도근, 조민지, 최은미 · 태평소/오상훈)

태평무(출연/빈성란), 동래학춤(출연/박태룡)

사물놀이 KOREAN WAVE

(쇠/김연홍 · 장구/조도근 · 북/김현태, 백만권 · 징/기종석 · 모듬북/최은미 · 태평소/오상훈)

### 6월 23일 춤소리 예술단 공연

살풀이춤(춤/김정원)

진주교방굿거리춤(춤/신윤경, 이남정, 김예린, 김여운, 윤현정)

영남교방무(춤/양채원, 백소희, 정수빈, 황시아, 배지현)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판소리/강은미 · 교수/이수진)

동래학춤(춤/박태룡, 배철희)

풍류장고춤(춤/윤정미, 남선주)

소고춤(춤/김정원, 윤현정, 이남정, 김여운, 김예린)

Music

제11회 테너 이철성 독창회

6월 1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R석 5만원 · S석 3만원 · A석 1만원  
 문 의 | 프리모 아트매니저먼트  
 (010-9334-6105)

부산대학교 음악과와 이태리 베르디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동양인으로는 유일하게 엔리소 카루소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한 테너 이철성 독창회.  
 · 특별출연/바이올리니스트 박광식

창단 14주년 기념  
 2012 예타래와 함께하는 우리음악 느끼기

6월 2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최지환(010-7676-9124)



1998년 창단 이후 우리음악에 뿌리를 두고 우리시대의 새로운 음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퓨전시나위 예타래 창단 14주년 기념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창작곡을 중심으로 동서양의 선을 자유로이 오갈 수 있는 예타래만의 음악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조익래/제주민요 너영나영 주제에 의한 변주곡  
 조현영/연둣빛 꿈  
 정세운/아카펠라 '한오백년' '까투리 타령' 등 수곡

캠벨스빌 재즈앙상블 초청공연  
 삼바와 재즈의 만남

6월 2일 토요일 오후 6: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4만원 · S석 3만원 · A석 1만원  
 문 의 | 부산문화(1600-1803)

데니스 산토스(플루트, 색소폰), 체드 플로이드(드럼), 서울로 디알메이다(첼로, 더블베이스) 등 미국 캠벨스빌대학교 교수로 구성된 재즈트리오 캠벨스빌 재즈앙상블이 정통 보사노바와 삼바의 정열, 소울풀한 재즈가 어우러진 멋진 무대를 선사한다.

이태리 스칼라극장 주역가수 초청  
 오페라 '토스카'

6월 2일 토요일 오후 7:30 벅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 VVIP 20만원 · VIP 15만원 · R석 10만원  
 S석 7만원 · A석 5만원 · B석 3만원  
 문 의 | 그랜드오페라단(853-2341)



세계적인 테너 호세 쿠라, 안드레아 보첼리 등과 한 무대에서 공연한 소프라노 프란체스카 파타네, 드라마틱한 음색으로 '제2의 파바로티'로 불리는 테너 마우리시오 살타린, 강력한 카리스마로 이태리 주요극장을 석권한 바리톤 마르코 킨가리, 한국인 최초로 스칼라극장 주역으로 진출한 테너 이정원 등 이태리 스칼라극장 주역가수들이 선보이는 푸치니의 3대 걸작 오페라 '토스카'.  
 · 총예술감독/안지환 · 연출/김홍승  
 · 지휘 및 음악감독/마르코 발데리  
 · 연주/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 부산YMCA오페라합창단

국립부산국악원 화요공감무대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매주 화요일 오후 7:30(26일 공연없음)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균일 6천원  
 문 의 |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5일 현금지홍-거문고의 향기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국악실내악단 '산·바다·해' 동인, 부

산동보악회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문고주자 오상훈 독주회.  
 · 사회/조태원  
 · 대금/허유진 · 장구/송강수

12일 김진홍전통춤연구회 '오뉴월 나비꿈'



부산시무형문화재 동래한량춤 예능보유자로 있는 김진홍 선생이 이끄는 김진홍전통춤연구회의 전통춤 무대.  
**프로그램**  
 호접몽, 지전춤, 살풀이춤, 산조춤, 검무, 입춤, 승무, 동래한량춤

· 사회/김해성(부산여자대학교 교수)

19일 강미리 홀무용단 전통 레퍼토리 공연  
 '무첩(舞帖)'

1998년 부산대학교 무용학과 졸업생들을 주축으로 창단된 후 한국 창작춤의 새로운 미의식 창출과 춤의 대중화에 앞장서온 강미리 홀무용단 공연.

**프로그램**  
 침수무, 논개살풀이춤, 진주교방굿거리춤, 한량무, 춤 본II, 쟁강춤, 소고춤, 진도북춤  
 · 총예술감독/강미리(부산대학교 교수)  
 · 객원출연/김정선  
 · 반주/전성호, 성현우, 최재근, 금동훈, 이종철

오페라 '춘향전'

6월 6일 수요일 오후 4:00,  
 7일-8일 목-금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VIP 15만원 · R석 10만원 · S석 7만원  
 A석 5만원 · B석 3만원  
 문 의 | 부산오페라단(1644-1835)



우리 정서에 맞는 가사와 서정적인 멜로디로 사랑받아 온, 국내 최고의 작곡가 장일남의 창작오페라 '춘향전' 부산초연 무대.  
 새로운 무대연출과 화려한 무대, 국내 최고의 성악가와 대규모 오케스트라, 합창단

이 출연해 환상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 예술감독/전연숙 · 연출/김성경
- 지휘/김봉미
- 연주/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 합창/동아콘서트라이어
- 출연/김경희, 이재란, 김현애(춘향), 김경, 김화정, 홍지형(이도령) 외

**해운대문화회관 목요일상설공연 '끌림'**

매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균일 7천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해운대문화회관이 매주 목요일 다양한 장르의 무대로 관객과 만나는 목요일상설공연 '끌림'.  
· 7일 흥노경의 아름다운 재즈  
· 14일 들리는 교과서 보이는 음악회

- 21일 옛 樂人 Story's-가야의 노래
- 28일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I♥Classic'

**아트카페 움 목요일음악회**

매주 목요일 오후 8:00 아트카페 움  
입장료 | 무료  
문 의 | 아트카페 움(557-3369)

**7일 (사)이지무스오페라단 '코지 판 투테'**



남녀 간의 신뢰와 사랑을 주제로 펼쳐지는 모차르트 희극오페라 '코지 판 투테'.  
· 출연/소프라노 김영지, 김정현, 윤현주, 테너 조동훈, 바리톤 박종준, 조성빈

**14일 두 남자의 이야기...그 두 번째**

피아니스트 김병기, 윤재웅이 마련하는 이야기가 있는 무대로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을 비롯해 영화음악, 탕고 등을 들려준다.

**21일 러블리 프로포즈 콘서트**

영국왕립음악원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피아니스트 현미경의 러블리 콘서트.

**프로그램**

드뷔시/베르가마스크 모음곡 중 '달빛'  
리스트/사랑의 꿈  
슈만/어린이 정경 중 '꿈' 등 수곡

**28일 해피니스앙상블 콘서트**

동아대학교와 이태리 감뽀바소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서울시오페라단 단원으로 있는 테너 허동권과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인제대학교 대학원에 재학중인 바리톤 이태영이 마련하는 해피니스앙상블 콘서트.

**벅스코 오디토리움 개관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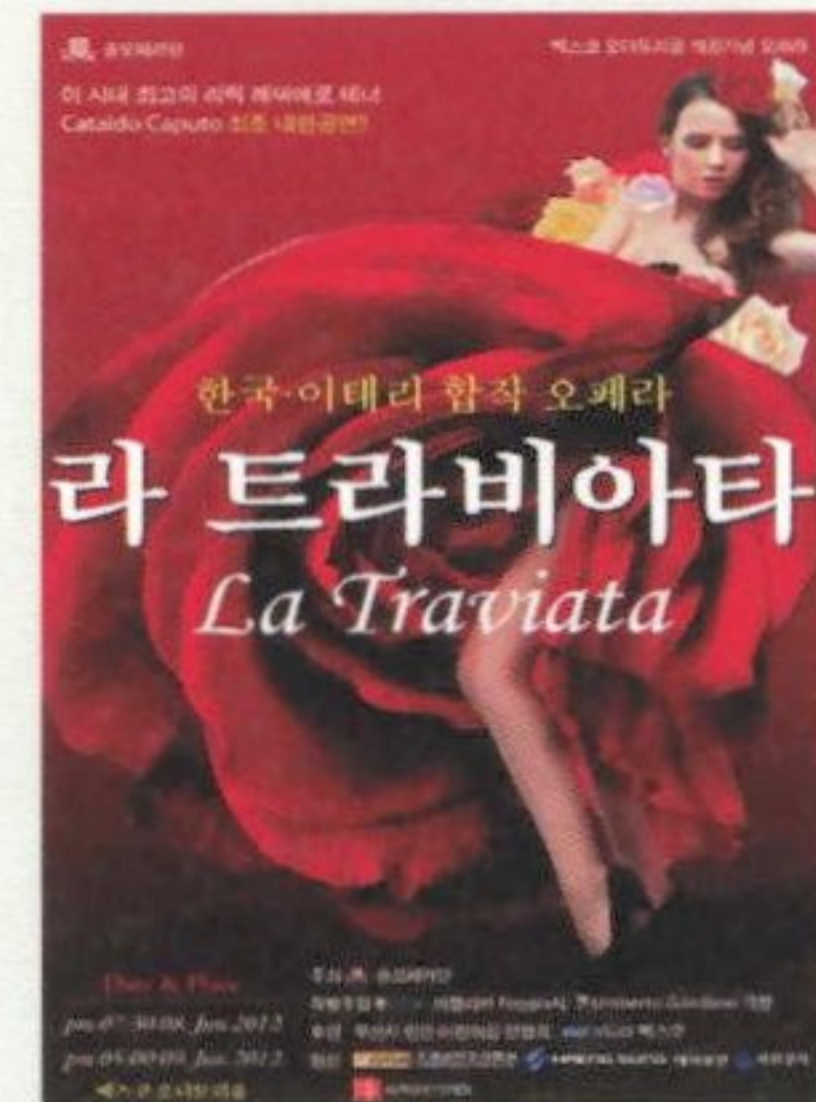
**한국·이태리 합작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6월 8일 금요일 오후 7:30, 9일 토요일 오후 5:00  
벅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 VIP석 20만원 · R석 15만원 · S석 10만원  
A석 8만원 · B석 5만원 · C석 3만원  
문 의 | 솔오페라단(1544-9373)

이태리 움베르토 조르다노극장과 솔오페라단이 아심차게 선보이는 합작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YAMAHA · KAWAI · STEINWAY  
PIANO DRECT IMPORT  
TUNNING & REPAIRING  
PIANO TECHNICIAN  
**CHO, HYUN SEOK** R.P.T.  
INTERNATIONAL REGISTERED PIANO TECHNICIAN  
(국제자격 피아노조율사)  
NATIONAL FIRST LEVEL PIANO TECHNICIAN  
(국가자격 1급 조율사)  
THE DEPARTMENT OF MUSIC COLLEGE OF ARTS,  
PUSAN NATIONAL UNIVERSITY  
(부산대학교 전속 조율사)  
STEINWAY PIANO 기술연수 수료  
Tel. 051-553-4277  
051-753-8963  
H.P. 010-9003-8963



이 시대 최고의 리릭 레지에로 테너 Cataldo Caputo 최초 내한공연으로, 최고의 성악가들이 감동의 무대를 펼친다.

- 지휘/잔냐 프라타
- 연출/보리스 스테트카, 김영미

- 예술총감독/김영미
- 출연/마르타 브리비오, 김유진, Cataldo Caputo, 루치아노 미오토, 조현수, 파트리치아 쉬볼레토, 다리오 디 비에트리, 윤풍원 외

**바이올리니스트 조미혜의 소중한 음악이야기 Part 2 'The Romantic'**

6월 8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3만원 · 학생 1만원  
문 의 | 한국문화기부협회(864-1901)



동덕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글린카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앙상블 콘틴토 리더, 부산카머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조미혜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는

- 음악회.  
'로망스'를 주제로 한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박필은 · 클래식기타/고충진  
· 해설/박광식

## 을숙도문화회관 금요일해피콘서트

### 우드윈드앙상블 with Korea Wind Consort

6월 8일 금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12~3)

플루티스트 조성철, 오보이스트 이연숙, 클라리네티스트 윤두현, 바수니스트 장정호, 호른니스트 임승범으로 결성된 Korea Wind Consort가 들려주는 목관앙상블의 밤.

#### 프로그램

모차르트/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  
 스트라우스/아넨폴카 작품 117  
 드로르작/슬라브 춤곡 등

## 제5회 황남용 클라리넷 독주회

### 드뷔시 탄생 150주년 기념

#### 'Debussy & French Art'

6월 9일 토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 의 | 황남용(010-8007-8087)



영남대학교 기악과와 독일 부퍼탈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클라리넷콰이어 악장, 부산현대음악앙상블 단원, 경남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황남용 독주회.

#### 프로그램

쇼송/안단테와 알레그로  
 뿔랑/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드뷔시/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소품 등  
 · 피아노/김진희

## 동래문화회관 토요일해피콘서트

6월 9일(토), 23일(토) 오전 11:00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 일반 2천원 · 학생 1천원  
 문 의 | 동래문화회관(550-6611)

매월 2, 4주 토요일 오전에 마련되는 동래문화회관 토요일해피콘서트.

## 9일 Harmony in Love

로마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동양인 최초로 이태리 국제성악콩쿠르에서 1등상을 수상한 소프라노 고예정과 그의 제자들이 들려주는 사랑의 하모니. 여우이야기, 고양이 이중창, 밤의 여왕 아리아, 아베마리아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23일 싱그러운 선을 속으로

부산지역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들로 구성된 드림챔버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가족음악회. 캐논, G선상의 아리아, 작은별 변주곡, 유모레스크, 동요 메들리 등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 동성화학과 함께 하는 마티네 콘서트

### 조운범의 시네마콘서트 시리즈2-존 윌리엄스

6월 12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www.dureraum.org)

영화 '스타워즈' 'E.T' '썬더러 리스트' 등으로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한 영화음악가 존 윌리엄스의 음악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시네마콘서트 시리즈 두 번째 무대. 줄리어드음악원 예비학교 및 대학과정, 맨하탄음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유라시안 오케스트라 심포니 수석, 경기도립심포니 객원수석으로 있는 플루티스트 정유미가 협연한다.  
 · 연주/과르티엑스

##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6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519-5651)

## 13일 피아니스트 김성숙, 안준희의

### 프로젝트 콘서트 '백야의 노래'

이화여자대학교 피아노과와 미국 위스콘신주립대를 졸업하고 현재 동덕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김성숙과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프랑스 에콜 노르말 고등음악원, 베르샤유 국립음악원, 메쓰 국립음악원을 졸업



김성숙

안준희

하고 부산반주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안준희가 함께하는 프로젝트 콘서트. 집중탐구 시리즈 6번째 무대로, 글린카, 쇼스타코비치, 라흐마니노프 등 러시아 작곡가들의 작품을 들려준다.  
 · 찬조출연/바리톤 최대우 · 해설/박진홍

## 20일 제12회 아르스 현악4중주단 정기연주회

바이올리니스트 조현미, 관남희, 비올리스트 이성호, 첼리스트 하경희로 구성된 아르스 현악4중주단 정기연주회.

#### 프로그램

비발디/현악4중주 마단조  
 드보르작/피아노5중주 가장조 작품 81  
 · 특별출연/피아니스트 조현선 · 해설/김병기

## 27일 정소영 피아노 리사이틀 '그리움'

독일 쾰른국립음대와 뮌헨국립음대에서 수학하고 발레타 국제콩쿠르 1위, 파도바 국제콩쿠르 2위를 수상한 피아니스트 정소영 독주회.

#### 프로그램

라흐마니노프/악흥의 한때 작품 16  
 슈만/아라베스크 작품 18  
 브람스/소나타 작품 5  
 · 해설/윤성원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62회 정기연주회 상생 2012 환경생태 음악회

6월 13일 수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3)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국악선율로 전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환경생태음악회 '상생 2012'. 국립부산국악원 예술감독인 이정필이 객원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25현가야금 연주자 김혜진, 클라리네티



스트 손영채, 소리꾼 최윤영, 김세윤, 이은혜의 협연으로 자연과 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창작곡을 부산초연으로 들려준다.

**프로그램**

이준호/국악관현악 '산'

박범훈(편곡/박위철)/25현가야금과 클라리넷을 위한 메나리

황호준/서도민요연곡 '느리개타령, 금다래타령, 싸름타령, 풍구타령'

김기범(편곡)/세계민요기행

강상구/관현악 '광야의 숨결'

· 객원지휘/이정필(국립부산국악원 예술감독)

· 협연/김혜진(25현가야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손영채(클라리넷, 메소드 클라리넷양상블 지도교수), 최윤영(서도민요, 국립부산국악원 단원), 이은혜(서도민요, 국립부산국악원 단원), 김세윤(서도민요, 국립부산국악원 단원)

**신명 김덕수 명인 초청 행복나눔콘서트  
김덕수패 사물놀이**

6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3만원 · 학생 1만 5천원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71~3)



전 세계 50여개국에서 5,500여회가 넘는 국내외 공연을 통해 '한국을 알리는 최고의 민간대사'로 우리의 신명,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려온 김덕수 명인이 이끄는 김덕수패 사물놀이 초청 행복나눔콘서트.

· 연주/김덕수(예술감독), 홍윤기(장구), 방성혁(북), 문상준(꽝과리), 안병진(징, 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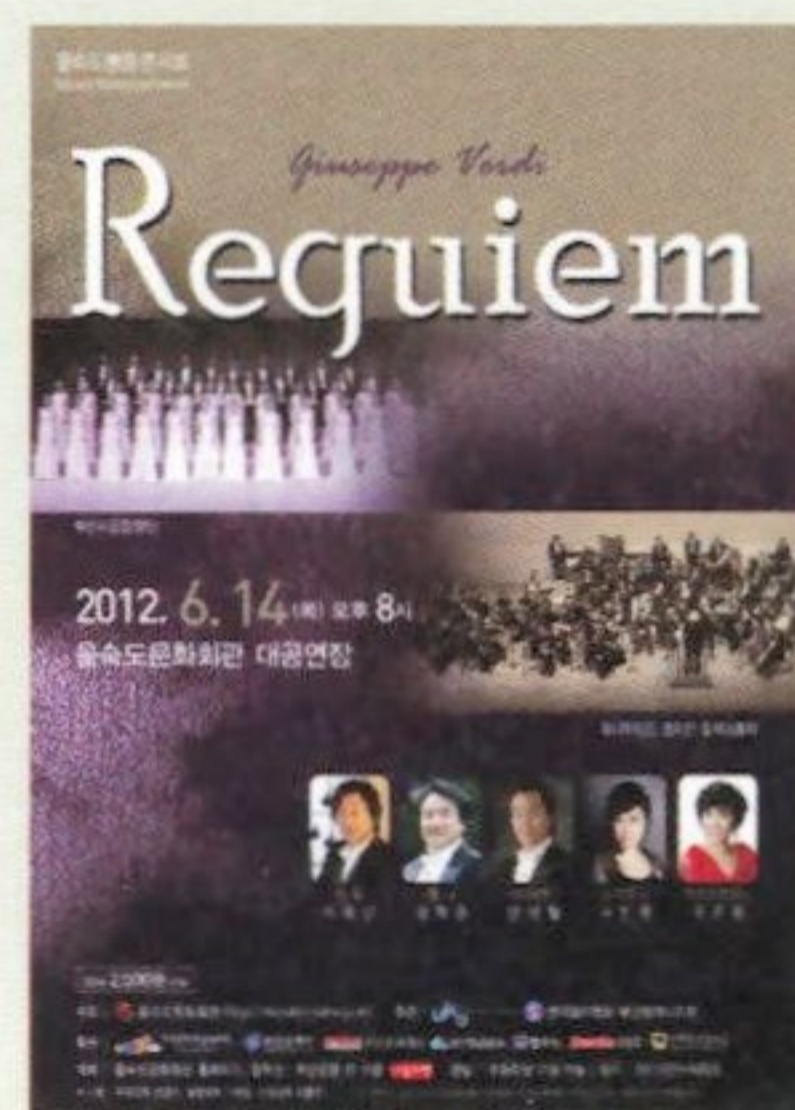
**울속도 명품콘서트 베르디 '레퀴엠'**

6월 14일 목요일 오후 8:0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울속도문화회관(220-5805)



국내외 우수연주자들의 협연 및 유명 작곡가들의 명곡을 들려주는 울속도 명품콘서트 6월 무대.

2012년 마련하는 세 개의 합창대곡시리즈 중 첫 번째 무대로,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이동신이 지휘하는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와 부산시립합창단, 테너 강학운, 베이스 안상철, 소프라노 구민영, 메조소프라노 구은정의 협연으로 진혼미사곡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받는 베르디의 '레퀴엠' 전곡을 들려준다.

**부산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

**오페라를 읽어주는 남자 시리즈 | '카르멘'**

6월 14일(목), 28일(목) 오후 7:3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 VIP 5만원 · 일반 3만원

문의 | 부산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 (070-7727-0188)

높은 기량을 갖춘 최고의 성악가들과 부산메트로폴리탄 팝스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마련하는 오페라 갈라무대 '카르멘'.

정열의 집시여인 카르멘과 순진하고 고지식한 군인 돈 호세의 비극적 사랑을 그린 비제의 걸작 오페라 '카르멘'.

멘'의 주요 아리아를 지휘자 김병수의 상세한 해설로 들려준다.

· 지휘, 해설/김병수(상임지휘자)

· 연주/부산메트로폴리탄팝스오케스트라

· 출연/박소연, 허동권, 장은영, 윤오건(6/14일), 윤지영, 양승엽, 정혜리, 박종준(6/28일)

**동래문화회관 토요일상설공연**

**뉴프라임오케스트라 해설이 있는**

**'토요스쿨데이콘서트'**

6월 16일 토요일 오전 11: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의 | 동래문화회관(550-6611)



동래문화회관 상주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뉴프라임오케스트라가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맞춰 청소년들의 정서순화를 위해 마련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프로그램**

모차르트/피가로의 결혼 서곡

프로코피에프/관현악적 옛 이야기 '피터와 늑대'

**제69회 한낮의 유:콘서트**

6월 19일 화요일 오전 11:00 롯데호텔부산 아트를홀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국제신문사(500-5222)

여자보다도 고운 미성의 목소리로 뮤지컬 렌트, 왕의 남자, 갬블러, 헤드워, 그리고 최근 락뮤지컬 모차르트까지

**● 국제수준 어쿠스틱 음향 연주홀 녹음홀 ●**

**글로벌아트홀**

CD 녹음 / DVD 녹화 유학오디션용 / 국제콩쿨용	연주회 / 클래스발표회 / 음향세미나 / 행사 독창회 독주회 실내악 오케스트라 국악연주회
현재 미국 명문음대 100%의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음 (CD 및 DVD오디션에서 합격사례) 피아노 : 송정민(이스트만음대 전액장학생), 엄유정(텍사스 어스틴음대) 첼로 : 김미나(줄리어드 합격 및 론지 장학생)/바이올린 : 이슬기(피바디음대) 성악 : 김지현 김혜원(뉴잉글랜드콘서바토리 합격) 외 다수	피아노 성악 현악 관악 클래식기타 작곡 가야금 독주 및 합주 연주회 실황 녹음 녹화 가능
<b>개인 음반 / 합창단 합주단 기념음반 / 교회찬양대 기념음반 녹음 및 녹화는 예약하셔야 합니다</b>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 48번길 162 글로벌아트홀(온천3동 1243-21) ☎ 051-505-5995 Fax. 051-505-5935



다양한 무대에 서온 뮤지컬 배우 김호영과 뮤지컬이라는 예술적 장르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대중들에게 알리고 있는 뮤지컬팀 '뮤즈' 초청무대. 뮤지컬 드림위즈, 브로드웨이 42번가, 갬블러, 명성황후, 헤드윅, 맘미아 등 유명 뮤지컬 넘버곡을 들려준다.

## 우크라이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초청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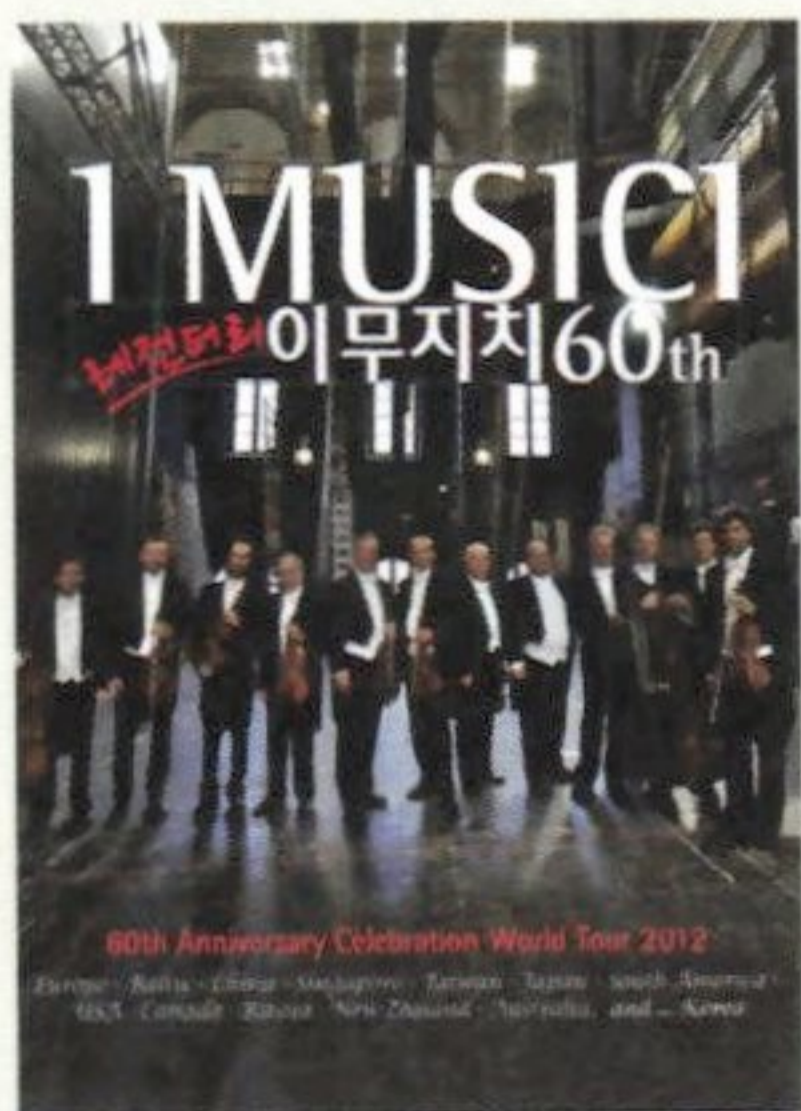
6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VIP석 7만원 · R석 5만원  
 S석 3만원 · A석 2만원  
 문 의 | (사)아지무스오페라단(0707-522-4649)

1932년 키예프 국립음대 출신 연주자들로 창단된 후 우크라이나의 대표적인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해온 우크라이나 흐멜리니츠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초청음악회.  
 · 지휘/세르게이 레오노프  
 · 협연/소프라노 올레나 네오노바, 허미경, 테너 조윤환, 바리톤 강경원, 클래식기타리스트 고충진

## 레전더리 이 무지치 60주년

### 월드투어 부산공연

6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VIP석 12만원 · R석 10만원  
 S석 8만원 · A석 6만원  
 문 의 | 시민회관(630-5200)



완벽한 하모니와 강약의 절묘함으로 관객을 사로잡는 실내악의 전설 '이 무지치' 결성 60주년 기념 월드투어 부산무대. 1952년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음악원을 졸업한 12명의 연주인들이 모여 결성한

이 무지치는 그동안 당대 최고 연주자들을 거치면서 지난 60여년간 최고의 실내악단으로 사랑받아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젊은 악장 안토니오 안셀미의 거침없는 열정과 신선한 재해석으로 탄생된 이 무지치의 대표곡인 비발디 '사계'를 비롯해 이 무지치 결성 60주년을

기념하는 헌정곡들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마르코 엔리코 보시/골도니아니 간주곡  
 엔니오 모리코네/모리코네 스위트 '이 무지치 60년을 기념한 특별편곡'  
 김한기/이 무지치 60주년 헌정합주곡 '아리랑'  
 루이스 바칼로프/이 무지치 60주년을 기념한 합주합주곡 비발디/사계

## 뉴프라이미오케스트라 연주회

6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7천원 · 학생 5천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71~3)



부산성악아카데미, 벨리씨미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정혜리와 부산가톨릭음악교육원 교수로 있는 테너 장진규 협연으로 들려주는 뉴프라이미오케스트라 연주회.  
 · 지휘/임준오

## 청소년 렉처콘서트 '사랑에 빠진 악성'

6월 23일 토요일 오전 11: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05)

청소년들이 클래식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유명 클래식곡을 상세한 해설과 함께 들려주는 청소년 렉처콘서트 6월 무대. 베토벤 교향곡 시리즈로 마련되는 2012년 네 번째 무대로, 베토벤 교향곡 제4번과 작곡가 황선영의 창작곡 'Sea Song for Orchestra'를 들려준다.  
 · 연주/T.I.F 오케스트라(지휘/박광식)

## 지역 주민과 부산시민이 함께하는 제54회 글로벌 행복음악회

6월 24일 일요일 오후 2: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자율(이웃돕기 성금)  
 문 의 | 글로벌아트홀(505-5995)



글로벌아트홀이 지역민과 부산시민들의 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마련하는 행복음악회.

##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기획연주 시리즈 2 Guten Tag, Maestro Beethoven!

6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 의 | 권준(010-8717-7963)

서울대학교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짜르테움, University of Cincinnati(연주학박사)를 졸업하고 이태리 Marsala 국제콩쿠르, CCM Concerto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권준의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기획연주 시리즈 두 번째 무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작품 31 중 1번, 2번, 3번을 들려준다.

## 제23회 이건음악회

### 베를린 필하모닉오케스트라 브라스앙상블 초청연주회

6월 28일 목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무료(www.eagon.com, www.eagonblog.com에서 신청)  
 문 의 | 이건창호(032-760-0999)



매년 세계적인 연주자들을 초청, 수준높은 클래식 무대를 열어온 이건창호의 '이건음악회' 2012년 무대. 지휘자 카라얀 시대를 거치며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있는 베를린 필하모닉오케스트라 브라스앙상블이 르네상스와 바로크음악에서부터 현대음악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쉽표, 긍정을 부르는 음악**

6월 28일 목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519-5661~3)

음악치료사 강현정과 음악평론가 탁계석의 친절한 해설로 음악에서 긍정의 의미를 찾아보는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6월 무대.

- 출연/소프라노 김수현, 박준영, 메조소프라노 나희영, 테너 정중순, 브라스밴드 퍼키앤브래씨
- 피아노/황다운

**동래문화회관 목요국악콘서트**

6월 28일 목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 일반 2천원 · 학생 1천원  
문 의 | 동래문화회관(550-6611)

젊은 여성 국악연주자들로 구성된 국악실내악팀 '동백'이 마련하는 목요국악콘서트. '조각, 달 그리고...' 라는 주제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신명나는 무대를 펼친다.

**2012 매구놀이마당 정기공연**

6월 29일 금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매구놀이마당(327-7100)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6호 부산농악의 상쇠 강신일을 중심으로 전통국악과 풍물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매구놀이마당 2012년 정기공연.

**프로그램**

성주굿, 사물놀이를 위한 국악관현악 '신모듬', 창작타악모듬북 '락천지(樂天地)', 국악관현악 OST & 민요, 풍물판굿

**사진이 있는 작은 음악회  
임수연 피아노 독주회**

**'재미있게 듣는 2021 피아노 음악'**

6월 29일 금요일 오후 7:00 고은사진미술관 본관  
입장료 | 균일 1만원(후원참석비, 사전 예약)  
문 의 | 고은사진미술관(010-4781-5959)



프랑스 파리국립고등음악원과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근현대음악 전문연주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임수연 독주회. 임수연은 지난 2006년부터 '임수연의 Modern, Con-

temporary' 라는 독주회 시리즈를 통해 20세기 주요 작곡가들의 음악을 한국 초연하는 등 한국 음악계에 20세기 피아노음악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다.

**김미현 피아노 리사이틀 'Fantasy's Night'**

6월 30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서울대학교와 미국 피바디 음대, 오리건음대를 졸업하고 부산과 서울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미현 독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바흐와 모차르트, 베토벤, 슈만의 곡을 들려준다.

**Play**

**2012 뮤지컬 코미디 '넌센스2'**

1월 1일(일)-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 서면  
입장료 | R석 4만 5천원 · S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주)WSM(1566-5490)



지난 20년간 500만 관객을 동원하며 뮤지컬 대중화에 앞장서온 뮤지컬 코미디 '넌센스2'.

자선쇼를 준비하는 못말리는 다섯 수녀들의 화끈한 춤과 노래, 코믹한 연기가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낸다.

**윤형빈쇼 with Friend**

1월 1일(일)-OPEN RUN 매주 토-일요일  
오후 3:00, 5:00, 7:00 윤형빈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윤형빈소극장(610-1003)

부산 최초의 개그전용관인 '윤형빈 소극장'에서 매주 주말 마련하는 개그쇼.

개그맨 '왕비호' 윤형빈과 '감수성 내시' 김영민이 밴드 공연과 개그를 접목한 뮤직개그 퍼포먼스를 펼친다.

www.wendl-lung.co.kr

1910년부터 100여년간 제작된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음악의본고장 오스트리아 벤들·룽 피아노**

**Wendl & Lung**

The early years

주 | 벤들·룽 피아노 코리아  
부산시 남구 대연4동 965-8. 문화회관 옆 TEL : 051-441-7474

## 뮤지컬

### ‘언제는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나요’

2월 14일(화)~9월 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2:00,  
6:00(월요일 공연없음) SM아트홀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의 | SM기획(1600-1602)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 주는 두 쌍의 연인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콘서트 뮤지컬.  
웃음과 감동이 있는 1부 무대에 이어 관객이 함께 참여하는 스탠딩 콘서트가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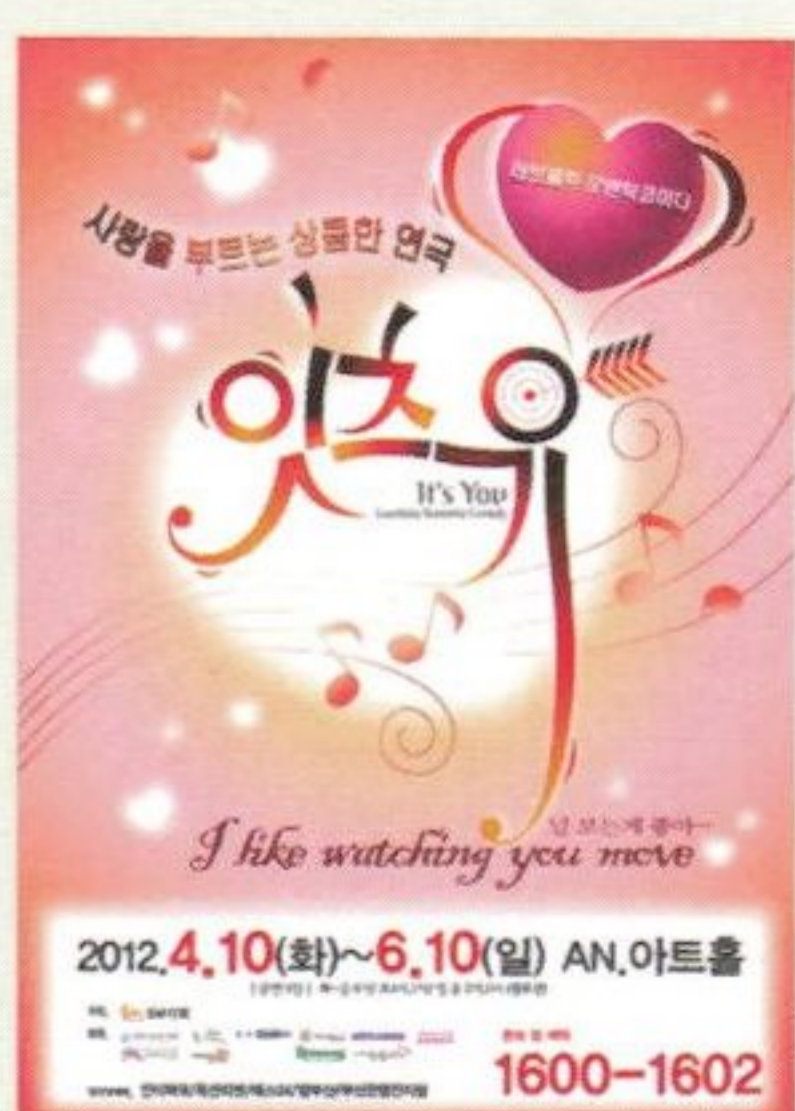
### 연극 ‘바쁘다 바빠’

2월 14일(화)~6월 24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SM아트홀 3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의 | SM기획(1600-1602)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개성만점 가족의 일상사를 통해 따뜻한 가족애를 그린 연극 ‘바쁘다 바빠’.  
타이트한 극의 구성과 빠른 전개, 시종일관 터지는 웃음 코드가 극의 재미를 더해준다.

### 연극 ‘잇츠유’

4월 10일(화)~6월 1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SM아트홀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의 | SM기획(1600-1602)



지역방송사 보도국을 배경으로, 특종을 쫓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건 속에 두 남녀의 서로 다른 사랑을 웃음과 감동으로 그려낸 연극 ‘잇츠유’.  
재미있고 사랑스러운 에피소드와 유행어가 살아있는 배우들의 연기가 극의 재미를 더해준다.

### 연극 ‘강풀의 순정만화’

4월 13일(금)~6월 3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초콜릿 팩토리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문의 | 초콜릿 팩토리(1577-5878)

순수한 직딩남 연주와 까칠 여고생 수영, 열혈고딩 강숙과 까칠한 도시여자 하경이 펼쳐는 유쾌한 로맨스가 따뜻한 감동으로 펼쳐지는 연극 ‘강풀의 순정만화’.

### 2012 죽여주는 이야기

4월 20일(금)~7월 22일(일) 화~목요일 오후 8:00,  
금요일 오후 5:00, 8:00, 주말 오후 3:00, 6:00  
(6/6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금요일 낮공연 1만 2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현대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자살’을 소재로, 죽음을 상품화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죽음마저도 눈감아버리는 현실을 풍자하면서 누구에게나 삶은 소중하다는 교훈을 던져주는 폭소 블랙코미디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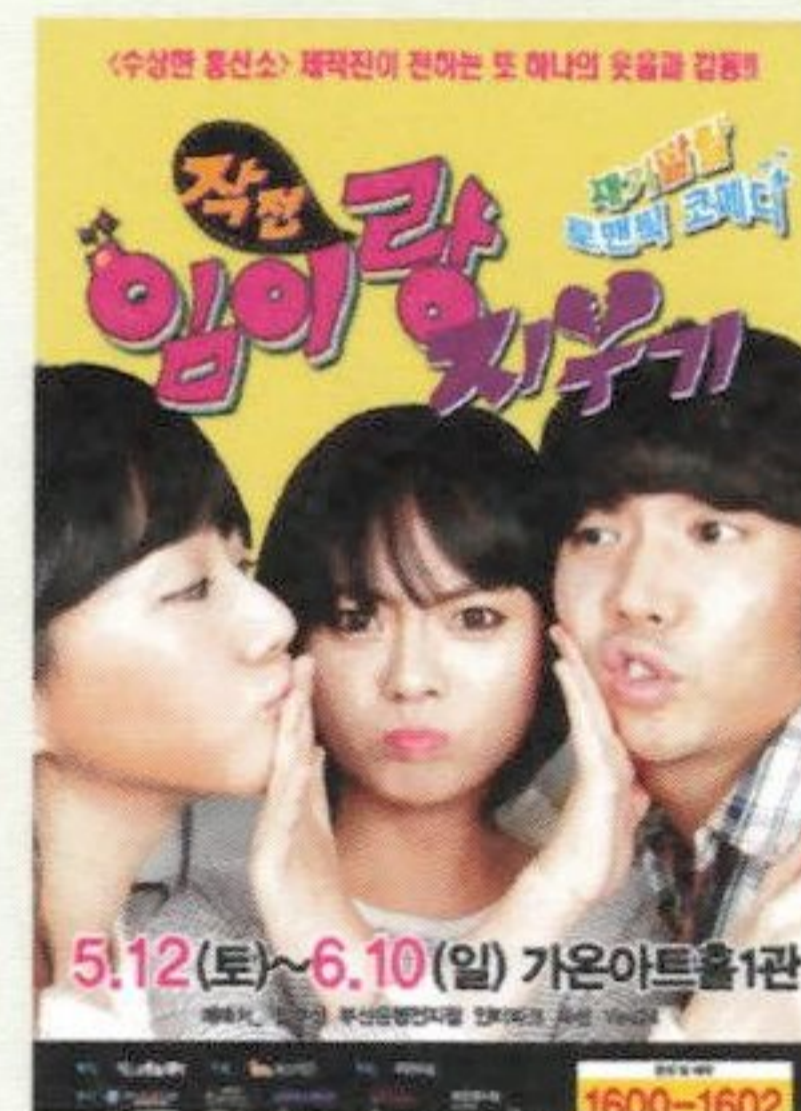
### 감동 로맨틱 연극 ‘러브 액츄얼리’

5월 4일(금)~6월 3일(화)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의 | SM기획(1600-1602)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랑의 감정은 어떻게 변하는 것일까. 100일 커플, 1000일 커플, 10년 커플을 통해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해가는 연인들의 모습을 그린 로맨틱극 ‘러브 액츄얼리’.

### 감동 로맨틱 코미디극 ‘작전! 임이랑지우기’

5월 12일(토)~6월 1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3:00  
(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의 | SM기획(1600-1602)



시간여행이 가능해진 2027년을 배경으로, 자신을 낳아 죽은 엄마 때문에 아빠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주인공 임이랑이 자신의 운명을 지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그린 감동 로맨틱 코미디극.

### 배우공동체 배우창고 9번째 정기공연 그 여자들 다시 통닭을 먹다

5월 18일(금)~6월 1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공휴일 오후 3:00  
(월요일, 5/28일 공연없음) 청춘나비아트홀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청춘나비 아트홀(070-8241-2560)



마을버스 운전사인 엄마와 새마을금고 직원인 딸 연수, 엄마와 자매처럼 지내는 통닭집 주인 정희, 매일밤 통닭 한 마리와 소주 한잔을 기울이며 하루를 마감하는 우리 이웃의 잔잔한 일상을 따뜻하게 그린 창작극.

· 작/강병헌 · 연출/양지웅  
· 출연/문성미, 서경화, 김지혜, 김하영, 박훈영, 김병철, 윤승호, 정영인

### 미스터리 스릴러극 ‘몽타주’

5월 18일(금)~7월22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4:00  
(5/28, 5/30, 월요일 공연없음) 용천지랄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 5천원·청소년 1만 5천원  
(예매시 30% 할인)  
문의 | 용천지랄소극장(625-0767)

아버지를 죽인 연쇄살인범을 쫓기 위해 천재적인 몽타주 화가로 성장한 서정민과 연쇄살인범 유홍준, 연쇄살인범으로부터 서정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강력반 형사 조상철, 서정민의 친오빠 서정훈의 치밀한 추리게임을 그린 미스터리 스릴러극 '몽타주'.

· 작, 연출/김세환

· 출연/박태수, 신현규, 최영무, 이태경, 한혜경

### 살고싶다, 그림처럼, 시처럼-부산

5월 23일(수)-6월 1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공휴일 오후 3:00 (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문 의 | 가마골소극장(1588-9155)

죽음에 직면한 순간 떠오른 잊고 살았던 가슴 아프고 애뒀했던 첫사랑을 통해 1980년대 암울했던 시대 속에 그림처럼 살았던 사람들의 아름다운 시 같은 이야기가 배우들의 즉흥 연기와 음악, 영상의 조화로운 구성을 통해 펼쳐지는 풍경극 '살고싶다, 그림처럼, 시처럼'.

· 작, 연출/양지웅

· 출연/김윤호, 최태익, 김미미, 이유경, 정원혁, 하치성, 강동석 외

### 리얼 버라이어티 코믹쇼 '미남선발대회'

5월 25일(금)-6월 24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콘테스트라는 새로운 스타일의 구성과 미남을 뽑는다는 독특한 소재로, 각기 다른 사연을 지닌 네 명의 후보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미남이 되기 위해 도전하는 리얼 버라이어티 코믹쇼 '미남선발대회'.

관객들이 직접 심사위원이 되어 실시간 문자투표로 그날의 대상을 정하는 관객참여형 연극이다.

· 작, 연출/이중훈

· 출연/심상희, 이재인, 정용락, 한상우, 조경훈, 문진성

### 대한민국 소극장 열전 IN BUSAN

5월 18일(금)-6월 17일(일) 금요일 오후 8:00, 토-일요일 오후 6:00(월-목요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공간소극장(611-8518)



부산 공간소극장과 대구극단 한울림, 전주극단 명태, 구미 문화창작집단 공터 다, 춘천극단 도모 등 다섯 곳의 지역극단이 교류 활성화와 관객들의 보다 다양한 공연 관람을 위해 마련한 '대한민국 소극장 열전 IN BUSAN'

### 6월 1일(금)-3일(일) 극단 명태 '안녕, 오아시스'

즐거워야 할 크리스마스 전날, 어둡고 쾌쾌한 마트 창고에 갇혀버린 4명의 사연많은 주인공들을 통해 결코 놓칠 수 없는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안녕, 오아시스'.

### 6월 8일(금)-10일(일) 극단 도모 '동백꽃'

지난 2008년 강원도의 대표적인 작가 김유정 탄생 100주년을 맞아 춘천 관객들에게 첫 선을 보인 작품으로, 두 남녀의 풋풋한 사랑에 해학성을 가미해 소설 '동백꽃'에 색다른 재미와 생동감을 더했다.

### 6월 15일(금)-17일(일)

#### 문화창작집단 공터 다 '자살자 시즌 2'

청년 백수들이 꾸미는 좌충우돌 자살 소동극이 마음을 통해 펼쳐지는 이색 코미디극.

### 연극 '10F'

5월 31일(목)-6월 3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 LIG아트홀 부산  
 입장료 | 일반 2만원·학생 1만 4천원  
 문 의 | LIG아트홀 부산(661-8701)

건물 9층 위에 10층이 있는지 아니면 옥상이 있는지를 두고 옥식각신하는 두 인물을 통해 '10층'으로 상징되는 '이상' '꿈' 혹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게끔 하는 부조리 단막극 '10F'.

· 작/이재현

· 연출/조기왕

· 출연/이정비, 김정훈

### 극단 벅수골 '버려진 쌀통'

6월 1일 금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동래문화회관(550-6611)



버려진 쌀통을 두고 벌어지는 네 노인들의 믿기지 않는 일상을 통해 이기적이며 위선적인 세태를 풍자하는 통영극단 벅수골 '버려진 쌀통'.

· 연출/박승규

· 출연/이규성, 이상철, 박승규, 허동진

### 극단 자갈치 창단 26주년 기획공연 마당극 '수평선 행진곡'

6월 1일(금)-17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소극장 신명천지  
 입장료 | 일반 2만원·중고생 1만 5천원  
 문 의 | 극단 자갈치(515-7314)



일본 오사카 극단 메이 대표로 있는 김철의 원작을 각색한 극단 자갈치 마당극 '수평선 행진곡'. 일제 강점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풍운의 꿈을 안고 일본행을 택한 제주 젊은이의 사랑과 시대적 애환을 그린 작품이다.

· 원작/김철

· 각색/공동각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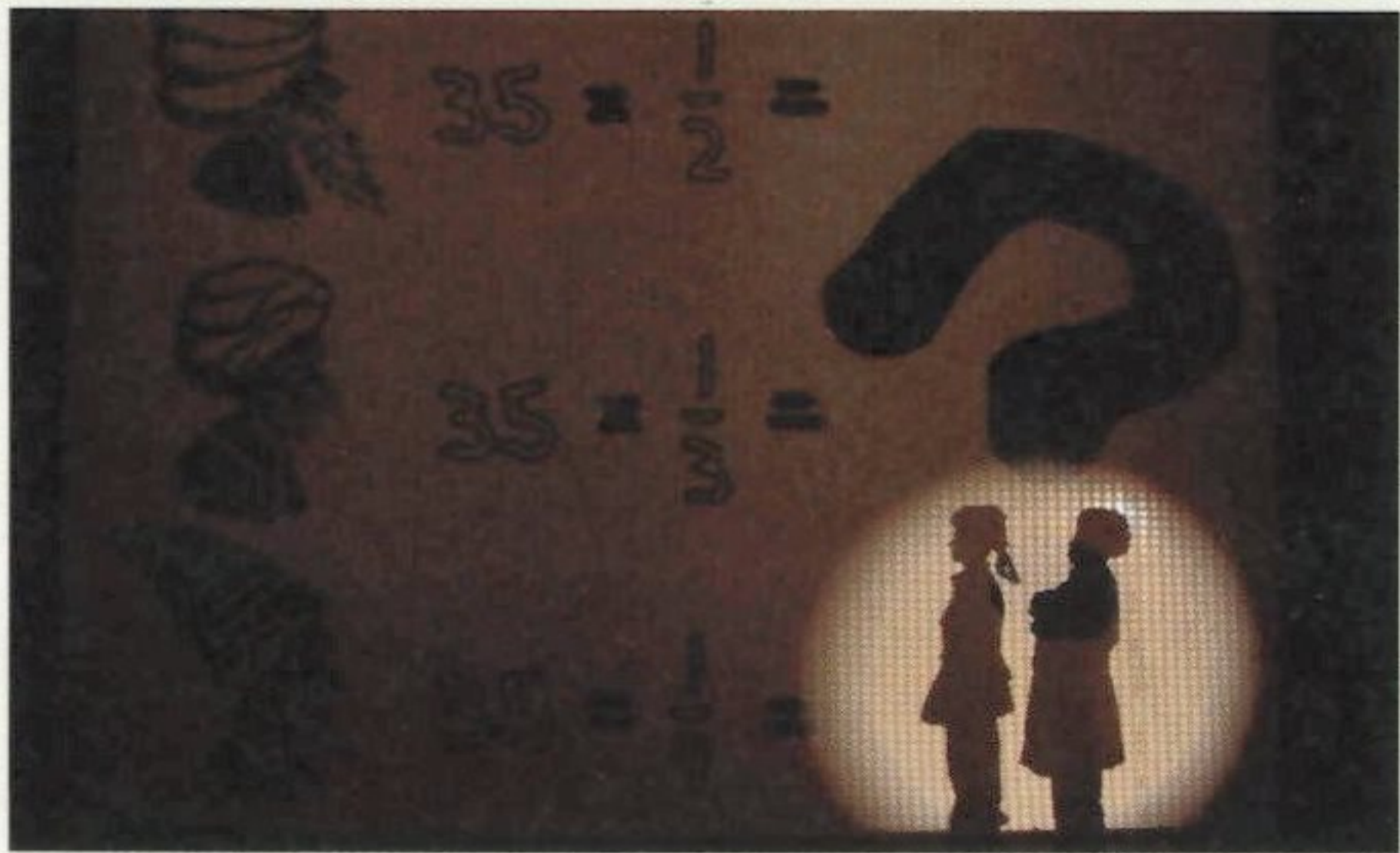
· 연출/전성호

· 무대/황지선

· 출연/김평삼, 손재서, 이해영, 최의덕, 황지선, 최연호, 김여진

## 그림자극 '이슬람수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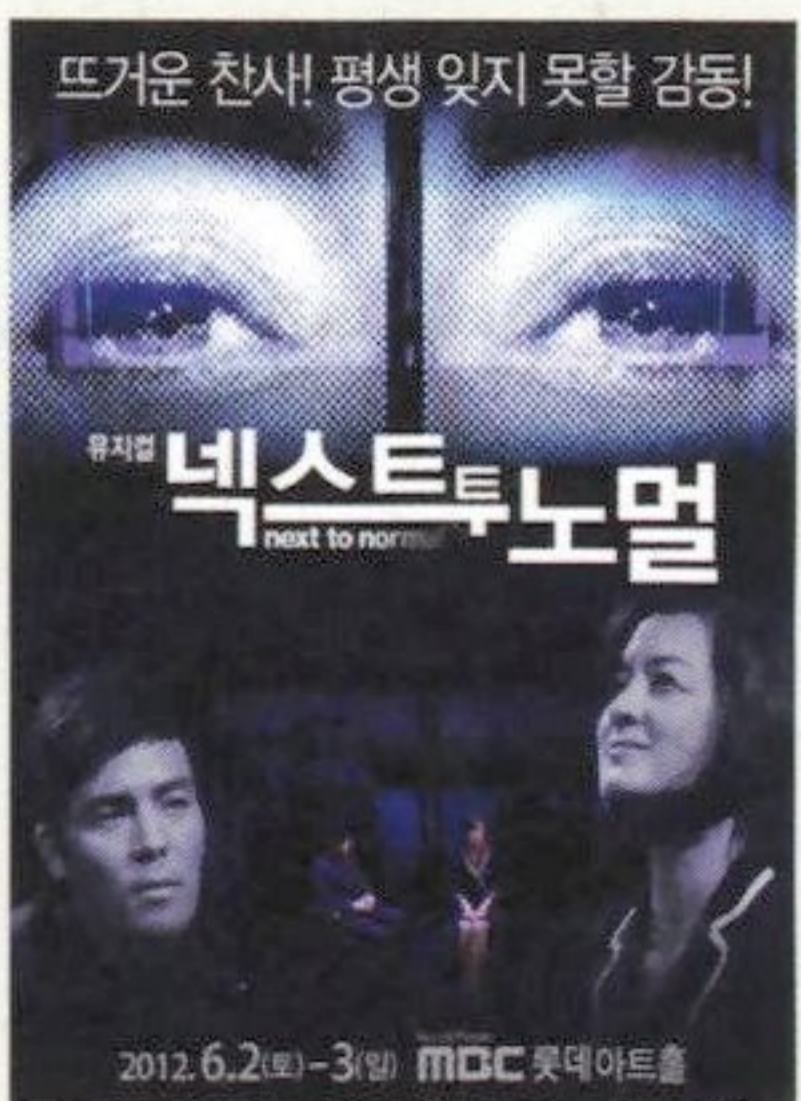
6월 2일 토요일 오후 3:00, 6: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온라인 예매시 학생 5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12~3)



소설 '셈도사 베레미즈의 모험'을 원작으로 한 '이슬람 수학자'는 13세기 아라비아의 셈 도사 베레미즈의 모험을 통해 수학의 역사와 딱딱한 수학개념을 재미난 우화와 퍼즐을 통해 풀어낸다.

##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

6월 2일 토요일 오후 3:00, 7:00,  
 3일 일요일 오후 2:00, 6:00 MBC롯데아트홀  
 입장료 | VIP석 10만원 · R석 9만원  
 S석 7만원 · A석 5만원  
 문 의 | MBC롯데아트홀(1688-8998)



과거의 상처를 안고 오랜 시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다이애나'와 그녀의 가족이 서로의 희생과 이해 끝에 비로소 화해에 이르게 된다는 브로드웨이 창작뮤지컬. 음악감독이자 연출가로 활동해 온 박칼린이 20년 만에 '다이애나' 역을 맡아 무대에 서며, 김지현, 남경주, 이정열 등 실력파 배우들이 관객과 만난다.

## 호러연극 '두여자'

6월 5일(화)-9월 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 의 | SM기획(1600-1602)

서늘한 반전이 있는 탄탄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시각, 청각 뿐 아니라 후각, 촉각, 미각 등 인간의 오감을 통해 지금까지 기존의 호러극에서 느껴보지 못한 색다른 공포를 선사하는 호러연극 '두여자'.

## 가족뮤지컬 '피노키오'

6월 6일 수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9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10일 일요일 오후 12:00, 2:00 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인터넷 예매시 1만원)  
 문 의 | 동그라미그리기(805-5355)



사람이 되고싶은 나무인형 피노키오의 신나는 모험이야기가 재미있는 마술쇼와 함께 펼쳐지는 가족뮤지컬.

## 가족뮤지컬 '벌거벗은 임금님'

6월 8일 금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9일 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10일 일요일 오후 12:00, 2:00  
 신세계 센텀시티 문화홀  
 입장료 | 균일 2만원(인터넷 예매시 1만원)  
 문 의 | 동그라미그리기(805-5355)

허영으로 가득찬 임금님을 골탕먹이는 안데르센 원작의 동화를 각색한 가족뮤지컬.

## 가족뮤지컬 '헨젤과 그레텔'

6월 16일 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17일 일요일 오후 1:00, 3: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플러스기획(080-071-1212)

가난 때문에 숲 속에 버려진 남매가 용기와 지혜로 숲속 마녀를 물리친다는 내용을 담은 그림형제의 동화를 각색한 가족뮤지컬.

## 어린이뮤지컬 '인어공주'

6월 16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17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VIP석 4만원 · R석 3만원 · S석 2만원  
 (예매시 30% 할인)  
 문 의 | 극단 예일(02-555-0822~3)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안데르센 동화를 각색한 가족뮤지컬. 왕자를 구하기 위해 마녀에게 목소리를 빼앗기고 육지로 나온 인어공주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 작, 연출/이광열

## 을숙도 연극열전 극단 맥 '대양07호'

6월 21(목)-24(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 5천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12~3)

침몰해가는 원양어선을 배경으로,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과 극한의 공포를 느끼는 인간의 심리를 코믹하게 그려낸 극단 맥의 '대양07호'.  
 · 작/김영근 · 연출/이정남

## 늙은 부부 이야기

6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3만원 · 학생 2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71~3)



청춘보다 아름다운 인생의 황혼 무렵에 찾아온 사랑이야기 '늙은 부부 이야기'. 서로 의지할 것이 없던 두 노인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펼쳐지는 아가자기한 사랑이야기가 정겨운 한옥집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중견 탤런트 사미자, 정종준이 주인공을 맡아 따뜻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 플라잉-부산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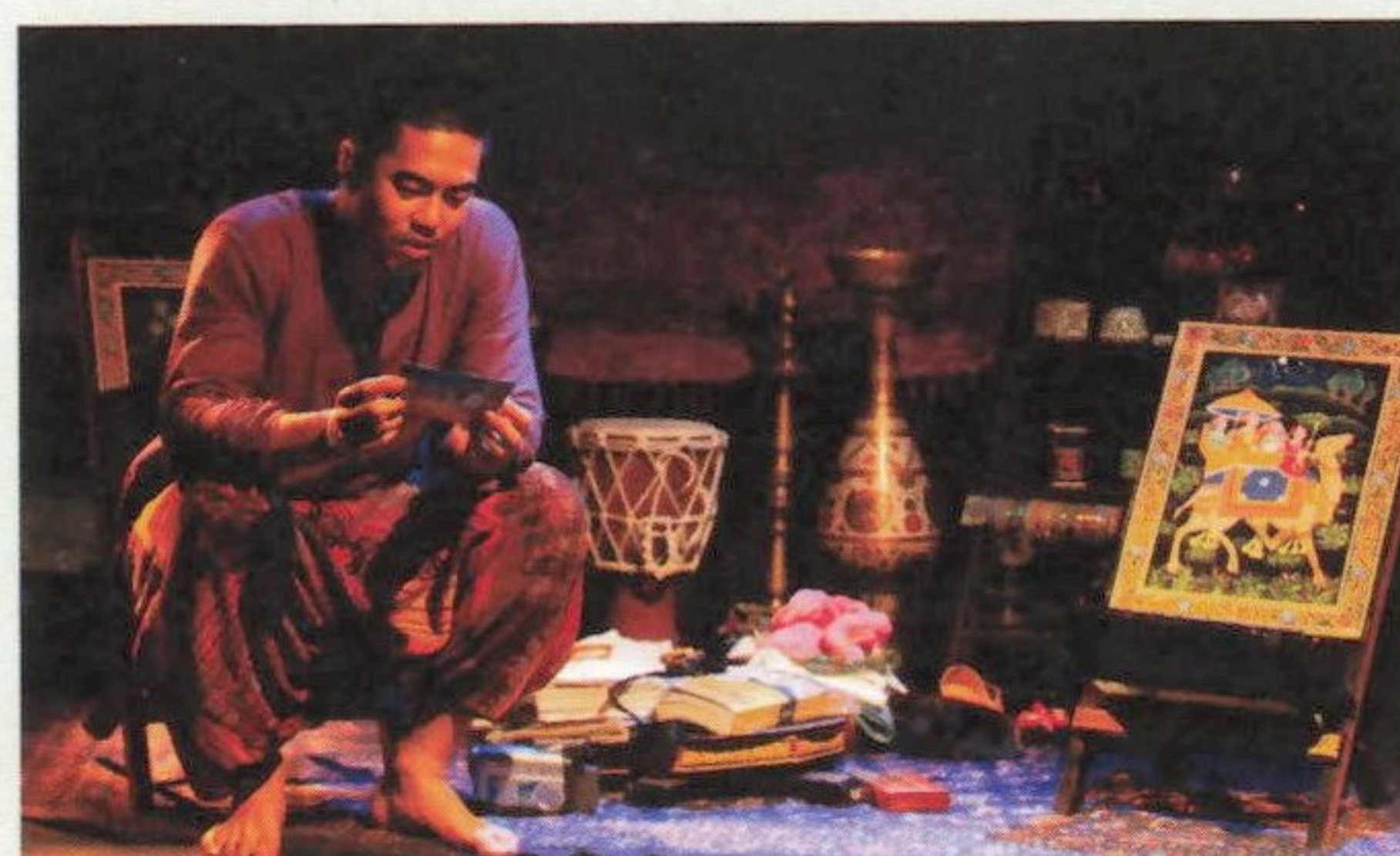
6월 29일 금요일 오후 8:00,  
30일 토요일 오후 7:30 벅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 R석 5만원 · S석 4만원  
문의 | KNN(1577-7600)



신라 시대의 화랑도를 현대화한 언버벌 퍼포먼스 '플라잉' 부산무대.  
퍼포먼스(Performance)와 스포츠(Sports)의 합성어인 '퍼포츠'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킬 만큼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킨 '플라잉'은 각 분야의 전문 배우들이 출연, 인간이 구현할 수 있는 최고 난이도의 무대를 선사한다.

### 연극 '인디아 블로그'

6월 29일(금)-7월 2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 3천원  
문의 | (주)문화공(1688-8998)



연출, 배우, 스텝이 함께한 인도여행에서 만난 다양한 상황과 사람, 그리고 풍경을 무대 위에 올려 관객들과 소통하는 본격 로드씨어터 '인디아 블로그'.  
사랑을 찾아 떠난 남자 혁신과 사랑을 잃어버린 남자 찬영의 인도여행을 통해 청춘의 사랑과 낭만에 대한 유쾌한 송가를 보여준다.  
· 작/플레이워드 · 연출/박선희  
· 출연/박동욱, 전석호

## Dance

### 제8회 부산국제무용제 '춤! 바다를 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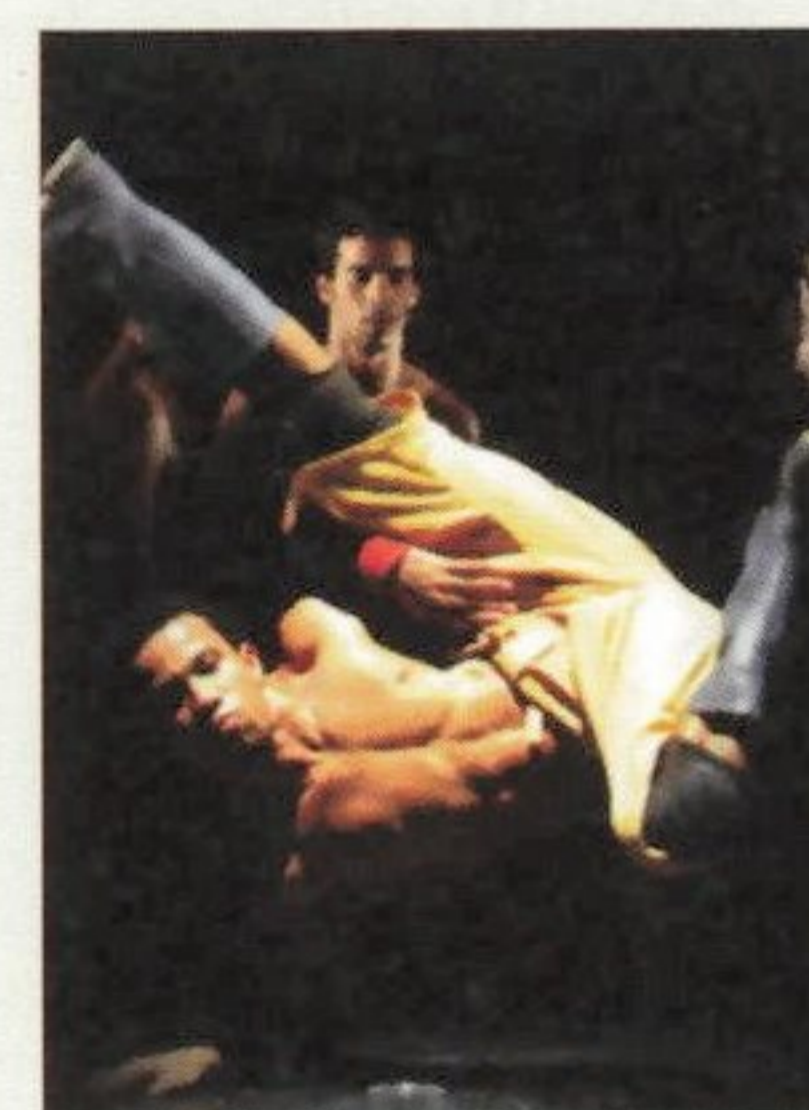
6월 1일(금)-3일(일) 해운대해수욕장 특설무대  
문의 | (사)부산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  
(890-2507, www.bidf.or.kr)



아름다운 부산 바다에서 펼쳐지는 2012 부산국제무용제. 올해는 '소통과 화합'을 주제로 세계 14개국 160개 팀이 참가, 공식초청공연을 비롯해 Arts Korea 21 국제안무가 육성공연, BID 춤아카데미, BID 워크샵, 댄스필름페스티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 컴퍼니 카피그 내한공연

6월 5일 화요일 오후 8: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6만원 · S석 5만원 · A석 4만원  
문의 | (재)영화의전당(780-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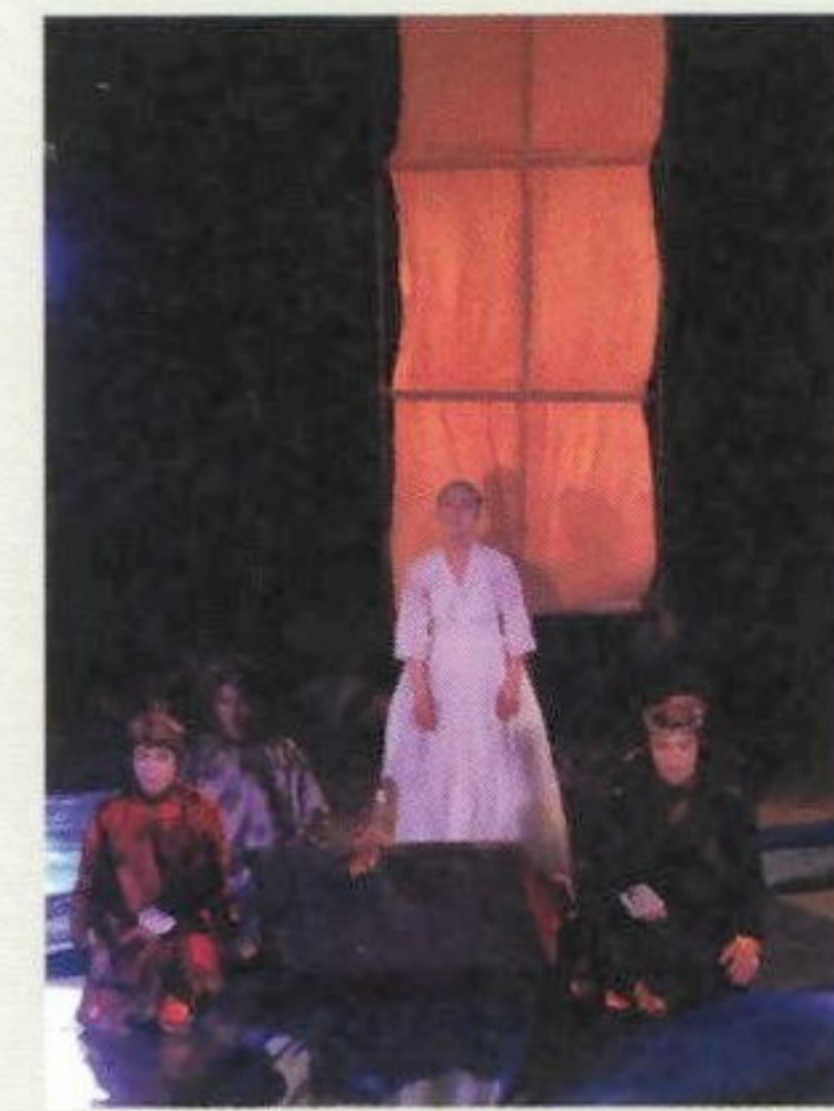


전 세계를 무대로 프랑스 힙합댄스의 예술성을 알리고 있는 프랑스의 최고 인기 힙합댄스 그룹 컴퍼니 카피그 부산공연.  
프랑스의 촉망받는 힙합 댄스 안무가 무라드 메르조키와 11명의 브라질 춤꾼들이 만나 저항할 수 없는 에너지와 리듬으로 빛어내는 이번 무대는 '지난 10년간 공연되었던 작품 중 가장 훌륭한 힙합 퍼포먼스'이자 '진정한 승리자'라는 평을 들으며 가는 곳마다 세계의 관객들을 열광시키고 있다.

### 2012 區문화회관 순회공연

#### 부산시립무용단 마당춤판 '효녀 심청'

6월 8일 금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15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29일 금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부산문화회관을 자주 찾을 수 없는 시민들을 위해 부산시립무용단이 마련한 2012 區문화회관 순회공연. 우리의 전통설화를 현대적으로 각색, 해학과 신명, 감동이 살아있는 마당춤판으로 탄생시킨 '효녀심청'을 선보인다.

로 탄생시킨 '효녀심청'을 선보인다.

- 안무, 구성/홍기태(수석안무자)
- 연출, 각색, 대본/오정국
- 출연/부산시립무용단 전 단원

### 을숙도의 '수요일은 춤'

6월 20일 수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12~3)



을숙도문화회관이 매월 셋째주 수요일 마련하는 신진무용가들의 새로운 도전무대 '수요일은 춤'.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재학생들이 출연, 1부 전통무용에 이어 2부에서는 창작무대를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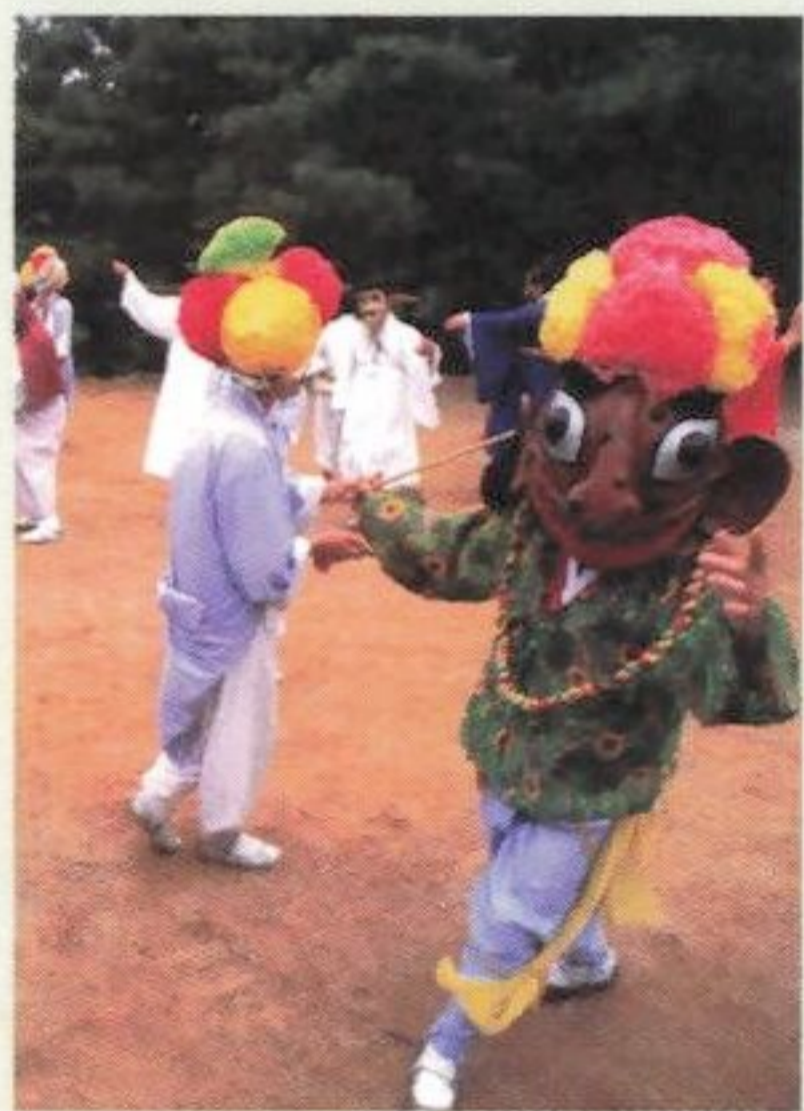
###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순조 기축진찬 의궤의 정재-효명세자의 꿈

6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균일 8천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1829년 순조의 아들인 효명세자가 순조의 사순(40세)과 등극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벌인 진찬을 그린 병풍 '기축진찬도병(己丑進饗圖屏)'과 왕실이나 국가 행사의 의식 절차 등을 기록한 의궤를 통해 조선시대 정재(궁중무용)를 재조명한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 BS부산은행과 함께하는 일요상설 전통민속놀이한마당

6월 24일 일요일 오후 12:30  
부산민속예술관 야외마당  
입장료 | 무료  
문의 | 동래민속예술관(555-00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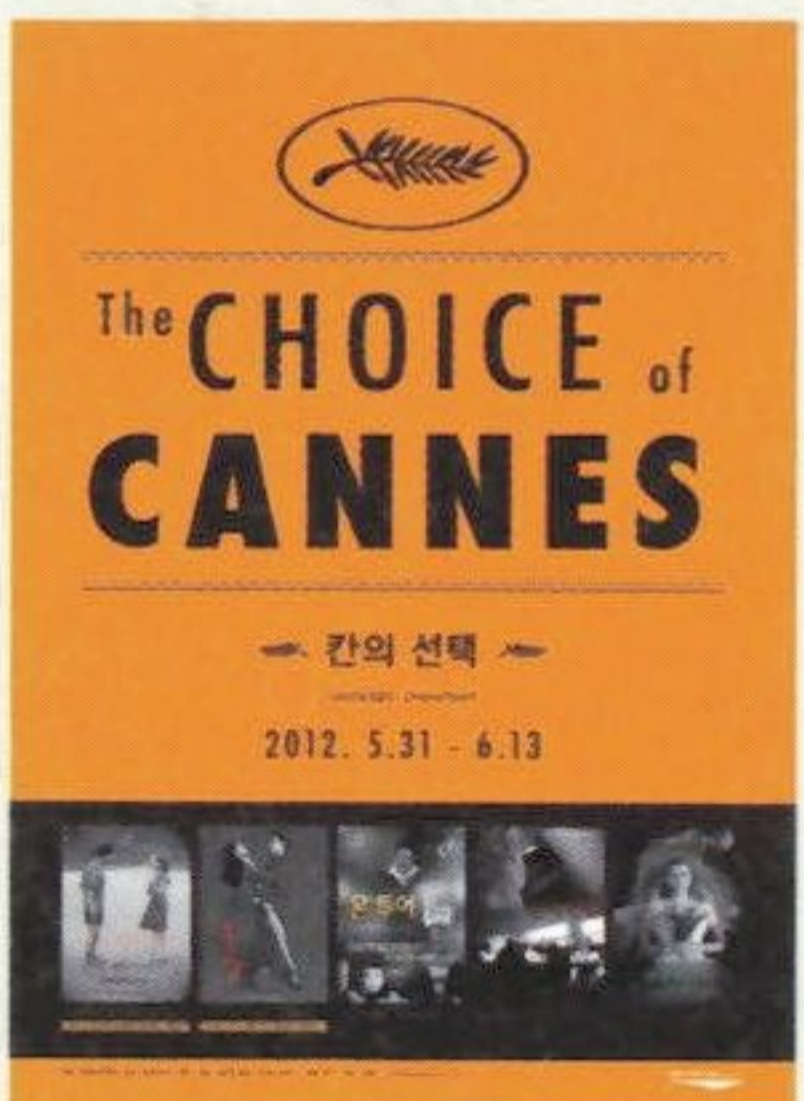


부산지역 무형문화재를 보존, 전승해온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가 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 동래야류를 비롯해 동래학춤, 동래지신밧기, 동래고무, 동래한량무 등 동래지역의 무형문화재 상설공연을 펼친다.

## Movie

### 시네마프리즘 3 - 칸의 선택

5월 31일(목)-6월 13일(화) 영화의전당 소극장  
(상영시간 홈페이지 확인)  
입장료 | 균일 6천원  
문의 | (재)영화의전당(780-6000)



최신 개봉작을 중심으로 관객의 관람폭을 다양화하여 영화의 새로운 스펙트럼을 보여주고자 기획된 시네마프리즘 세 번째 상영전. 2012년 칸영화제 경쟁부문 초청작인 임상수 감독의 '돈의 맛', 홍상수 감독의 '다른

나라에서'를 비롯 칸이 선택한 최고의 영화들이 상영된다.

### 시니어극장

6월 13일(수), 27일(수) 오전 10:00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입장료 | 만 60세 이상 시니어 무료(선착순 배부)  
문의 | (재)영화의전당(780-6000)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활동적인 시니어들을 위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시니어극장.

6월 13일에는 이소룡 주연의 '용쟁호투', 6월 27일에는 안성기 주연의 '아름다운 시절'을 상영한다.

### 짱구는 못말려 극장판 태풍을 부르는 황금 스파이 대작전

6월 16일 토요일 오전 10:30, 12:20, 2:10, 4:0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4천원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71~7)

TV애니메이션 시리즈로 어린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있는 '짱구는 못말려' 국내 세 번째 극장판 시리즈 '태풍을 부르는 황금 스파이 대작전'.

### 수영포럼 2012-영화, 혹은 정치의 기억

6월 22일(금)-7월 5일(목)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상영시간 홈페이지 확인, 월요일 상영없음)  
입장료 | 균일 6천원  
문의 | (재)영화의전당(780-6000)



생활과 의식의 내면에 스며 있는 정치, 혹은 성과 폭력이라는 영화적 관습에 숨겨진 정치를 감지하고 성찰하는 영화들을 상영하는 '수영포럼 2012'.

'소동의 120일' '파리에서의 마지막 탕고' '시계태엽 오렌지' 등 당대에 스캔들을 일으켰던 문제적 성, 정치 영화들과 로망포르노라는 싸구려 장르에서 일본의 국가주의와 싸웠던 와카마츠 코지 감독의 대표작들이 상영된다.

## Concert

### 2012 김범수 콘서트 '갯올라잇 쇼케스트라' 부산

6월 30일 토요일 오후 3:00, 7:30 KBS 부산홀  
입장료 | R석 11만원 · S석 9만 9천원  
A석 7만 7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S, A석 10% 할인)  
문의 | (주)WSM(1566-5490)

## Event

### 제13회 시낭송과 몸짓, 소리의 만남

6월 1일 금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문의 | 금정문화원(581-9071~2)

금정문화원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마련하는 시낭송대회.

### 영화의전당 아카데미 강좌

6월 13일(수)-8월 18일(수) 영화의전당  
문의 | (재)영화의전당(780-6053)

### ▶ 2012 다큐멘터리 제작워크숍

6월 13일(수)-8월 18일(수)  
매주 수요일 오후 7:00, 토요일 오후 2:00  
· 강사/김지곤, 문정현, 임흥순(다큐멘터리 감독)  
· 수강료/일반 20만원 · 학생 18만원

### ▶ '비틀즈에서 비지스까지'

#### 영상으로 보는 대중음악이야기

6월 16일(토)-7월 1일(일)  
매주 토-일요일 오후 2:00  
· 강사/김형찬(대중음악평론가)  
· 수강료/일반 9만원 · 학생 8만원

### ▶ AVID 편집 프로그램 기본과정

6월 23일(토)-7월 22일(일)  
매주 토-일요일 오후 2:00  
· 강사/박준영(독립영화 감독)  
· 수강료/일반 10만원 · 학생 7만원

### 감동이 있는 시낭송회

#### 제64회 알바트로스 시낭송회

6월 16일 토요일 오후 5:00  
영광도서 4층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의 | 알바트로스 시낭송문화회 회장 김옥균  
(010-6367-0149)

· 초대시인/이기철, 김병래, 배재경, 배상호  
· 초청음악가/소프라노 송윤경, 가수 최민호  
· 사회/김근희 · 연출/김옥균

## Gallery

### 어린이미술관 '그림이 톡talk톡talk'

3월 10일(토)-7월 18일(수)  
부산시립미술관 어린이미술관  
문의 |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 고은사진미술관 '하얀 미래, 핵을 생각하다'

3월 24일(토)-6월 24일(일) 고은사진미술관 신관  
문의 | 고은사진미술관(746-0055)

### '사진, 시선의 현대성' -김희정, 대비 한, 배찬호

3월 24일(금)-6월 10일(일) 고은사진미술관 본관  
문의 | 고은사진미술관(744-3924)

### 한국의 자연풍경

#### -김환기, 박고석, 유영국, 이대원

4월 28일(토)-7월 8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대전실  
문의 |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 김성수 개인전 'Duplicata'

5월 3일(목)-6월 10일(일) 조현화랑 부산  
문의 | 조현화랑 부산(747-8853)

### 낮선 도시-박성란, 윤혜정, 정도영

5월 11일(금)-6월 5일(화) 맥화랑  
문의 | 맥화랑(722-2201)

### 2012 지역작가 초청 전시회

5월 19일(토)-6월 30일(토) 강서예술촌  
문의 | 강서예술촌(972-3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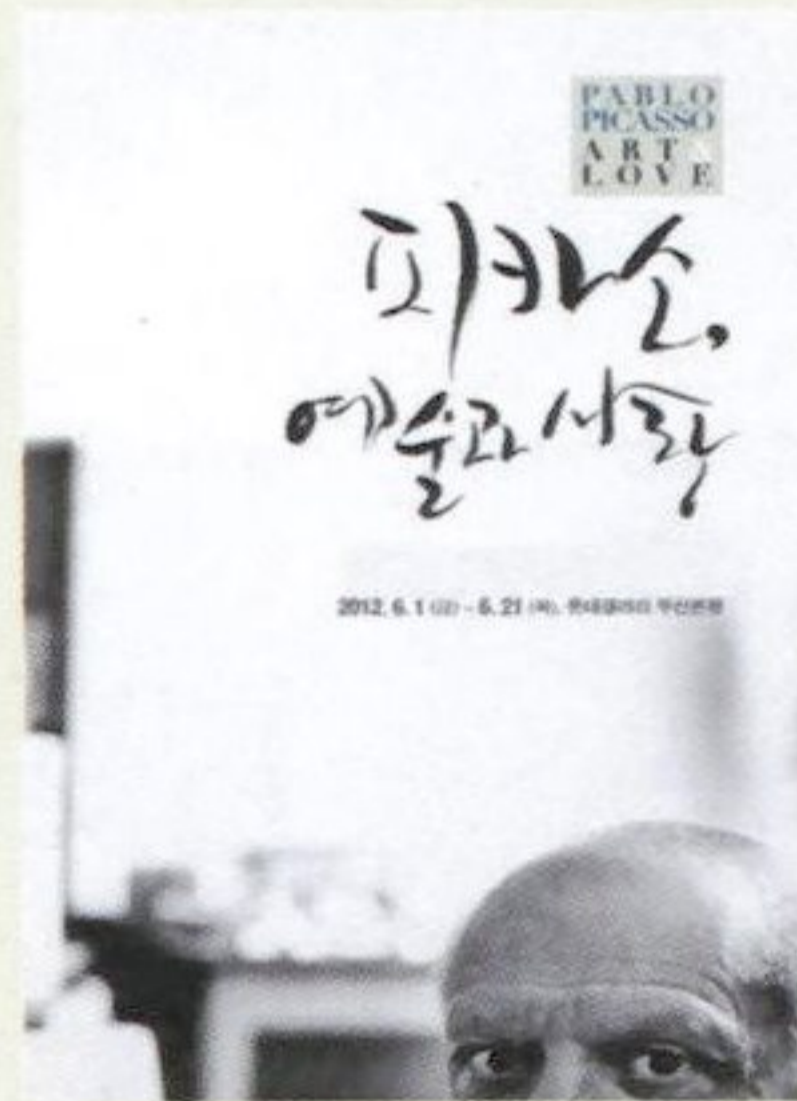
### 광모 사진전

5월 25일(금)-7월 9일(월) 토요타 포토 스페이스  
문의 | 토요타 포토 스페이스(080-855-0007)

2008년 대구사진비엔날레 젊은사진작가 대상을 수상한  
신진작가 광모 사진전.

### 피카소 '예술과 사랑'

6월 1일(금)-6월 21일(목) 롯데갤러리 부산본점  
문의 | 롯데갤러리 부산본점(810-2328)



세계적인 거장, 천재화가 피카소의 예술세계를 조망하는 피카소 '예술과 사랑'展. 1940년대 후반부터 제작하기 시작한 판화와 도자기 22점과 앙드레 빌레르가 찍은 피카소의 흑백사진 30여점 총 50여점의 작품을 통해

입체주의 미술양식을 창조했던 천재 예술가이자 한 인간으로서의 피카소의 진면모를 감상할 수 있다.

### '그림으로 보는 우리나라 풍경' 전

6월 1일(금)-6월 25일(월) 타워갤러리  
문의 | 타워갤러리(464-3939)

### 목공예작가 이정훈의 Wormhole

6월 4일(월)-6월 16일(토) 갤러리 움  
문의 | 갤러리 움(557-3369)

### 2welve begin

6월 4일(월)-6월 13일(수) BS부산은행 갤러리  
문의 | BS부산은행 갤러리(246-8975)

동아대학교 회화과 서양화 전공자 12인으로 구성된 '12welve' 그룹전.

### 가톨릭센터 개관 30주년 기념

#### 대청갤러리 초대전- 김정임 초대전 'Rhythm, Life and Diary 30Years'

6월 4일(월)-6월 13일(일) 대청갤러리  
문의 | 대청갤러리(462-1870~1)



1982년 6월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후진양성과 작품활동에 매진해온 동아대학교 김정임 교수가 30년 작품활동을 되돌아보며 마련한 특별전.

이번전시는 5년여간의 출판구상과 자료준비를 통해 완성된 화보발간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하다.

### 백성흠 개인전

6월 14일(목)-6월 22일(금) BS부산은행 갤러리  
문의 | BS부산은행 갤러리(246-8975)

### 부산사진의 재발견 연계기획

#### 배동준, 근대적 풍경의 탐구

6월 16일(토)-9월 2일(일) 고은사진미술관 본관  
문의 | 고은사진미술관(744-3924)

### 유은석, 박지성의 'ㄱ의 ㄷ'

6월 18일(월)-6월 30일(토) 갤러리 움  
문의 | 갤러리 움(557-3369)

### 갈색참새와 파란물고기- 김영미, 이지우

6월 19일(화)-7월 9일(월) 갤러리 봄디  
문의 | 갤러리 봄디(070-7720-6862)



### 김경경 '아니물라(animula)의 노래'

6월 22일(금)-7월 5일(목) 롯데갤러리 부산본점  
문의 | 롯데갤러리 부산본점(810-2328)



신화속에 살아 숨쉬는 상상의 동물들과 꽃과 과일 등 극락과 같은 인간세계를 벗어나 시각적 아름다움과 조형의 극치를 표현한 김경경 작품전.

### 남수정

6월 27일(수)-7월 3일(화) BS부산은행 갤러리  
문의 | BS부산은행 갤러리(246-8975)

### 최현자 초대전

6월 27일(수)-7월 6일(금) 타워갤러리  
문의 | 타워갤러리(464-39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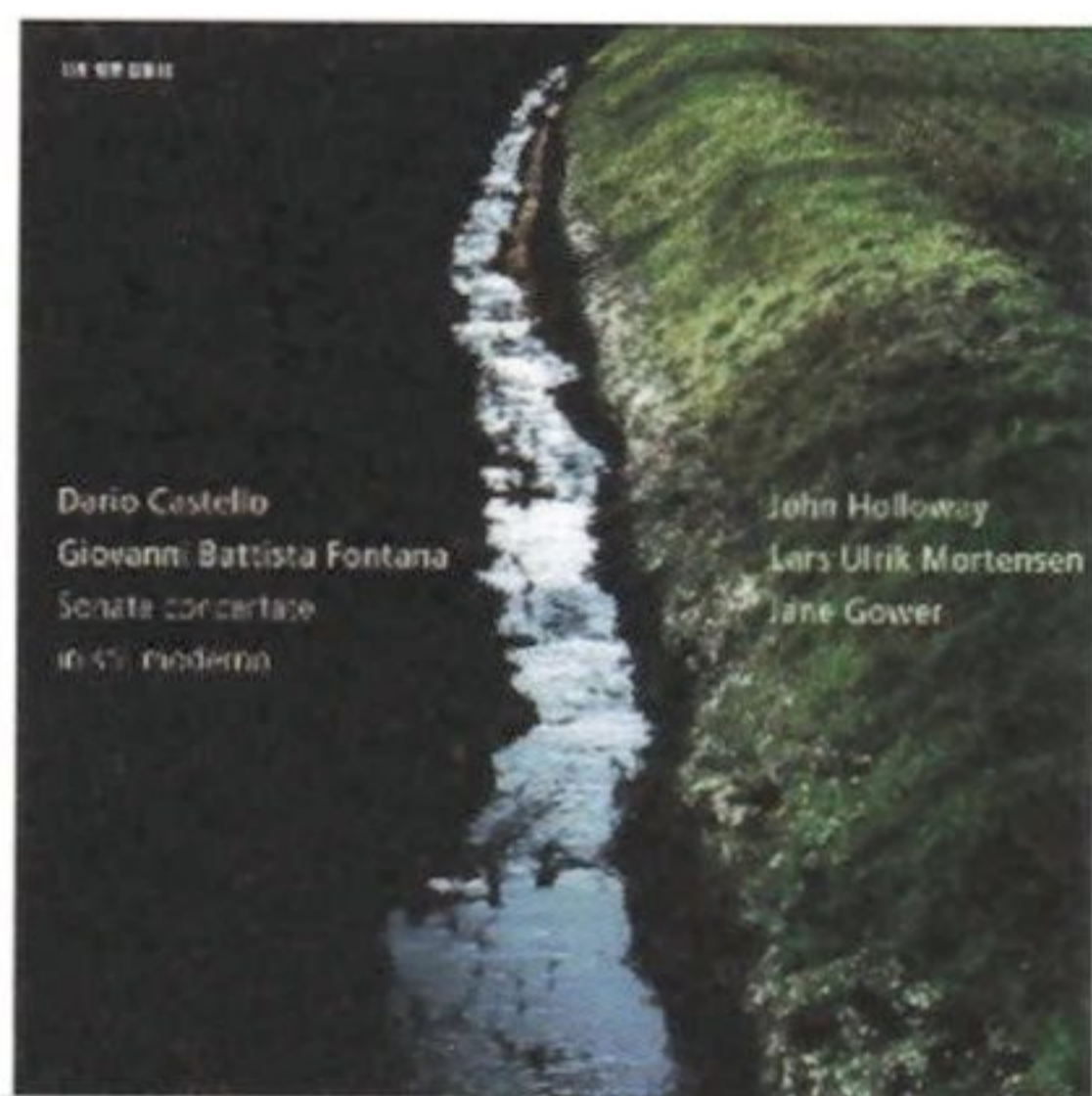


### 브루크너 교향곡 5번

클라우디오 아바도(지휘) /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가장 최근 모습을 최고의 화질로 담은 영상물

자신을 위해 결성된 스페셜 오케스트라인 루체른 페스티벌과 더불어 만년의 예술혼을 완전히 불사르고 있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거장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가장 최근의 모습이 클래식 영상물의 새로운 명품 레이블인 Accentus의 뛰어난 화질과 사운드로 선보인다. 이 영상은 2011년 8월 루체른 페스티벌 기간 중의 콘서트 실황을 담은 것으로, 브루크너가 완성한 가장 장대한 스케일의 작품 중 하나인 교향곡 5번을 연주한 것이다. 아바도가 1990년대에 빈 필과 더불어 선보였던 몇 편의 브루크너 교향곡 음반들은 자신의 말리 레코딩에 비해 저평가되었지만, 최근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함께 했던 교향곡 7번(2005년)과 이번에 등장한 교향곡 5번의 실황연주들은 과거의 연주에 비해 더 한층 따뜻한 색조와 유려한 흐름으로 이 작곡가 특유의 고고한 음악세계를 담담하게 그려냈다. 현재 독일 화단의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화가인 미카엘 트리겔의 미스터리한 작품 'Anthropisches Prinzip'을 사용한 커버아트워크도 이 영상물의 격조를 한층 더 돋보이게 만든다.



###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집 작품 9 <라 체트라>

레이첼 포저(바이올린) / 홀랜드 바로크 소사이어티

비발디 연극사에 큰 족적을 남겼던 레이첼 포저의 새로운 바이올린 협주곡

지난 2003년 비발디 <라 스트라바간차>로 거의 모든 음반상을 휩쓸며 비발디 연주사에 큰 족적을 남겼던 레이첼 포저가 모차르트와 바흐 여행을 끝낸 후 다시 한번 비발디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젊고 의욕이 넘치는 홀랜드 바로크 소사이어티와 함께 바이올린 협주곡집 <라 체트라> 작품 9를 선보였다. <라 스트라바간차>보다도 더 독주자로부터 기술적인 명인기와 다양한 상상력, 스크라다투라 같은 실험적인 효과를 요구하는 이 작품집에서 포저의 넘치는 활력과 따뜻하고 달콤한 음색, 오케스트라와 완벽하게 어울리는 음악성은 이제까지 나온 모든 연주를 능가하는 빛나는 명연을 만들어냈다



### 존 홀로웨이의 17세기 이탈리아 바이올린 소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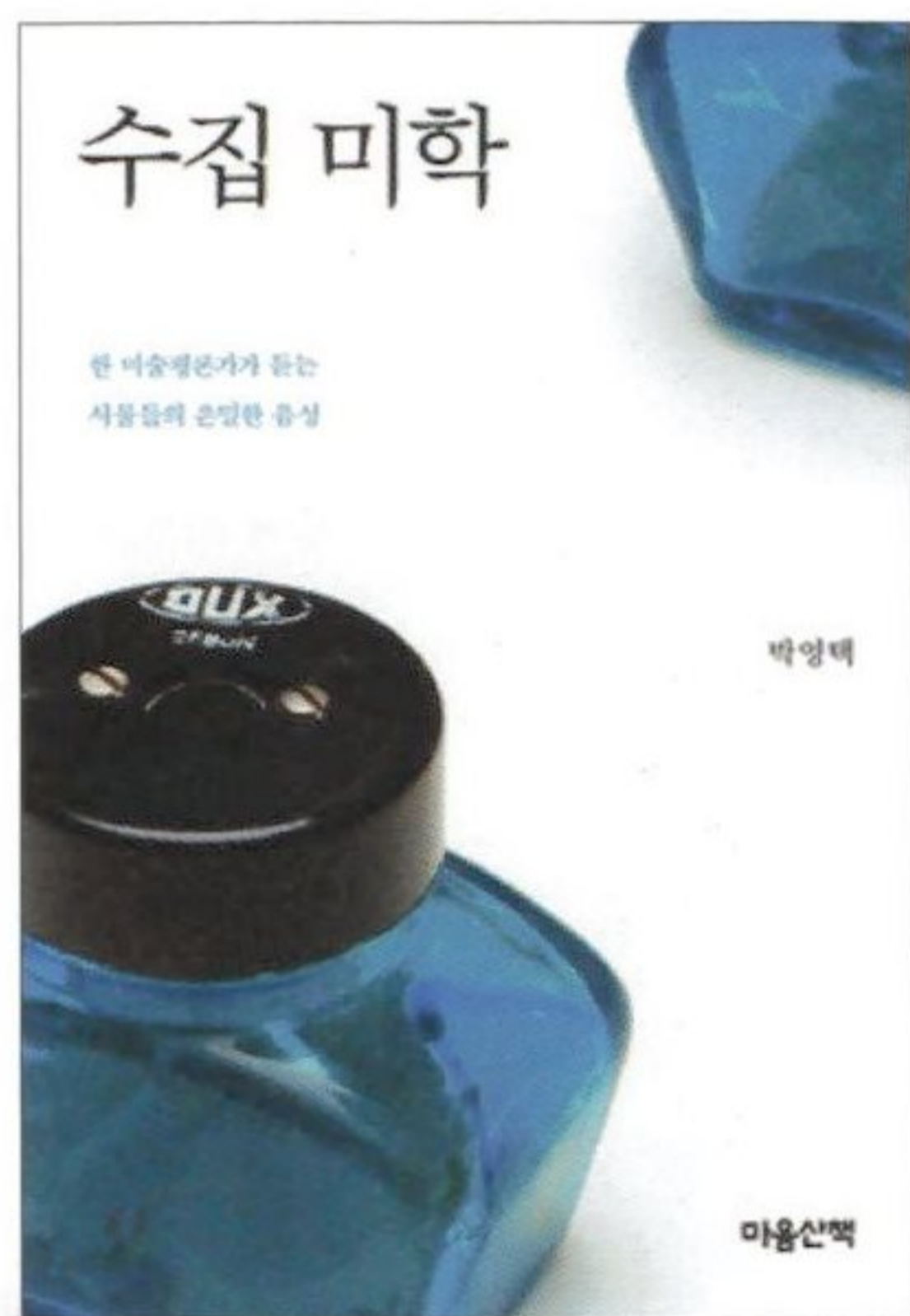
존 홀로웨이(바이올린) / 라르스 울릭 모르텐센(하프시코드) / 제인 고워(둘시안)

17세기 초 이탈리아의 바이올린과 바순을 위한 소나타 - 다리오 카스텔로, 지오반니 바티스타 폰타나

절대명반 비버 <미스터리 소나타>를 비롯해 슈멜처에서 바흐로 이어지는 독일 바로크 바이올린의 위대한 계보를 이어갔던 존 홀로웨이가 더욱 근원적인 바이올린의 세계로 접어들었다. 성악에서 출발하여 순수한 기악음악의 세계가 열린 17세기 초반 이탈리아의 작곡가 카스텔로와 폰타나의 작품을 통해 후에 슈멜처와 텔레만에게까지 연결된 그 위대한 역사를 밝히는 것이다. 극적인 대비효과를 보여주는 바순의 전신인 둘시안과의 듀엣 등 당시 유행했던 매력적인 앙상블에 홀로웨이의 송고함이 더해져 더욱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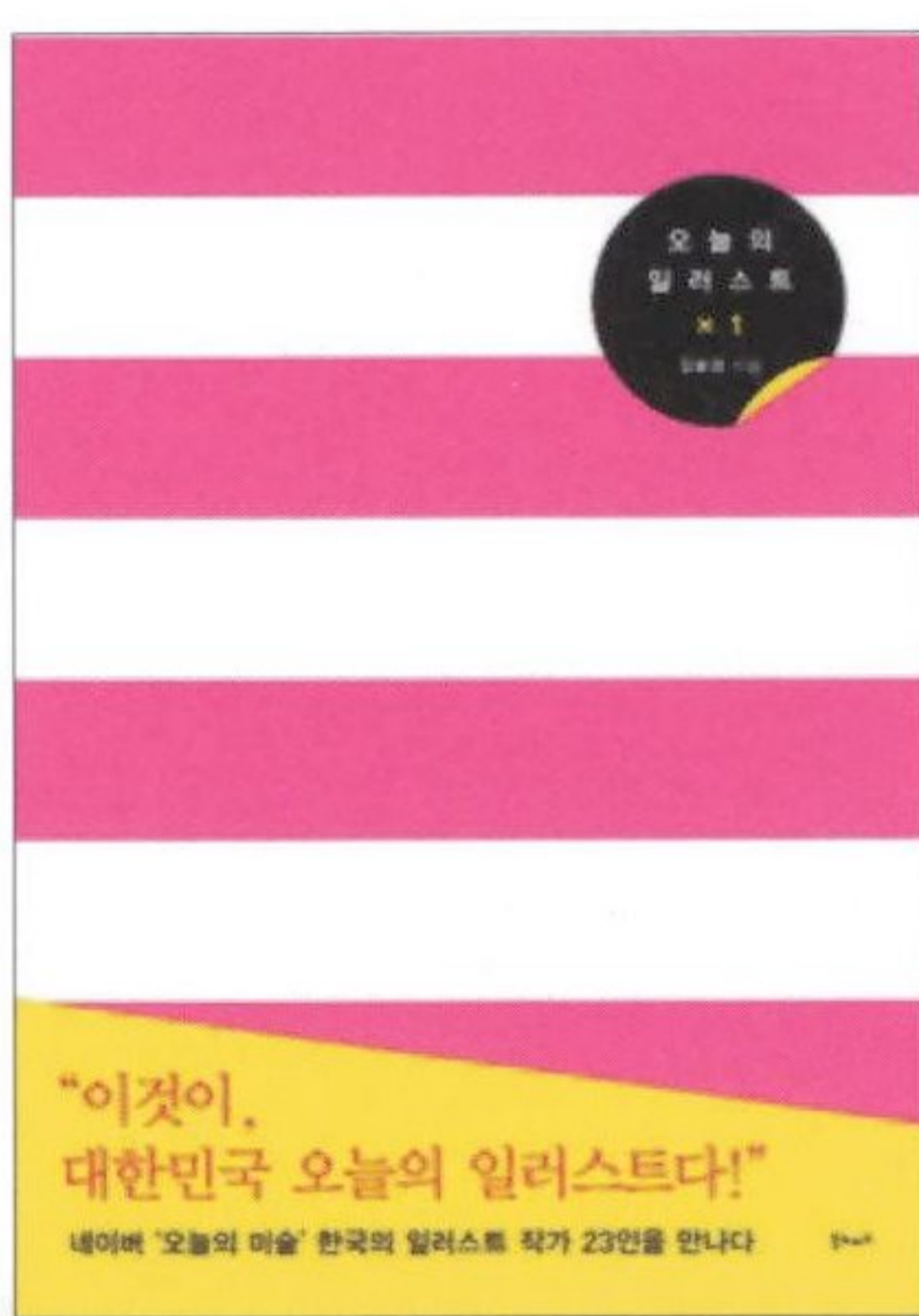




**수집미학**

박영택 지음 / 마음산 / 352p / 1만4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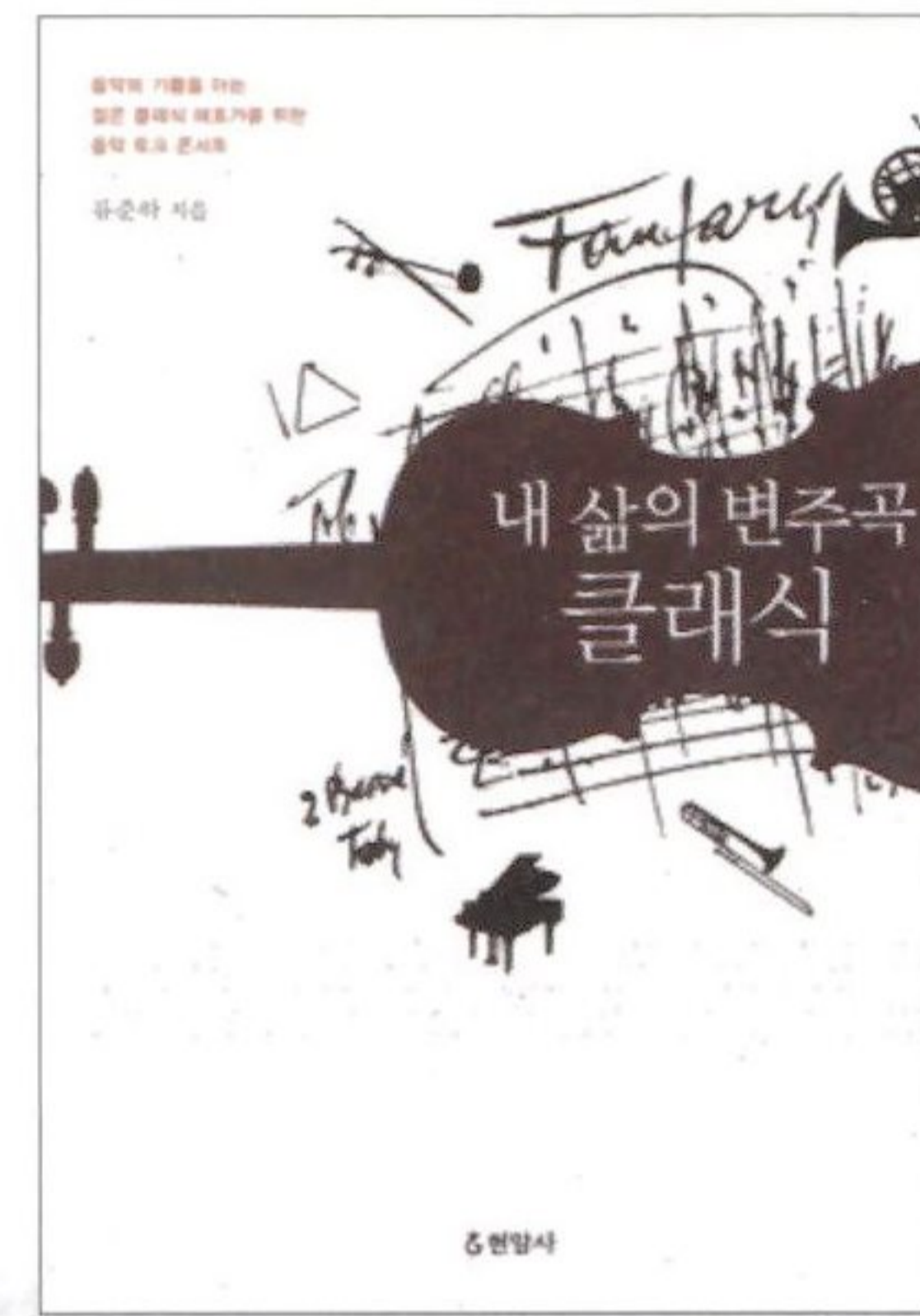
책갈피-책의 내용, 손의 온기. 찻주전자-삶을 우리는 무게감. 연필깎이-무언가 다시 살아나는 소리. 이 책의 목차에 실린 소재목이다. 간단한 문장이지만, 하나의 사물에 대해 저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우리는 수많은 물건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잠시 눈을 들어 책상을 봐도 컴퓨터, 유선전화, 스마트폰, 연필, 볼펜, 책, 수첩, 탁상달력, 클립 등이 즐비하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도 일괄지급되는 사무용품 외에는 물건들이 조금씩 다르다. 용도는 같지만 디자인도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볼펜은 잉크만 잘 나오면 뭐든 상관없다는 사람도 있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볼펜만은 특정제품을 찾는 사람도 있다. 개인이 소유하는 물건은 단순히 소비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준다는 의미이다. 박영택 씨는 10년간의 큐레이터 생활을 거쳐 대학 강단에서, 미술평론가로 지내며 수많은 작품을 감상하고 평가하며 살아왔다. 이 책은 예술품에서 일상소품까지 미술평론가의 심미안으로 고른 물건과 그에 깃든 이야기들을 전해 준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이 어느새 독특한 무엇이 되고, 내 주변의 사물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책이다.



**오늘의 일러스트(1, 2)**

김윤경 지음 / 북노마드 / 368p내외 / 각 1만8천원

백 줄의 글보다, 한 컷의 일러스트가 가슴에 더 와 닿을 때가 많다. 글은 그 많은 단어와 문장을 읽고 의미를 재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글 옆에 함께 한 일러스트는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과정이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어쩐지 일러스트를 먼저 보고 나면, 글에 나타나 있지 않은 숨은 의미까지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일러스트를 그리는 작가들을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한다. 처음에 그들의 작업은 주로 종이 위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그들의 작업은 종이를 떠나 일러스트가 그려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이루어진다. 종이와 사이버 공간은 물론 가방, 신발, 소품, 건물 외벽 등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작업을 하는 작가들도 많다. 이 책은 우리나라 일러스트레이터 중 가장 활발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43인을 선정하여 그들의 대표 작품과 작품관,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2권으로 소개한다. 왜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지, 좋아하는 주제·소재·색감은 무엇인지, 자신만의 창작 방식이 있는지, 작가의 감성이나 취향은 무엇인지 등 평범한 질문에서 민감한 작가의 고백까지 담았다. 한국 일러스트의 현 지점을 다각도로 보여주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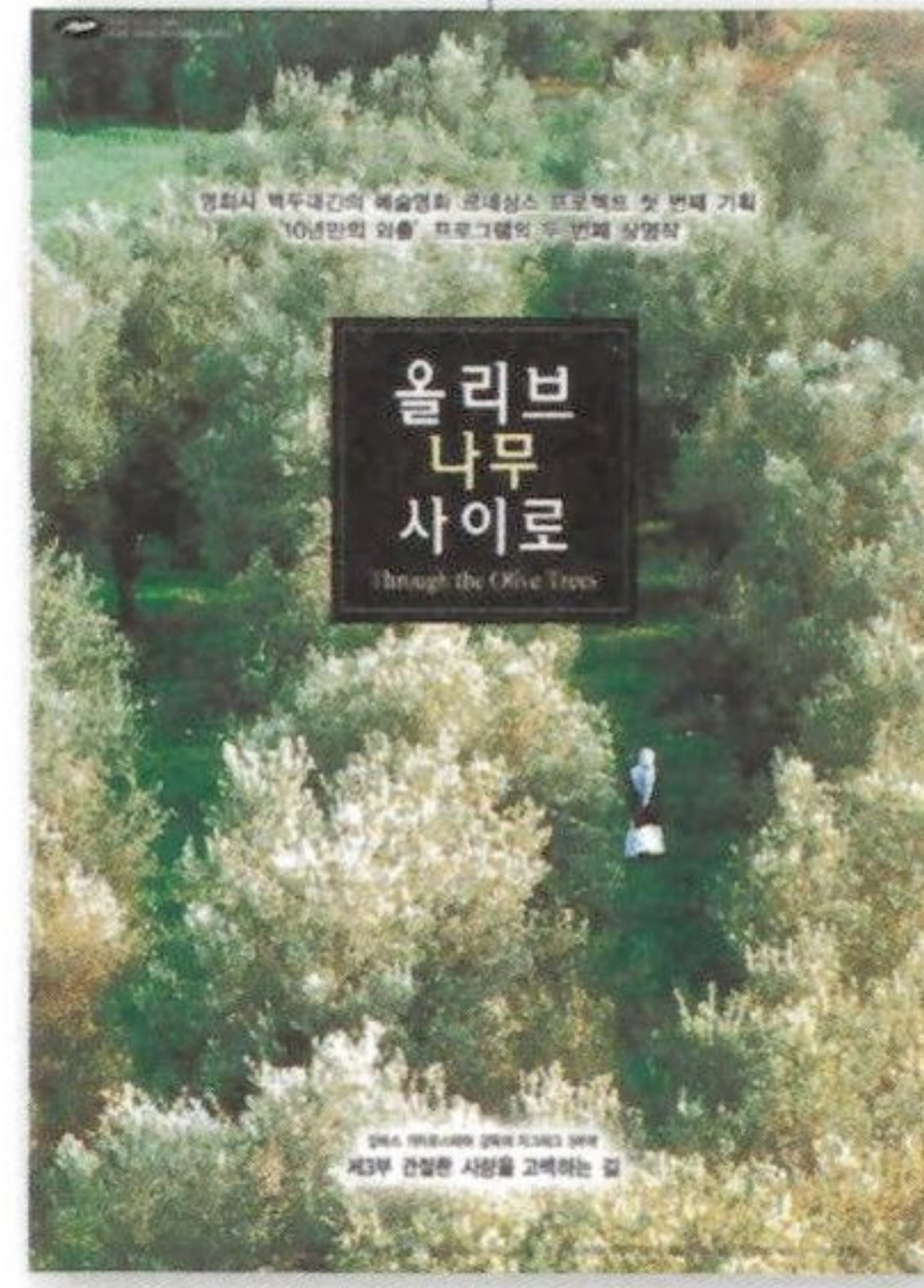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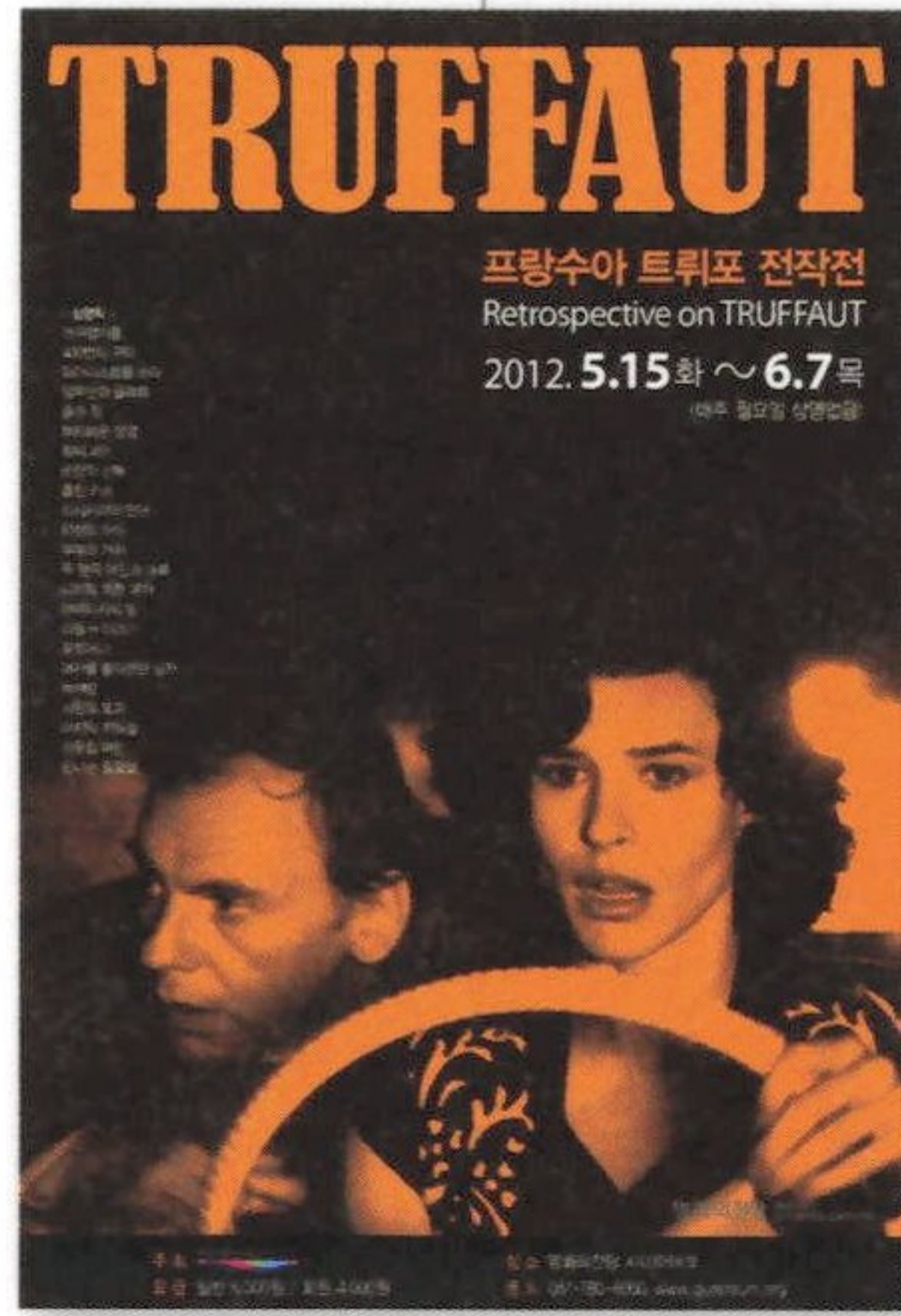
**내 삶의 변주곡 클래식**

류준하 지음 / 현암사 / 470p / 2만2천원

음악에 대한 취향과 수준이 다른 세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여 나누는 유쾌한 대화로 엮은 지상(紙上) 음악감상회 같은 책이 나왔다. '걸어 다니는 음악백과사전' 차선생, 바그너에 푹 빠진 '진지한 음악애호가' 박은허, '초보 음악마니아' 류수연이 독자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등장한다. 음악의 즐거움에 빠져 류수연은 시간이 갈수록 궁금증이 늘어난다. 가끔은 엉뚱한 질문을 던지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음악에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일반 독자들의 심정이 아닐까. 박은허는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펼쳐 보이며, 독자들의 음악 상식과 교양을 높여준다. 차선생의 역할은 저자를 대신한 듯, 차근차근 음악 지식을 들려준다. 세 명의 대화를 읽어가는 동안 클래식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되는 것은 물론, 음악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 또한 더해진다. 이 책을 쓴 류준하 작가는 현직 고등학교 지리 교사이자 차이코프스키를 사랑하는 음악애호가다. 30여 년 전부터 클래식에 빠진 작가는 낮에는 교사로, 저녁과 주말이면 전국을 다니며 열정적인 음악감상회 해설자로 활동하고 있다. 사람들이 클래식에 겁먹지 않고 음악을 듣고 아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책에 담았다.



# SPECIAL MOVIE



## 프랑수아 트뤼포 전작전

5월 15일(화)-6월 7일(목)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세상에서 영화를 가장 사랑한 사람, 전 세계 영화광들의 영원한 우상이며, 세계 영화사의 흐름을 바꾼 프랑스 누벨바그의 기수 '프랑수아 트뤼포' 감독의 작품들이 모두 모였다. 프랑수아 트뤼포(1932.2.6~1984.10.21)는 장뤽 고다르, 에릭 로메르, 클로드 샤브롤, 자크 리베트 등과 함께 1960년대 프랑스 누벨바그를 이끈 전설의 거장이다. 누벨바그란 '새로운 물결'이란 뜻으로 이야기 중심의 전통적 영화 문법에서 탈피해, 줄거리보다 사적이고 개성적인 표현에 중점을 둔 '작가주의 영화'를 주창했던 흐름을 일컫는다.

이번 '프랑수아 트뤼포 전작전'에서는 할리우드식 갱영화를 재해석한 <피아니스트를 쏘라>, 잔 모로 주연의 낯설고도 매력적인 연애이야기 <줄과 짐>, 카트린 드뇌브 주연의 <마지막 지하철>, 트뤼포의 마지막 작품인 히치콕식 살인 미스터리 <신나는 일요일> 등 장, 단편을 포함한 총 23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번 기획전을 통해 관객들은 감독 '프랑수아 트뤼포'와 배우 '장 피에르 레오'의 영화적 동반자로서의 20년 세월이 담긴 '앙투안 연작' 5편을 모두 관람할 수 있다.

## 필름아카이브 특별전-1990년대의 기억

6월 8일(금)-21일(목)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시네마테크부산이 영화의전당으로 이전한 뒤 첫번째 필름아카이브 특별전을 갖는다. '필름아카이브'는 영화가 담긴 필름을 수집, 보관하는 영화 창고로, 시네마테크부산이 2007년 설립한 '부산아시아필름아카이브'는 보존 가치가 높은 아시아 영화의 필름 및 기타 촬영본을 수집 보관함으로써 국내에 전무한 아시아 영화 필름라이브러리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최근에 개봉해 화제를 모은 영화 <건축학개론>이 불러일으킨 1990년대의 기억과 연관된 영화들을 상영한다. 제2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소개되면서 격렬한 검열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이비드 크로넌버그의 도발적인 화제작 <크라쉬>, 1990년대 전 세계 연인들의 심금을 울린 수작 <비포 선 라이즈>, 폐전 이후의 베를린을 서정적이고도 가슴 아프게 묘사한 <베를린 천사의 시>, 왕가위의 또 다른 도시 비가 <타락천사>, 무선호출기와 PC 통신 시대의 수줍은 연가 <접속> 등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을 오롯이 되살려줄 수작들이 집중 소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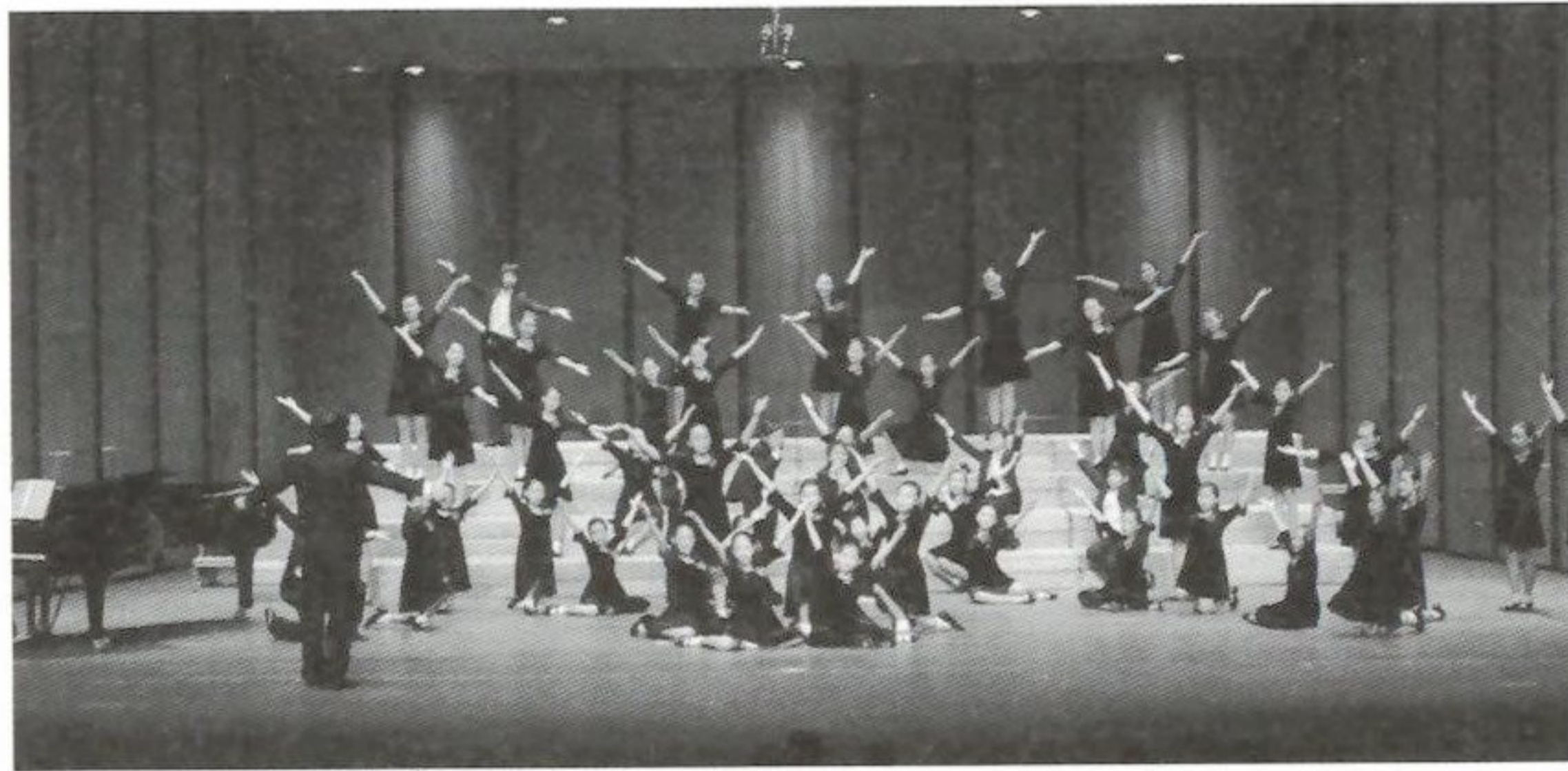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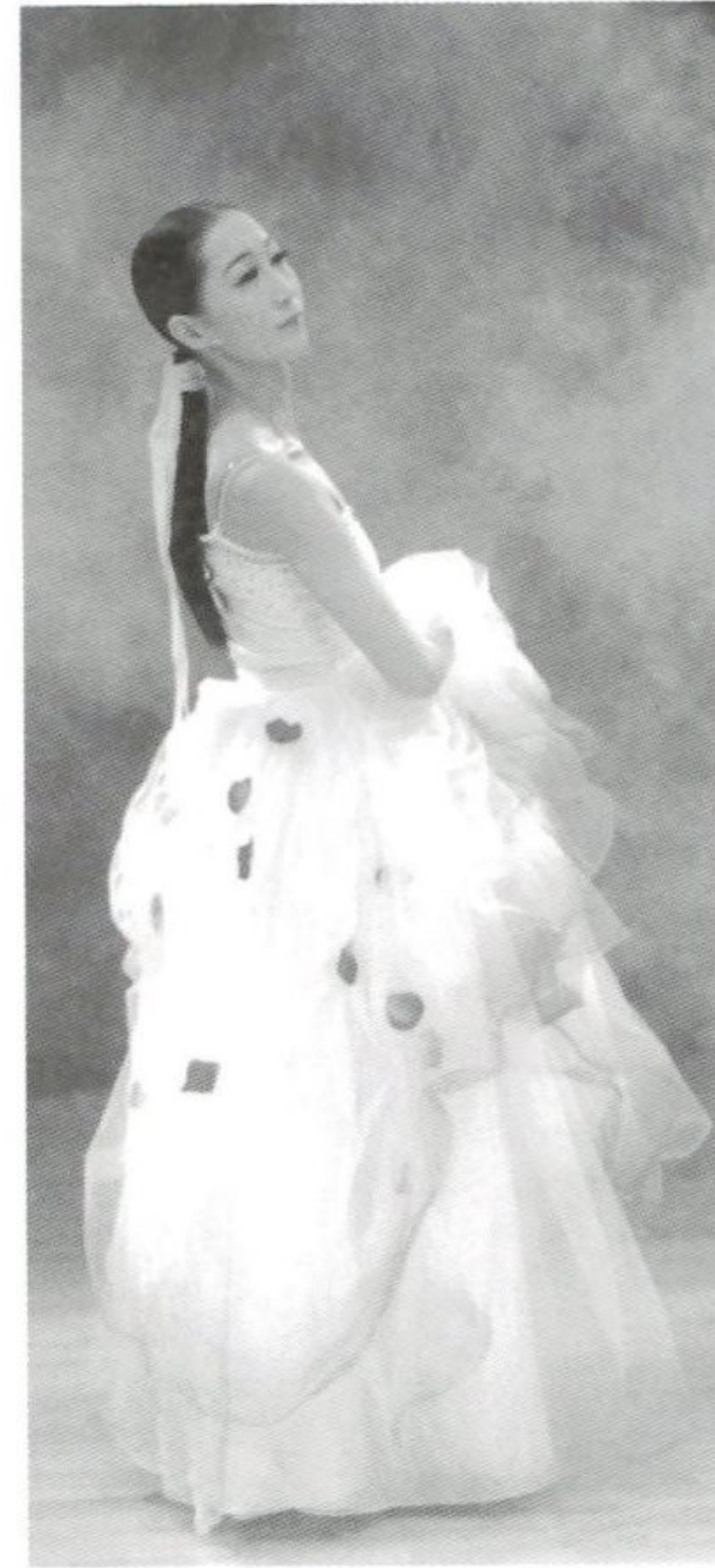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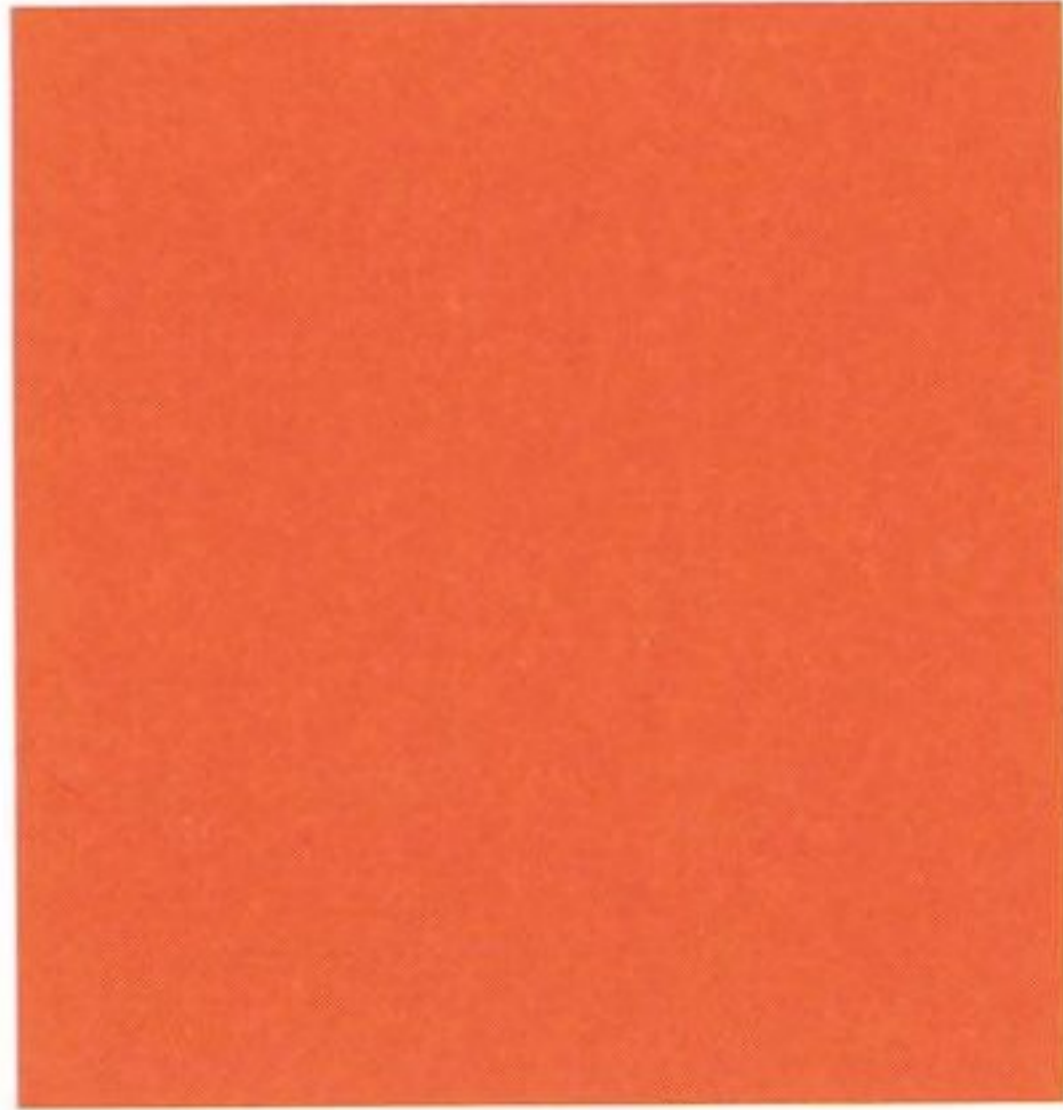
## CGV 무비콜라주 '이달의 배우 기획전'

6월중 CGV 무비콜라주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CGV의 다양성 영화 전문 브랜드인 '무비콜라주'는 예술영화, 독립영화, 다큐멘터리 등을 365일 상영하는 전용관으로 다채로운 기획전과 영화제를 개최하고 시네마톡, 무비콜라주 큐레이터 등 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국적으로 CGV강변, 구로, 대학로, 상암, 압구정, 오리, 인천, 서면 등에 CGV 무비콜라주 전용관이 들어서 있다. CGV 무비콜라주 '이달의 배우 기획전'은 CGV 무비콜라주의 새로운 기획전으로 매달 배우 한명을 선정해 주요작을 상영하고 있다. 6월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성격파 여배우 윤여정이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2년 전 임상수 감독의 영화 <하녀>, 홍상수 감독의 영화 <하하하>로 칸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았던 윤여정은 올해 그녀가 출연했던 임상수 감독과 홍상수 감독의 영화 <돈의 맛>, <다른 나라에서> 두 편이 제65회 칸영화제 경쟁부문에 나란히 진출하면서 생애 두 번째 칸의 여인이 됐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칸영화제 출품작인 <돈의 맛> <다른 나라에서>와 그녀의 첫 영화출연작으로 제10회 대중상 신인상, 제4회 시체스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안겨줬던 거장 김기덕 감독의 <하녀> 등 대표작을 상영한다.





**천원의 행복 '매직갈라쇼'**

행복의 순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하물며 천원으로 즐기는 행복한 공연 선물이라면 그 값어치를 어떻게 환산할까. 5월 16일 동래문화회관에서 만난 부산문화회관 천원의 행복 '매직 갈라쇼'는 무리한 일상에 큰 즐거움을 안겨준 우리가족에게 진정한 '매직'이 아니었나싶다. 8월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이 기다려진다. 김연미(연제구 거제 3동)

**부산국제연극제 연희단거리패 '코마치후덴'**

매년 5월이면 부산국제연극제 때문에 행복한 외출을 한다. 한국배우가 연기하는 일본연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난번 극장 공연 때 놓친 '코마치후덴'을 선택했다. 그러나 공연은 기존 작품과는 다른 전개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나마 공연 후 이윤택 선생님과 대화 시간을 통해 코마치후덴의 탄생 과정, 작품에 대한 에피소드를 들으며 진정한 코마치후덴을 만날 수 있었다. 박선희(사하구 당리동)

**부산시립무용단 '바리-서천꽃 그늘'**

바리데기를 무용극으로 본다는 기대감에 마음이 마냥 부풀었다. 다양한 볼거리로 남녀노소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무대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를 위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바리데기의 효심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김정숙(남구 대연동)

**주머니속의 연기**

연극을 보고 지하철 계단을 내려오면서 '인생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라고 중얼거렸다. '인생이 무엇인가 묻지마라. 너가 읽은 책 속에 영화 속에 울면서 혼자 마시는 술잔 속에 다 들어있다'는 지하철역에 게시된 시의 내용도 어렵듯이 생각한다. 70대 할머니 셋이서 연극을 잘 보았다. 깔끔한 소품도 일품이고 배우들의 열연 또한 내 가슴을 뜨겁게 했다. 일본 원작이라 우리의 정서와는 조금 다르다는 친절한 사전 해설도 좋았다. 오늘 하루도 연극으로 재미있게 시작되었고 그래서 즐거웠고 소극장을 자주 드나드는 멋있는 할머니가 되고 싶어졌다. 추이재(연제구 거제동)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선생님,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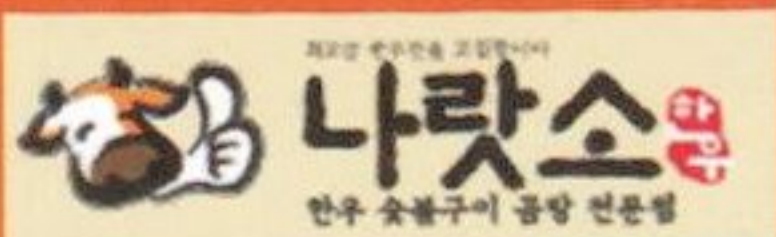
지난해 12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공연을 관람하고 이번에 다시 공연장을 찾았다. 할레국제합창제에서 대상 수상소식을 접한 뒤라 더 기대가 컸다. 독창자로 무대에 오른 전 지휘자의 연륜, 합창단 단원들의 아름다운 하모니에 행복한 주말을 보냈다. 공연 타이틀은 '선생님, 감사합니다'였는데 정작 선생님들이 보이지 않아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황미숙(양산시 북정동)

공연후기 '100자 토크' 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 는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후기를 보내주시신분을 선정하여 **나랏소 식사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보내실곳 \_ bsculture@naver.com

마 감 \_ 수시모집 [원고를 보내실 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_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3~4)



TEL 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 News

## 4대 뮤지컬 '미스 사이공' 부산공연, 대장정의 막을 내리다!

4월 5일부터 29일까지 펼쳐진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미스 사이공' 이 25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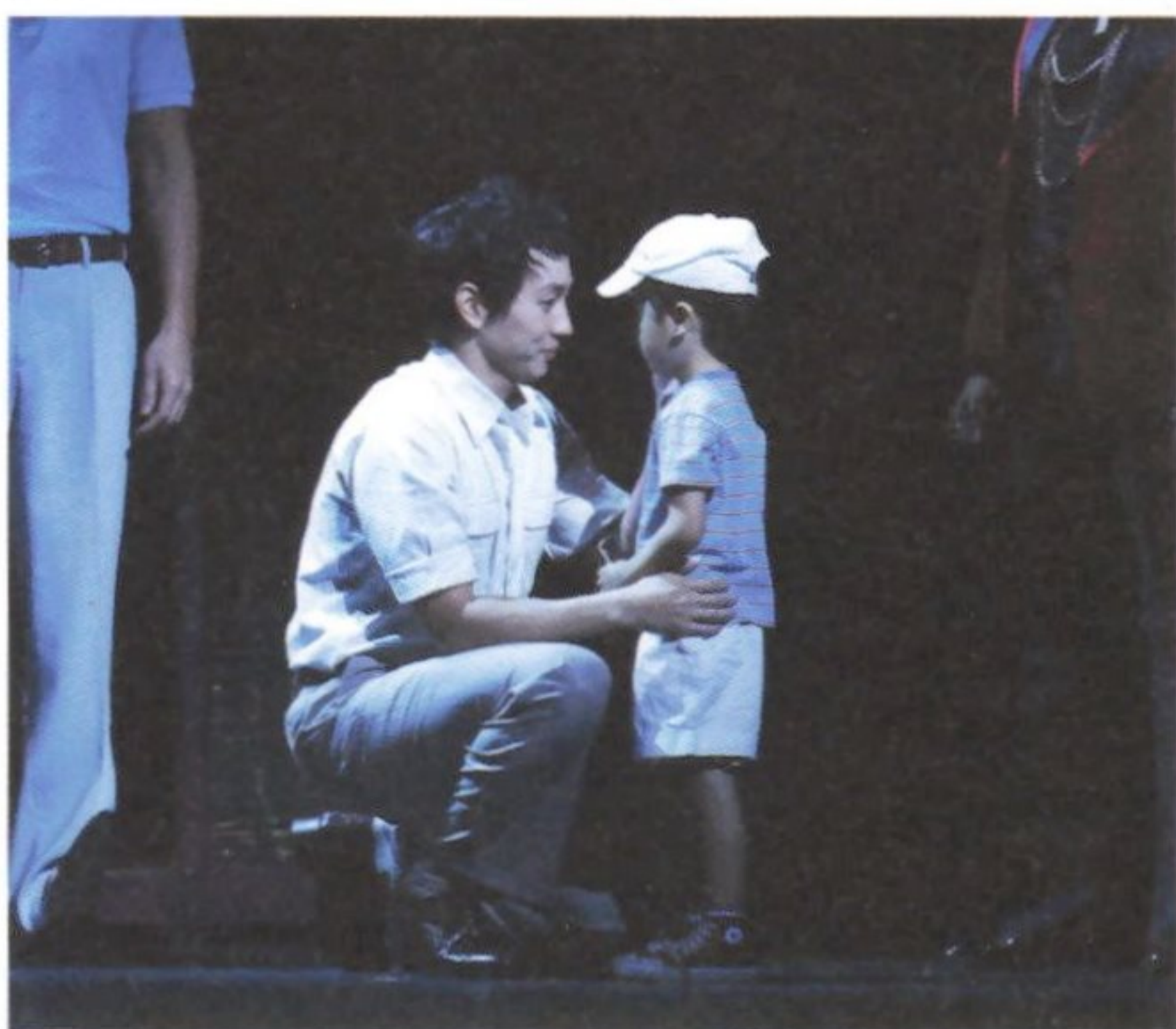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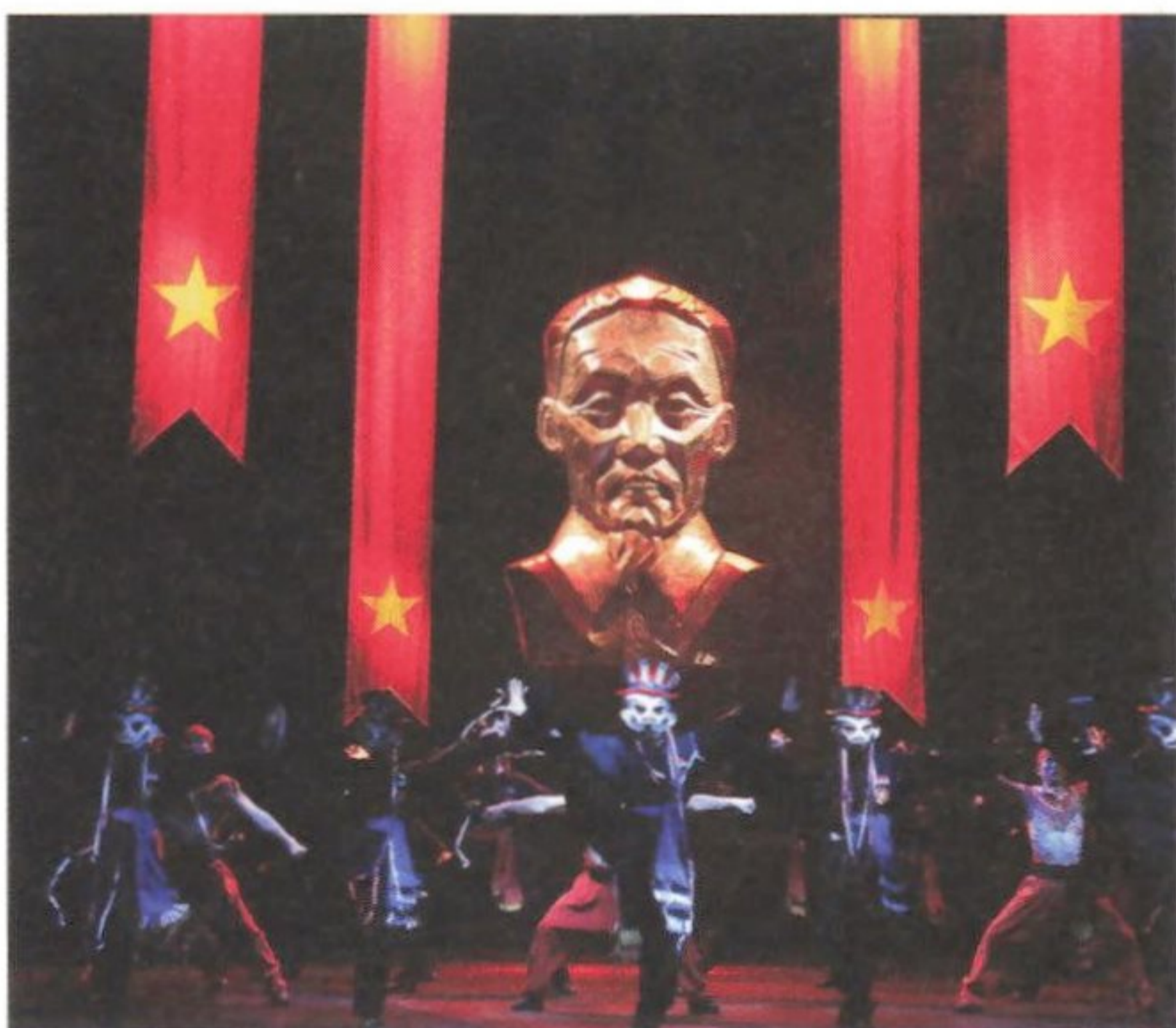
25일간 총 30회의 공연을 가진 '미스 사이공' 은 총 관객 29,042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21억이 넘는 매출을 기록, 부산 공연 역사상 최다관객 동원과 최고매출을 기록하였다.

그 외 '미스 사이공' 이 부산공연계에 남긴 기록이 많다. 2007년 한차례 부산문화회관 공연 무산 이후 경기침체와 금융악재 속에서도 '미스 사이공' 을 기다린 많은 관객들이 티켓오픈 시점에 맞추어 예매를 진행, 1차 티켓 오픈 한 하루 동안 예매티켓 약 800매, 매출 8,000만원을 기록했고, 2차 티켓 오픈에서는 하루 동안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부산지역 공연 역사를 새로 쓴 뮤지컬 '미스 사이공' 은 인터파크 예매 집계 결과, 경기와 서울지역에서만도 7% 이상의 관객이 몰렸고, 대구, 대전 등 KTX로 1시간 내에 있는 대도시 관람객도 10%를 차지했다.

부산문화회관은 뮤지컬 '미스 사이공' 공연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공연관람을 위한 시설, 첨단 무대메커니즘과 대형공연을 하기 적합한 넓은 포켓과 바튼 수, 전력 등을 갖춘 공연하기 좋은 부산 최고의 공연장으로 각광받았다.

이번 공연에는 특별히 문화 소외 계층으로 인식되었던 40~50대 이상의 관객들 뿐만 아니라 해외 이주 여성들과 베트남 참전용사들을 직접 공연장으로 초청,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또한 공연이 진행되는 25일간 탄탄한 러브스토리와 감미롭고도 아름다운 음악이 녹아있는 세계 4대 뮤지컬 '미스 사이공' 을 보기 위해 공연관람을 위한 문화모임이 활성화 되면서, 부산 경남 소재 39개의 기업에서 5,000여명의 직원들이 공연을 관람,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었다. 또, 부산공연사상 최단기간 2만 관객 관람 기념으로 사직구장 야구관람권 소지자들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등 부산지역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눈높이형 혜택을 선사,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 Busan Cultural Center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 제33회 독일 할레국제어린이 합창페스티벌 대상 수상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5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 독일 할레에서 열린 제 33회 할레 국제 어린이합창페스티벌에 참가해 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한국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비롯해 독일, 네델란드,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등 전 세계 250여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참가해 4일간 진행된 할레국제어린이합창 페스티벌은 헨델의 고향 할레를 대표하는 합창 축제로 세계각국 어린이 합창단의 단독 공연과 연합 공연, 야외 공연, 워크샵 등이 펼쳐진다.

5월 3일 목요일 저녁 7시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전상철 지휘로 첫 공연을 가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부산시립합창단 최석태 작곡가가 작곡한 미사곡 'Kyrie'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 미사곡 'Kyrie'는 라틴어 작사에 한국전통곡풍으로 작곡되어 유럽인들에게 기존 'Kyrie'와 다른 큰 감동을 선사했다.



## 6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공연장을 자주 찾을 수 없는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예술단' 6월 공연 일정이 확정되었다.

6월에는 현충일과 6·25 추념식, 추모공연을 비롯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로비콘서트', 부산지방법원 'Lunch 음악회', 한·중 수교 20주년 차이나타운 불꽃축제 축하공연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진다.

공연 일정			
6/5	14:50	롯데백화점 문화홀	모아사랑 태교음악회(출연/교향악단)
6/6	10:00	중앙공원	현충일 추념식(출연/합창단)
6/13	12:30	부산시청 로비	시민들과 함께하는 로비콘서트(출연/무용단)
6/14	13:30	오스탬임플란트 부산지부	오스탬임플란트 직원들과 함께(출연/교향악단)
6/22	18:00	부산역 앞 광장	한·중 수교 20주년 차이나타운 불꽃축제 축하공연 (출연/국악관현악단)
6/25	10:00	부산시민회관	6·25 추모공연(출연/합창단)
6/27	12:30	부산시청 로비	시민들과 함께하는 로비콘서트(출연/교향악단)
6/28	12:20	법원로비	부산지방법원 Lunch 음악회(출연/교향악단현악앙상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문의\_ 부산문화회관(607-6046)



[가로열쇠]

- ① 6월 19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독주회를 갖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최근 그녀의 어머니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로 임용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 ⑤ 조선 중기의 유학자이자 정치가, 현실·원리의 조화와 실공(實功)·실효(實效)를 강조하는 철학사상을 제시했다. 호는 율곡, 저술로는 '성학집요(聖學輯要)', '동호문답(東湖問答)', '격몽요결(擊蒙要訣)' 등이 있다.
- ⑦ 러시아 고전주의 음악을 완성한 러시아의 작곡가. 특히 발레곡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호두까기 인형', 교향시 '만프레드 교향곡', 교향곡 '비창' 등이 유명하다.
- ⑧ 나이 88세를 일컫는 일본식 조어.
- ⑨ 4분의 4박자를 기본으로 하되, 강약의 박자를 넣고 독특한 꺾기 창법을 구사하는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한 장르.
- ⑪ 신체에 크레인과 연결된 가느다란 철사 또는 쇠줄을 단 채 주로 공중을 이동하는 연기를 일컫는 말. 홍콩산 고전 무협물의 결투 장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크레인을 움직여 배우를 공중에서 이리저리 움직이게 한다.
- ⑭ 프랑스의 복식 디자이너. 간단하고 입기 편하며 활동적이고 여성미가 넘치는 스타일로, 유행의 변천 속에서도 변함없이 유명 영품 브랜드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⑰ 섬의 모양이 어린 사슴과 비슷하다고 하여 부쳐진 이름. 예전에는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한센병 환자와 병원 직원들만의 섬이었으나 현재는 아름다운 경관이 알려지면서 일반인들도 많이 찾는 곳이 되었다.
- ⑱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꾀는 말.
- ⑲ 1972년부터 1982년까지 활동했던 스웨덴의 남녀 혼성 4인조 팝댄스 그룹. 그들의 히트곡으로 제작된 뮤지컬 '맘마미아'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면서 인기가 급상승하기도 했다.
- ⑳ '저주받은 영혼'이라는 뜻을 가진 일본 시미즈 다카시 감독의 공포영화 시리즈.
- ㉓ 코카서스 인종에 속하는 소수의 유랑 민족으로,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항상 이동하면서 생활한다.
- ㉕ 경기대전 방식의 하나. 경기를 거듭할 때마다 진 편은 제외시키면서 이긴 편끼리 겨루어 최후에 남은 두 편으로 우승을 가린다.
- ㉖ 영국의 작가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에 등장하는 주인공으로, 자린고비 구두쇠이자 인정이란 눈곱만치도 없는 수전노이다.

[세로열쇠]

- ① 일상생활에서 나온 부산물인 폐품(잡동사니)을 소재로 제작한 미술작품.
- ② 미야베 미유키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변영주 감독, 이선균, 김민희 주연의 미스터리 영화. 제48회 백상예술대상에서 감독상을 수상했다.
- ③ 캄보디아 서북부에 있는, 돌로 만든 사원. 12세기 초에 건설한 왕실 사원으로 그 탑과 조각은 크메르 미술을 대표한다.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주요 건물은 중앙 사당과 그를 둘러싼 삼중의 회랑이다.
- ④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 문호이자 문명비평가, 사상가. 대표작으로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 '부활' 등이 있다.
- ⑥ 탁월한 상상력과 빼어난 언어언금술로 신비하고 독특한 마술적 리얼리즘의 작품세계를 구축해 마니아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는 소설가. 대표작으로 '꿈꾸는 식물' '장수하늘소' '벽오금학도' 등이 있다.
- ⑧ 롤랑 조페 감독, 제레미 아이언스, 로버트 드니로 주연의 제39회 칸영화제 그랑프리 수상작으로, 두 선교사의 포교 활동을 통해 종교와 사랑, 정의의 의미를 되새겨 주는 작품이다.
- ⑩ 바로크 미술과 신고전주의 미술 사이에 프랑스에서 성행한 유럽 미술양식의 하나. 바로크와 달리 경쾌하고 화려한 특성을 지니며, 특히 실내장식이나 도자기 등의 공예에 뛰어난 작품이 많다.
- ⑫ 소설에서,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 있는 소설.
- ⑬ 아르헨티나 탱고에 사용하는 손풍금의 하나. 음색, 구조가 아코디언과 비슷하나, 아코디언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스타카토 주법이 가능하다.
- ⑭ 1991년 지바 세계탁수선수권대회에서 남북한이 단일팀을 꾸려 세계최강 중국을 꺾은 실화를 그린 문현성 감독, 하지원, 배두나 주연의 영화.
- ⑮ 러시아 태생의 프랑스 화가. 소박한 동화의 세계나 하늘을 나는 연인들이란 주제를 즐겨 다루었고, 자유로운 공상과 풍부한 색채는 보는 사람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풀어주는 매력이 있다.
- ⑯ 대사 없이 표정과 몸짓만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연극. 팬터마임.
- ⑰ 독일의 작곡가. 베토벤, 베버 등의 영향을 받아 장대한 악극을 많이 썼으며, 독일 낭만파를 대표하는 대작을 남겼다. 대표작으로 오페라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탄호이저', 악극 '트리스탄과 이졸데' 등이 있다.
- ⑱ 아프리카 대륙 북동부에 있는 나라로 수도는 카이로. 고대문명 발상지로, 오늘날 아랍과 중동지역에서 정치적·문화적 중심국가를 이룬다.
- ㉒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이진리에 있는 저수지로, 물에 잠겨 자생하는 왕버들이 유명하다.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의 촬영지로 유명하다.
- ㉔ 영국의 소설가 배리의 '피터팬'에 등장하는 해적단의 우두머리.

정답을 보내주세요!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12년 6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지 / 난 / 호 / 정 / 답

수	유	기			러			괴	물
	키		알	함	브	라			랑
축	구		래		스		이	글	루
		라	스		토	스	카		즈
하	모	니	카		리		루	블	
		토			그		스		문
향			고	리		장		수	화
단	심	가			그	림	형	제	바
			우			보		노	우
레	이	디	가	가		슈	바	이	처

5월 퍼즐 당첨자

**공간소극장** 윤금주(부산진구 가야2동)  
**초대권** 임옥순(부산진구 양정동)  
 전익경(사상구 감전동)  
 정강호(해운대구 우2동)  
 최경연(수영구 광안2동)

**나랏소** 노혜진(해운대구 반여1동)  
**식사권** 박현정(남구 용호동)  
 백영경(부산진구 부암동)  
 송재원(남구 대연4동)  
 정재형(수영구 광안동)

**조은극장** 박정민(거제시 아주동)  
**초대권** 이은정(사하구 하단동)  
 정은혜(금정구 장전동)  
 진은수(양산시 물금읍)  
 최미희(금정구 서동)

**큰집** 김정숙(금정구 남산동)  
**식사권** 김호진(동래구 명륜2동)  
 박정화(남구 용호1동)  
 신분주(양산시 물금읍)  
 주선재(영도구 대교동2가)

공간소극장 | 051-611-8518  
 나랏소 | 051-628-8814  
 조은극장 | 1588-2757  
 큰집 | 051-245-3320



# 2012년 6월 공연일정

2012  
June

# 6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sun	mon	tue	wed	thu	fri	sat
<p><b>전시일정</b></p> <p>부산회화제-대, 중전시실 5월 29일(화)-6월 4일(월) 부산미술협회(632-2400)</p> <p>부산미술대전 제3회 사제동행전-중전시실 6월 8일(금)-6월 14일(목) 부산미술협회(632-2400)</p>	<p>제6회 한서미술대전-대전시실 6월 10일(일)-6월 12일(화) 정충욱(010-2582-4201)</p> <p>부산디카사랑회 제7회 사진전시회-대전시실 6월 16일(토)-6월 17일(일) 부산디카사랑회(010-8274-1182)</p>				<p>01</p> <p>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춤으로 보여주는 동화 속 이야기-호녀심청 11:00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p>	<p>02</p> <p>토요상설무대-부산청소년국악관현악단 연주회 16:00 무료/선착순 부산문화회관(607-6056)</p>
<p>03</p>	<p>04</p> <p>제8회 부산국제무용제 'AK21 국제인무가 육성공연' 19:00 2만원 · 1만원/부산국제무용제 사무국(890-2507)</p> <p>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춤으로 보여주는 동화 속 이야기-호녀심청 11:00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p>	<p>05</p> <p>제8회 부산국제무용제 폐막공연 19:00 2만원 · 1만원/부산국제무용제 사무국(890-2507)</p> <p>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춤으로 보여주는 동화 속 이야기-호녀심청 11:00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p>	<p>06</p>	<p>07</p> <p>네오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5만원 · 2만원 · 1만원 네오필하모닉 오케스트라(440-3372)</p> <p>인순이와 드니성호 My... 대화 19:30 12만원 · 8만원 · 5만원 · 3만원 Sens Management(02-749-8821)</p> <p>춤으로 보여주는 동화 속 이야기-호녀심청 11:00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p>	<p>08</p> <p>창단 50주년 기념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80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한명희와 음악친구들-내 인생의 2번째 축제 19:30 초대/부산아트메니지먼트(740-5833)</p> <p>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part2 - 자전거 탄 풍경 20:00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7)</p>	<p>09</p> <p>부산하모니합창단 제9회 정기연주회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에' 19:00 초대/부산하모니합창단(010-1304)</p> <p>인코리아 아카데미오케스트라 제15회 정기연주회 19:00 초대/인코리아아카데미오케스트라(010-4842-6688)</p> <p>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합창단 연주회 16:0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p>
<p>10</p> <p>김정원과 친구들 여섯 번째 이야기 '빈에서 온 편지' 17:00 5만원 · 3만원 더 스톱프(02-2658-3546, www.stoppmusic.com)</p> <p>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2012 유망 신예음악회 밤 17:00 초대/UKO(011-591-3342)</p>	<p>11</p> <p>2012 제29회 부산음악콩쿠르-예선 10:00 부산문화방송 사업팀(760-1124)</p>	<p>12</p> <p>2012 제29회 부산음악콩쿠르-예선 10:00 부산문화방송 사업팀(760-1124)</p>	<p>13</p> <p>2012 제29회 부산음악콩쿠르-예선 10:00 부산문화방송 사업팀(760-1124)</p>	<p>14</p> <p>2012 제29회 부산음악콩쿠르-예선 10:00 부산문화방송 사업팀(760-1124)</p>	<p>15</p> <p>2012 제29회 부산음악콩쿠르-예선 10:00 부산문화방송 사업팀(760-1124)</p>	<p>16</p> <p>덕터스 심포닉밴드 제11회 정기연주회 19:00 초대/정홍기(010-2561-6047)</p> <p>브릴란트 오페라 앙상블 제6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2만원/홍승표(010-2962-0459)</p> <p>토요상설무대-추임새국악예술단 연주회 16:0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p>
<p>17</p> <p>판페라 최고의 히어로 '델테나스' 내한공연 17:00 12만원 · 10만원 · 8만원 · 6만원 브라보컴(02-3463-2466, 아트뱅크코리아(442-1341)</p> <p>U.K.Y.O 제4회 정기연주회 17:00 균일 1만원/U.K.Y.O(010-5540-1538)</p> <p>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콰르텟 콘서트 17:00 초대/김정희(010-4552-4106)</p>	<p>18</p> <p>강진과 함께하는 이웃사랑 콘서트 19:00 균일 1만원/마하사(756-2349, 010-5573-3371)</p>	<p>19</p> <p>정경화 바이올린 독주회 19:30 12만원 · 10만원 · 8만원 · 6만원 · 4만원 부산아트메니지먼트(740-5833)</p> <p>양경아 바이올린 독주회 19:30 2만원 · 1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제2회 서정숙의 춤 19:30 초대/서정숙(010-3593-4883)</p>	<p>20</p> <p>2012 제29회 부산음악콩쿠르-예선 10:00 부산문화방송 사업팀(760-1124)</p>	<p>21</p> <p>2012 제29회 부산음악콩쿠르-예선 10:00 부산문화방송 사업팀(760-1124)</p>	<p>22</p> <p>부산시립합창단 제142회 정기연주회 제8대 수석지휘자 취임기념 연주회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합창단(607-3141~2)</p> <p>부산제임버오케스트라 제14회 정기연주회 'Romantic' 19:30 초대/경성대학교(663-4917)</p> <p>오션뮤직의 캐디슨 색소폰 19:30 2만 5천원/오션뮤직(623-3661)</p>	<p>23</p> <p>토요상설무대-춤소리예술단 공연 16:0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p>
<p>24</p> <p>AGAIN 이은결의 블록버스터 매직 'THE ILLUSION' 14:00, 18:30 8만원 · 6만원/유엔아이(1588-8477)</p>	<p>25</p> <p>멜로매니아 제18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원요한(011-590-1115)</p> <p>2012 제21회 부산무용제 19:30 1만원 · 5천원/부산무용협회(632-5116)</p>	<p>26</p> <p>부산 필하모니아 교향악단 제5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3만원/고영진(010-2739-8379)</p> <p>2012 제21회 부산무용제 19:30 1만원 · 5천원/부산무용협회(632-5116)</p> <p>부산시립무용단 2012 동류風流-제5기 시민과 함께 하는 우리 춤 빛깔 찾기 19:30 균일 3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p>	<p>27</p> <p>2012 제21회 부산무용제 19:30 1만원 · 5천원/부산무용협회(632-5116)</p>	<p>28</p>	<p>29</p>	<p>30</p> <p>AGAIN 이은결의 블록버스터 매직 'THE ILLUSION' 15:00, 19:30 8만원 · 6만원 유엔아이(1588-8477)</p> <p>부부 음악회 19:30 3만원 · 2만원 · 1만원/김경애(010-9334-6105)</p> <p>국악실내악단 도시락 첫번째 콘서트 18:00 초대/이지현(010-8986-6056)</p>

# June 2012 Program Guide

2012  
June

6

Grand theater Medium theater Small theater

B.P.O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 B.M.T.O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B.M.D.C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 B.M.C Busan Metropolitan Chorus

B.M.T Busan Metropolitan Theater / B.M.Y.C Busan Metropolitan Youth Chorus

sun	mon	tue	wed	thu	fri	sat
<p><b>Exhibition Hall</b></p> <p>The 16th Busan Arts Festival- Main, Middle Exhibition Hall 5.29(Tue)-6.4(Mon) Busan Fine Arts Association(632-2400)</p> <p>The 3rd Busan Arts Competition The 3rd Artist Festival with teachers and students- Middle Hall 6.8(Fri)-6.14(Thu) Busan Fine Arts Association(632-2400)</p>	<p>The 6th Han-seo Grand Art Exhibition Main Hall 6.10(Sun)-6.12(Tue) Jung Chung-ok(010-2582-4201)</p> <p>The 7th Photo Exhibition of Busan Dica club-Main Hall 6.16(Sat)-6.17(Sun) Busan Dica Sarang(010-8274-1182)</p>				<p>01</p> <p>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Easy Story Presenting by Dance Movement' 11:00 1,000/BMDC(607-3131-2)</p>	<p>02</p> <p>Saturday Regular Stage 16:00 Free (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B.C.C(607-6056)</p>
<p>03</p>	<p>04</p> <p>The 8th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AK21 International Choreographer Dance Project and Ceremony Performance) 19:00 20,000/10,000 / BIDE(890-2507)</p> <p>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Easy Story Presenting by Dance Movement' 11:00 1,000/BMDC(607-3131-2)</p>	<p>05</p> <p>The 8th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Closing ceremony performance) 19:00 20,000/10,000 / BIDE(890-2507)</p> <p>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Easy Story Presenting by Dance Movement' 11:00 1,000/BMDC(607-3131-2)</p>	<p>06</p>	<p>07</p> <p>Neo Philharmonic Orchestra Regular Concert 19:30 50,000/20,000/10,000 Neo Philharmonic Orchestra (440-3372)</p> <p>In Sun-i and Denis Sung-ho 'My... communication' 19:30 150,000/120,000/80,000/50,000/30,000 Sens Management(02-749-8821)</p> <p>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Easy Story Presenting by Dance Movement' 11:00 BMDC (607-3131)</p>	<p>08</p> <p>The 480th Regular Concert of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30 10,000/7,000/5,000/ B.P.O(607-3111-3)</p> <p>Han Myeong-hee and her Music Friends - The 2nd Festival of My life 19:30 Invitation/Busan Arts Management(740-5833)</p> <p>The Concert Underneath the Sky-Part II Yesterday 20:00 30,000/ B.C.C (607-6057)</p>	<p>09</p> <p>The 9th Regular Concert of Busan Harmony Choir 19:00 Invitation/Busan Harmony Choir(610-1304)</p> <p>The 15th Regular Concert of Incorean Academic Orchestra 19:00 Invitation Incorean Academic Orchestra(010-4842-6688)</p> <p>Saturday Regular Stage 16:00 Free (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 B.C.C(607-6056)</p>
<p>10</p> <p>The History Of Julius &amp; Friends-The Letter from Vienna 17:00 50,000/30,000/STOMP (02-2658-3546, www.stompmusic.com)</p> <p>The night of concerto for youth soloists with United Korean Orchestra 17:00 Invitation/ UKO(011-591-3342)</p>	<p>11</p> <p>2012 The 29th Busan Music Competition - preliminary 10:00 Busan MBC Business Team(760-1124)</p>	<p>12</p> <p>2012 The 29th Busan Music Competition - preliminary 10:00 Busan MBC Business Team(760-1124)</p>	<p>13</p> <p>2012 The 29th Busan Music Competition - preliminary 10:00 Busan MBC Business Team(760-1124)</p>	<p>14</p> <p>2012 The 29th Busan Music Competition - preliminary 10:00 Busan MBC Business Team(760-1124)</p>	<p>15</p> <p>2012 The 29th Busan Music Competition - preliminary 10:00 Busan MBC Business Team(760-1124)</p>	<p>16</p> <p>The 11st Regular Concert of Doctors Symphonic Band 19:00 Invitation/Jeong Hong-ki(010-2561-6047)</p> <p>Brilliant Opera Ensemble 'Concerto dalla Diva' 19:30 20,000/Hong Seong Pyo(010-2962-0459)</p> <p>Saturday Regular Stage 16:00 Free (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 B.C.C(607-6056)</p>
<p>17</p> <p>The 10 Tenors 17:00 120,000/ 100,000/ 80,000/ 60,000/ BravoComm(02-3463-2466)</p> <p>The 4th Regular Concert of United Korean Youth Orchestra 17:00 10,000/ U.K.Y.O (010-5540-1538)</p> <p>The Piano Quartet Concert for 2 pianos 17:00 Free/ Kim Jung-hee(010-4552-4106)</p>	<p>18</p> <p>Catholic, Buddhist love for Neighbor Concert with Gang Jin 19:00 10,000/ Mahasa(756-2340)</p>	<p>19</p> <p>Chung Kyungwha Violin Recital 19:30 120,000/100,000/80,000/60,000/40,000/ Busan Arts Management(740-5833)</p> <p>Yang Gyeong-a Violin Recital 19:30 20,000/10,000/ Artbank Coreal(442-1941)</p> <p>The 2nd Dance of Seo Jung-suk/ 19:30 Seo Jung-suk(010-3593-4883)</p>	<p>20</p> <p>2012 The 29th Busan Music Competition - finals 10:00 Busan MBC Business Team(760-1124)</p>	<p>21</p> <p>2012 The 29th Busan Music Competition - finals 10:00 Busan MBC Business Team(760-1124)</p>	<p>22</p> <p>The 142nd Regular Concert of Busan Metropolitan Chorus- The Inauguration Concert, Conductor Oh Se-jong 19:30 10,000/7,000/5,000/Busan Metropolitan Chorus(607-3141-2)</p> <p>The 14th Regular Concert of Busan Chamber Orchestra 'Romantic' 19:30 Invitation/Kyung Sung Uni.(663-4917)</p> <p>Cadison's Saxophone Concert 19:30 25,000/ Ocean Music(623-3661)</p>	<p>23</p> <p>Saturday Regular Stage 16:00 Free (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B.C.C(607-6056)</p>
<p>24</p>	<p>25</p> <p>The 18th Regular Concert of The Melomania 19:30 Invitation/The Melomania(011-590-1115)</p> <p>2012 The 21th Busan Dance Festival 19:30 10,000/5,000 Busan Dance Association (632-5116)</p>	<p>26</p> <p>The 5th Busan Philharmonia Orchestra Regular Concert 19:30 30,000/Ko Young-jin(010-2738-8379)</p> <p>2012 The 21th Busan Dance Festival 19:30 10,000/5,000/ BDA(632-5116)</p> <p>2012 Pung Ryu 風流-The 5th Finding our dancing characteristics with citizen - 19:30 3,000 /BMDC(607-3131-2)</p>	<p>27</p> <p>2012 The 21th Busan Dance Festival 19:30 Busan Dance Association (632-5116)</p>	<p>28</p>	<p>29</p>	<p>30</p> <p>AGAIN Blockbuster Magic show of Lee Eun-Geol THE ILLUSION' 15:00, 19:30 80,000/60,000/ You&amp;I(1588-8477)</p> <p>The Couple Recital 19:30 30,000/20,000/10,000/ Kim Jung-a(010-9334-6105)</p> <p>The Korean Chamber music 'Dosirak' Anniversary Concert 18:00 Invitation/Lee Ji hyun(010-8986-6056)</p>
<p>7/1</p> <p>AGAIN Blockbuster Magic show of Lee Eun-Geol THE ILLUSION' 14:00, 18:30 80,000/60,000/ You&amp;I(1588-8477)</p>						



# 자전거 탄 풍경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날을 기억하며  
우~ 후회없이 그림처럼 남아두기를

자전거 탄 풍경 中

송봉주  
(풍경)

김형섭  
(탄)

강인봉  
(자전거)

2012. 6. 8 (금) 오후 8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주최\_ 부산광역시

주관\_ 부산문화회관

문의\_ 홍보마케팅부 051) 607-3100 / 공연과 051) 607-60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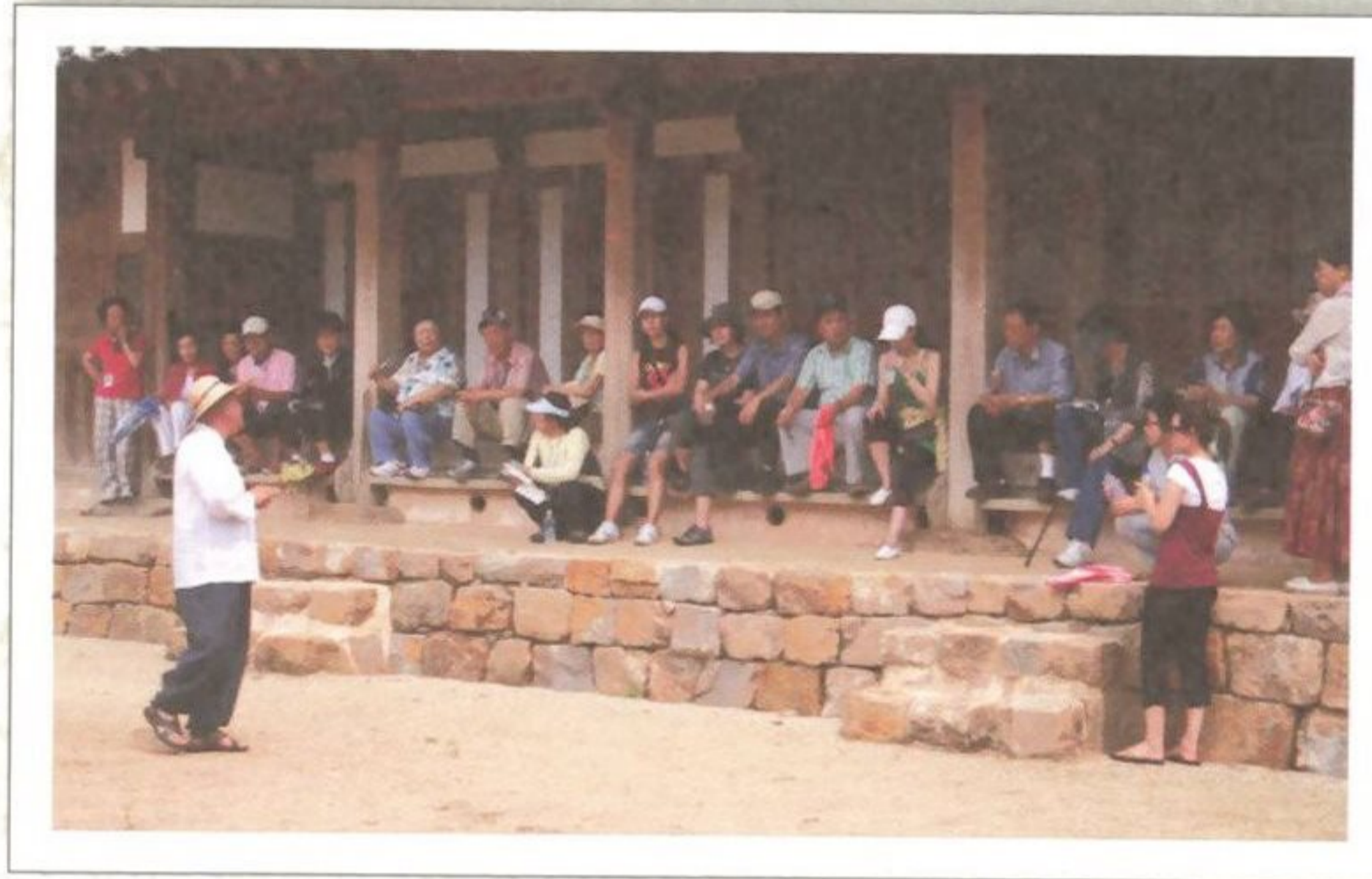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입장권\_ 전석 3만원

예매\_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 청도

2012년 7월 13일(금)

세상의 시름을 잊고 풍류를 즐기던 청도 선인들의 지혜와 여유를 만날 수 있는 청도 고택투어. 조선시대 양반가의 대 저택인 운강고택을 비롯해 조선시대 궁중내시(宮中內侍) 김일준이 낙향 후 지은 임당리 고택, 아름다운 정자의 모든 조건을 갖춘 삼죽대에서 싱그러운 여름을 즐겨본다.

- 08:3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 10:00 자두 따기 체험
- 12:00 중식
- 13:00 청도 고택 탐방-운강고택, 임당고택, 삼죽대, 유희연지, 군자정 등
- 16: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7:00 부산으로 출발

## 김천

2012년 8월 10일(금)

고찰 직지사과 서원·향교 등의 문화유적이 자연과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도시 김천으로 떠나는 여름여행. 한국관광공사 추천 상품, 경상북도 우수 야간관광상품으로 선정된 김천 직지 나이트투어 길을 따라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진 과일의 도시 김천의 매력을 느껴본다.

- 12:0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 15:00 김천 도착, 여름 과일따기 체험
- 17:30 저녁식사(바루공양)
- 18:30 꼬마연등 만들기 체험 및 탑돌이
- 19:00 직지사 이야기 여행,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20:00 세계도자기박물관, 춤추는 음악분수, 직지문화공원 공연감상
- 21:00 부산으로 출발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 름

주 소

연락처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154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의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예술의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 름

주 소

연락처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154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의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예술의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  
Discount

센텀점

**Today**  
Restaurant  
Since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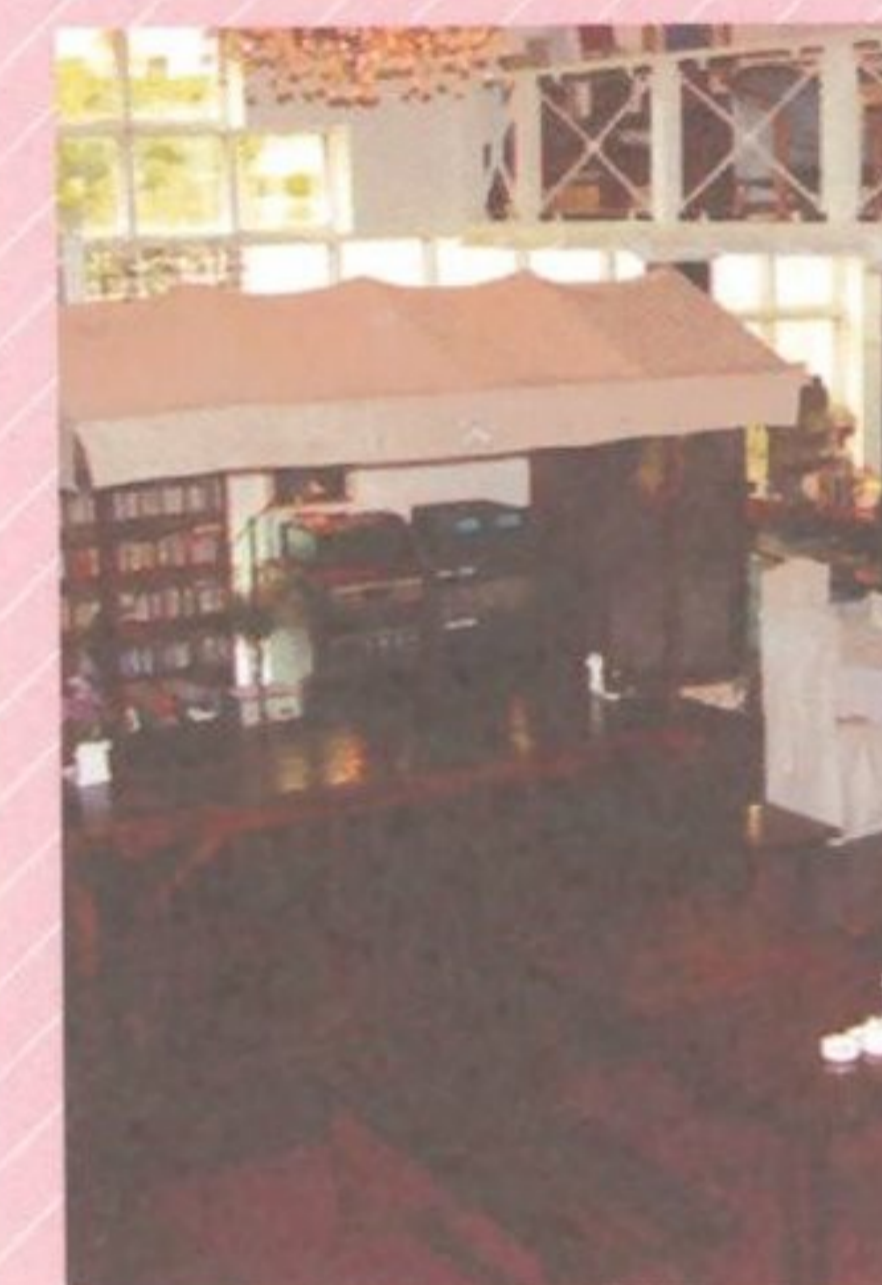
10%  
Discount

**MOZART**



10%  
Discount

센텀점  
**하트동기스**



10%  
Discount

Since 1981  
**philharmony**



20%  
Discount

연극  
2012  
죽여주는 이야기

부산시립극단 제44회 정기공연

고도를 기다리며  
En attendant Godot

2012. 8.23(목)~25(토)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문 의 부산시립극단(607-3151~2)

사무엘 베케트 작 서정철 번역 이성규 연출

2012 대한민국  
소극장  
열전  
0518...  
0623...  
TEL 051.611.8518  
WEB CAFE.DAUM.NET/SAG12

30%  
Discount

대한민국 소극장 열전  
In BUSAN

**토다이 센텀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20% 할인  
(평일 점심제외)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 임페리얼 타워 5층  
예약 : 051)731-700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행사는 토다이 센텀점에 한합니다.

**모차르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음료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1층  
051)626-1456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돈까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할인  
(점심특선 제외)

센텀SH밸리 210호  
051)747-8244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하모니**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051)626-2592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죽여주는 이야기**

2012.4.20(금)-7.22(일) 화-목요일 오후 8시  
금요일 오후 5시, 8시, 토요일 오후 4시, 7시, 9시  
일,공휴일 오후 3시, 6시(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균일 3만원 장소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문의 및 예매 : 1588-2757

쿠폰소지회원에게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대한민국 소극장 열전 In BUSAN**

2012.5.18(금)-6.17(일)  
금요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6시(월-목요일 공연없음)  
입장권 : 균일 2만원 장소 : 공간소극장  
문의 및 예매 : 611-8518

쿠폰소지회원에게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2012년 6월 응모**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 회원명

• 연락처 [자택]

[휴대폰]

• e-mail

• 동행자 인적 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참여하고 싶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십시오.

**독자의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 퍼즐정답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말 한마디에  
천냥 빛 갚는다  
?!

## 광고하나로 천냥 빛 갚는다!!

효과있는 광고로 당신의 근심, 걱정을 날려 보내 드립니다

제작 / 각종 프로모션, 홍보부스, 영상물, 사인물 등  
광고 / 지하철, 신문, TV, 라디오 등  
디자인 / 편집디자인, CI, BI 등

원칙에 충실한 광고회사 ANK  
TEL : 051.755.3002 웹하드 : ankokok / ankokok  
홈페이지 : www.ank.or.kr



상서 2012.  
환경생태

음향의



객원지휘  
이정필 (국립부산국악원 예술감독)



25현 가야금\_김혜진



클라리넷\_손영재



민요\_최윤영



민요\_이은혜



민요\_김세운

Program

1. <부산초연> 국악관현악 '산' / 작곡\_이준호
2. <부산초연> 25현가야금과 클라리넷을 위한 메나리 / 작곡\_박범훈 / 편곡\_박위철 / 25현가야금\_김혜진, 클라리넷\_손영재
3. <부산초연> 서도민요연곡 '느리게타령', '금다래타령', '싸름타령', '풍구타령' / 작곡\_황호준 / 서도민요\_최윤영 · 이은혜 · 김세운
4. <부산초연> 세계민요기행 / 편곡\_김기범
5. <부산초연> 관현악 '광야의 숨결' / 작곡\_강상구

2012년 6월 13일(수) 오후 7시 30분 부산을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주최\_ 부산광역시 | 공동주관\_ 부산문화회관, 을숙도문화회관 | 후원\_ BBS 불교부산방송 | 입장료\_ 전석초대(무료)

공연문의\_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051)607-3123 을숙도문화회관 (051)220-5811



국립발레단  
백조의호수

*Swan Lake*

2012. 7.13 Fri PM 7:30

7.14 Sat PM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티켓 오픈일 | 2012. 6. 4(월) 오후 2:00

| 입장권 |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 주최 | 부산광역시 국제신문

| 주관 | 부산문화회관

| 문의 | 051.607.6058, 051.500.5222 | 예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리켓링크 www.ticketlink.co.kr

부산은행 전지점 / 부산문화회관

| 셔틀버스 운행(무료) |

• 출발지 : 대연지하철역 5번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